



8

198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 8 호

(루계 466)



◆◆◆◆◆◆◆◆◆◆

차 례

◆◆◆◆◆◆◆◆◆◆

아! 1945 년 8 월 15 일	3
개선문	4
밤, 눈은 내리는데	4
일심단결 당을 따라	5
강철로 받들리 우리의 당중앙	5
향도의 별 김정일 동지	6
꿈결에도	6
혁명적당건설의 백과전서를 받아안고	7
당의 작가된 공지를 안고	7
영웅전사들의 위훈이 내려친곳에서	8
고향의 어머니에게	9
씨비리의 붉은 장미	10
나는 조선사람이다	18
시간의 흐름	19
녀인	20
영광스러운 대오의 영원한 전사로	21
배 들어올 때는	22
청년개척자의 수기	23
백양나무	34
열두번째	35

대양만리 헤쳐가도.....	41
나의 사진.....	42
동화의 현대성과 동화적인 형상탐구	43
새들도 노을도 백양나무도.....	48
용해공기사들이 들어선다.....	48
우리 날마다 끓이는것은	49
꾸준한 노력과 관련된 속담	49
세대앞에	50
시의 서정구조에 대한 문제	58
밑거름.....	62
새날의 첫 기슭에서	63

아! 1945 년 8 월 15 일

김홍열

그날이었다
일제의 《대본영》이
피를 토하며 발표한 공시문이
어두운 길바닥에 나붙은것은...

-오늘 오후 중대방송
국민 필청할것-

그날이었다
《천황》이 창백한 손을 들고 항복한것은
죽어가는 목소리로 패망을 고한것은

그날은 뜨거운 태양이 빛을 뿌리는
날씨 좋은 8월 15일이였다
새세상이 밝아온 첫날이였는데
자전거를 타고 《납세고지서》를 뿌리며
세금을 내라고 호통치던 대머리

코날에 안경걸고 승마복차림으로
마을 고개길 넘어서며
머슴살던 한 청년에게 고함을 질렀다
-야! 당장 《호세》를 내라
《소화20년》 8월 15일...
오늘까지 물게 된 세금 아니냐?

언어는 있어도 말 못한 《병어리》로
랭가슴 앓던
그 무표정한 젊은이
《납세고지서》를 찢어
그놈의 저주로운 낫쪽에 뿌려던지며
-이놈아, 오늘은 《소화20년》이 아니라
우리 조국이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이다!

이즈음 인력거를 타고온 비대한 지주
개화장을 휘두르며 언덕아래 마을에서

피대를 뜯구었다
-오늘이 《소화20년》 8월 15일이다
변돈을 물지 못하겠으면 팔년을 내놔

그 어지다던 소작농의 아들이
지주놈의 개화장을 분질러버리며
천동같은 목청으로 지심을 울렸다
-이놈아 《소화20년》은 온데간데 없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이다!

이날 간도에서 떠난 렬차
두만강을 건넜다
국경역 역수는 발벗은 손님들을
차표없이 태웠다
검버섯 돋은 안해의 한이 풀려
남편의 무덤에 성묘하러 갔다

망국의 호곡이 강산에 울리고
망향의 차창에 설음이 쌓이던
우리 민족의 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아, 그 품에 안겨 난생처음 울며 만세 부른 날
평양종이 목메여 울지 못했고
길가던 소경이 두눈으로 울었다

향방 없던 겨례의 슬픔이 가시고
민족의 대통운이 래일로 이어진 날
아!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가슴에서 못을 뽑은 날
암흑천지에 심판을 내리고
새세상이 밝아온 이날로부터
마흔해 긴 세월 행복을 이어온 영광의 길우에서
혁명하기 좋아하는 우리는
다감한 그날의
목메던 그 감격을 뜨겁게 노래한다!

개신문

오필천

몇십년을 걸어서
몇백만리에 달아야
개신문을 세울수 있느냐

싸움의 전장에서
기세창검 돌아오는 영웅호걸마다
개신문을 세우는것 아니여라

우리 수령님
내 나라를 찾고 돌아오리라
만경대를 결연히 떠나실제

개신문이여
너는 그때 벌써
인민의 가슴에 솟아있었거니

맹세의 강
압록강 푸른 물에 고이 씻고 다듬은
백두의 천년암반을 주춧돌로 고이고

광복의 첫 메아리를 터치시던
안도의 울창한 밀림을

아름드리 기둥으로 세웠나니

겨레의 얼어든 가슴을 녹이시며
고난의 자욱자욱을 설피 신고 넘으시던
성스런 백두성산을 로대우에 새기고

천험 산발마다 터친 승리의 축포들을
아름다운 진달래로 원주에 수놓아
영광의 개신문을 세웠나니

아, 누구에게나 다
세기의 위인 명장들마다
개신문이 있는것 아니여라

민족의 운명
조국의 념원
한몸에 다 안아 이룩해주신

우리 수령님께만이 세워드릴수 있는
력사의 송축비-
오, 개신문이여!

밤, 눈은 내리는데

리영봉

밤, 눈은 내리는데
우리 수령님 서계시네
불밝은 용해궁아빠트 창가
청맑게 울려나오는 노래를 들으시며

불빛은 고요히 흐르고
노래는 정겨이 울려가고
어데선가 청춘들의 다감한 웃음소리
바람결에 실려오는 구수한 생선국냄새

무엇이라 이름 못할 아릅찬 행복을
속삭이듯 설레이며 흰눈이 내리고
저 멀리-
다녀오신 용해장지붕우에

붉게 피어오르는 밤노을 밤노을

-이 밤은 좋구만
내가 서른해전에 왔을 때는
발걸음이 무겁더니
얼마나 좋소, 쇠물이 끓고 노래가 넘치고...

거닐수록 마냥 즐겨우시여
환하신 미소 창가에 보내시며
내리는 눈송이도 기쁘게 맞으시는
우리 수령님

아, 백두산에서 맞으시던 그 눈
미처 다 녹기도전에

나라가 허리꺾을 강철때문에
또다시 맞으시며
용해장을 찾으셨던 12월의 그 밤

준엄한 년대를 이어
수령님 어깨우에
덧쌓이는 그 눈송이
타는 이 가슴에
천만근의 무게로 내리더니

이 밤엔, 이 밤엔
세월의 찬눈을 다 녹이시며
헤쳐오신 그 자욱자욱우에
노래가 되어 웃음이 되어
송이송이 내리는 하얀 눈송이

아, 한가슴에 안아보시기엔
너무도 크시여
영원한 인민의 행복으로 안으시며
춤추듯 내리는 흰눈송이
즐겁게 맞으시는 우리 수령님

한평생 마련해오신
그 기쁨이 꽃피는 밤
내리는 눈송이도 행복을 속삭이며
뜨거이 내리는 이 밤

밤, 눈은 내리는데
온 나라를 요람속에 품어주시고
수령님 웃으시며 걸으시는 행복한 이 밤
웁기시는 자욱자욱우에
흰눈이 내린다, 사랑을 노래하며

가사2편

일심단결 당을 따라

박필모

찬란한 년대기우에 미래를 열어준
향도의 빛발 안고 우리는 간다
천만이 걸어가도 한마음
천만리 우리 가도 한걸음
일심단결 당을 따라 앞으로

의리로 뭉치여지고 단결로 억센 힘
산악도 뚫고 넘어 진펄도 헤치리
불속에 버리어진 이 단결

폭풍이 불어온들 가르라
일심단결 당을 따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온 길에 영광은 빛나고
우리가 가는길에 희망은 넘쳐라
성스런 주체위업 받들어
영원히 당과 함께 나가리
일심단결 당을 따라 앞으로

강철로 받들리 우리의 당중앙

손동진

재더미 헤치고 첫 쇠를 뽑을 때
가슴에 간직한 그 맹세 잊으랴
락원의 하늘가에 비껴가는 저 노을
그 맹세 지켜가는 우리의 마음이어

백양나무아래서 우리 떠난 첫걸음
세월은 흘러가도 변함없이 이어가네
천리마 나래퍼고 달리는 진군길에
힘차게 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어

향도성 따라서 빛내가는 이 한길
그 맹세 잊으랴 그 걸음 멈추랴
강철같이 굳세인 신념의 기둥으로
영원히 당중앙 받들어가리라

아, 우리의 당중앙
영원히 강철로 받들어가리라

향도의 별 김정일동지

씨이디 마썸디

망망한 대양의 파도는
사납게 일고
온갖 빛을 삼켜버렸다
배들은 갈길을 잃었다

먹물을 뿌린듯이 암흑이 찾아들었으나
아, 여기서 세상이 끝나고마는가
우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 갈길을 잃고
우리는 정처없이 헤매고있었다
번민과 절망에 찬 소리 높아갔다

이때 그 누가 웨치는 소리
-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오
동녘을 쳐다보시오
별이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있소!-

아, 그 별은 한 배의 돛대우에 높이 솟아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향도의 별이 되어 앞길을 밝혀주며

그 별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속도를 늦추지 않고 방향도 잃지 않는 배

모든 배들을 이끌고 나가는 배
그 배는 바로 《조선》

그 배를 따라 다른 배들 뒤따라섰다
그 향도의 별은 **김정일**동지
항일혁명의 폭풍속에 탄생하신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완벽하게 체현하신분
그이는 **김일성**동지의 유일한 후계자
그이는 주체위업을 완성해나가시는분

《조선》은 앞장서 나아가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 향로를 가리켜주신다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시고
끝없는 변혁을 안아오시는 투사

《조선》을 따르는 우리들
마음도 든든해지고 방향도 뚜렷하거니
끝없는 힘모의 정을 안고
향도의 별을 우러르는 우리들
감격에 목메여 부르고 또 부른다
《**김정일**동지 만세!》
《**김정일**동지 만세!》

(필자는 탄자니아 다르 에스살람종합대학 학생임)

꿈결에도

김창걸

일흔하고 네고개를 넘어섰건만
형님은 여전히 정정하시네
언젠가 농업협동조합을 무을젠 선참으로 들어
방선에 선 나를 기쁘게 해주시더니
형님은 아직도 농장일 놓지 않으셨네

사람이 곱나 일이 곱지
장생불로란 따로 있나 일손을 놀리는게지
생각만 해도 동생된 마음 즐거운데
형님은 내손 잡고 말씀하시네

-우리 집안에 날마다 복이 들더니
장손인 대학엘 가고

네가 다 숨은 공로자로 뽐히우고
행복한 밤에 잠도 폭 들었더니만
아니 글썽 꿈에 수령님께서 오시여
그 기쁨을 함께 즐겨주시지 않겠니

좋은 세월 꿈도 좋은
나날이 하종아서 나도 장수하니라
참말이지 우리 수령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며
찾아들 행복을 미리 마련해주시고
찾아든 행복을 함께 기뻐하시니
꿈결에도 그이를 뵈고사는 우리 아니냐

작가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김일성** 고급당학교 창립 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하신 강의록 **《조선로동당건설의 역사적경험》**은 전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

다.

당건설과 혁명위업의 휘황한 길을 밝힌 이 불멸의 총서를 받아안은 작가들의 환희에 찬 심정과 결의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혁명적당건설의 백과전서를 받아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필하신 강의록 **《조선로동당건설의 역사적경험》**을 받아안은 나의 심장은 커다란 환희와 새로운 결의로 높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참으로 풍부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우리 당이 얻은 당건설경험은 앞으로 우리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당건설, 당사업리론과 경험을 집대성한 혁명적당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우리 혁명의 휘황한 길을 밝힌 불멸의 총서이다.

나는 깊은 밤, 불밝은 창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거듭 읽으며 솟구치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시작된 우리 당건설의 영광스러운 로정이 나의 눈앞에 구체적인 화폭으로 눈부시게 펼쳐지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밑에 빛나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새시대의 드팀없는 발구름소리가 귀전에 들리는듯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출발점으로 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 1926년의 그력사적나날들로부터 자랑찬 오늘에 이르는 60년간의 로정 그리고 창창한 미래에로 열려진 우리당의 영광스러운 로정은 당의 작가로 된 나의 가슴에 커다란 긍지와 행복을 안겨주었다.

충성의 붓을 들어 우리 당을 노래하는 창작자들의 삶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한 삶이 또 어디 있으랴!

나는 자기앞에 더 방대하고 현실성있는 창작과제를 제기하고 힘있게 돌진하러 한다.

당창건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의 갈피마다에 빛나는 서사시적화폭들을 장편소설로 형상하며 주체시대의 참다운 당일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소설들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하겠다.

나는 오늘도 창작의 펜끝을 심장의 열도로 뜨겁게 달구며 소설작품들의 전망을 흥분속에 내다보고있다.

김창희

당의 작가된 긍지를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발표하신 강의록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경험》**을 나는 커다란 감격속에 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학습하면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구호를 높이 드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마음속으로 우러르는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는 당의 작가된 나의 가슴에 끝없는 창작적열정의 불씨를 안겨주고있다.

나는 우리 당을 노래하는 가수로서 격조높은 서정시들을 창작하겠다.

우리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당의 크나큰 은덕에 대하여, 우리 당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할 인민들의 철석같은 신념을 나의 시작품에 반영하겠다.

또한 우리 당의 빛발아래 꽃핀 우리의 평양을 노래하는 시초를 보다 훌륭히 완성할 결심이다.

유국진

영웅전사들의 위훈이 나래친곳에서

김동호

인민군전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가 남김없이 발휘되고 세인을 놀래운 불멸의 위훈이 아로새겨진 곳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가릴처절했던 전화의 나날을 상기시켜주는 전쟁터만을 가리키는것은 아니다.

80년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완공된 남포갑문의 위용에서도 우리는 영웅적인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위훈을 본다. 물론 이곳 남포갑문에서는 매캐한 초연냄새와 백명전의 음향을 련상케 하는것도, 입벌린 폐허의 자취같은것도 찾아볼수조차 없다. 대신 이곳에는 창조의 기념비가 있다. 아름다운 창조와 건설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울리고있다!

날바다를 가로막으며 끝산뿌리와 령남리를 련결하여 아득히 뻗어간 20리 언제, 그 굳건한 언제우로 경쾌한 기적소리 높이 기차가 달리고 대동강 맑은 물이 그득 고인 거울같은 수면우로는 흰 갈매기 한쌍이 제모습을 비쳐보듯 스치며 날아댄다. 육중한 선체를 뚝뚝거리며 배들은 갑실로 미끄러지듯 들어서고 갑문기슭과 아득한 언제우로는 청춘남녀들의 쌍쌍이 거닐고있다. 언제에 부딪친 파도는 오색령통한 포말을 날리는데 마치도 갑문에 드리는 바다의 꽃보라같다.

불수록 장엄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영웅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은 전체 인민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3대혁명의 영예로운 과업을 끝까지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총동원되어야 하겠습니 다.》

남포갑문과 같은 평화적인 건설장소, 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한 건설장에 인민군 군인들을 불러주시고 바로 그 건설장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데 대하여 뜨겁게 고무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령도!

남포갑문을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로 일떠세운 인민군전사들의 위력의 기저에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담력이 있었다.

하기에 인민군군인들은 태고적부터 이 기슭을 지배하여온 자연의 법칙을 억센 손에 틀어잡고 날바다를 길들였으며 겹쌓이는 닦판과 시련을 뚫고 로동당시대의 또하나의 거대한 창조물을 안아 올린것이였다.

격랑을 쳐들고 끝없이 밀려드는 기승스러운 파도와 령하 30도의 혹한, 성에장들이 부딪치는 겨울의 바다, 한여름의 폭우!... 군인건설자들앞에 가로놓인 난관은 그 얼마였던가!

그러나 전사들은 당이 준 의지와 힘으로 모든 장애를 박차고 오직 승리만을 향해 전진하였다.

포성이 없는 《건설의 전쟁》이 벌어졌다.

군인건설자들은 수십메터의 물밑에서 용접의 불꽃을 날렸고 물아치는 폭풍우속에서도 당에 대한 신념의 노래를 불렀다.

하여 스물안팎의 피끓는 심장들은 불과 5년동안에 거대한 남포갑문을 세대의 기념비로 일떠세웠다.

무릇 군인들의 위훈에 대하여 말할 때 사람들은 군사활동을 생각한다. 그것은 군인들의 영웅성은 전쟁의 처절한 불구름속에서만 발휘되어왔기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위훈은 창조와 건설의 노래속에도 빛나고있다.

남포갑문의 거창한 위용은 평화적건설의 나날에 떨친 인민군전사들의 빛나는 위훈을 만대에 전하며 길이 솟아 영원하리라!

고향의 어머니에게

문동식

1

어머니
고요가 흐르는 초소의 밤
소소리 높은 조국의 고지우에서
이 아들은 바다봅니다
저 멀리 흘러간 아름다운 은하수를
그러면 아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오는 어머니 모습
내 어릴적
복숭아를 먹고싶어도
어머니의 치마자락 붙잡고 흔들었지요
그런 때면
어머니는 나무람하다가도
문밖에 나서시면
그 열매 따들고 돌아오셨고
설익은 그것을 아래목에 무르익혀
작은 두손에 쥐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처음 맛을 익힌 그 복숭아
내 어린 가슴에 뿌리깊이 내리고
어머니가 가고오던 그 길조차
이 마음속에 뻗어왔나니
아, 어머니
나서자란 산천의 뜨거운 정은
무르익은 열매와 즙과 향기로
이 몸에 기울여준 그 사랑은
아들이 안겨자란 고향이었습시다

2

어머니
그리도 소원하던 군복을 입고
고향의 역두를 떠나던 날
이 아들의 손에 들려준것은
붉게 익은 복숭아였습니다
어릴적 그때처럼 조르지 않았어도
다 자란 아들에게 안겨준 그 열매는
따뜻한 아래목에서 무르익혀
안겨주던 어머니의 사랑만이였을가요
그것은
집을 떠나
먼곳에 가셔도
고향땅의 물과 향기마저
잊지 않기를 바라는 뜨거운 진정

아, 어머니의 그 사랑은
복숭아동산의 맑은 옹달샘
보름달 떠오르던 유정한 저녁
창문 넘어 불어오던 향긋한 꽃바람
그것이
알알이 깃들어
기쁨이 주렁지는 정든 향촌을
언제든 품에 안고 지켜가라고
내 가슴속에
속삭여주던 그 열매는
병사가 안아지킬 고향이었습니다
고향길이 뻗어있는 조국이었습니다

3

어머니
깊이 깊어가는 초소의 밤
숲속에 불어오는 그윽한 미풍에도
복숭아 그 향기 실려오는듯
저기 바위아래 솟아나는 맑은 샘도
나를 찾아 흘러오는 그 옹달샘물인듯
이런 때면
그리운 고향산천 품에 안고 지켜가는
이 자랑 그 어데 비길수 있을가요
허나 아련 때조차 아들의 마음은
못견디게 달려가 안아봅니다
진달래 수놓던 고향의 언덕
송사리떼 헤엄치는 맑은 시내물
벌들이 꿀을 따던 과원의 꽃구름
어머니도 그 품에 안겨서 자란 정
못잊어 어머니라 불러부르나니
아, 어머니
이 밤도 아들이 지켜선 조국은
누구나 살뜰하고 정다운 모든것
누려가는 기쁨과 행복의 모든것을
하나로 합쳐서 부르는 어머니 품
수령님 찾아주신 귀중한 이 품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켜가거라
마음속에 안고사는 복숭아향기에
어머니의 정겨운 속삭임을 들으면
아, 이 밤도 아들은
병사의 위훈을 꽃피워갑니다

-1986. 7-

씨비리의 붉은 장미

윤경주

쏘냐가 집에 들어선것은 퇴근시간이 펍 지난 뒤였다.

그를 집현관문앞에서 맞아준 사람은 할머니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 야그레바였다.

《애야,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냐?》

할머니의 걱정어린 음성이 피곤에 시달린 쏘냐의 지친 얼굴에 웃음을 피워준다.

《할머니, 날씨가 찬데 왜 또 밖에 나왔어요. 그러시다 감기라도 드시면 어쩔려구요.》

《원 자식두, 집에 의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난 할머니가 제일 좋아.》

쏘냐는 할머니를 와락 그러안고 주글주글한 그의 볼에 입을 맞추어준다.

《애, 애, 그러다 이 할미 숨넘어가겠다.》

쏘냐의 드세찬 입맞춤이 끝나자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는 긴 모두숨을 후- 하고 내뿜는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

손녀가 와야 할 시간에 집에 들어서지 않으면 그 사유를 끝끝내 알고서야 마음을 놓는 할머니였다.

《갑자기 구급수술이 제기되는 바람에... 할머니나 배고파요.》

《그래 환잔 좀 어떠냐?》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는 배고프다는 손녀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

《위천공환자였는데 인차 병원에 실려왔기때문에 회복이 빠를것 같아요.》

《그거 다행이다. 자, 집으로 들어가자. 오늘저녁 식사는 네가 좋아하는 입쌀밥에다 <조선식김치>를 준비했다.》

쏘냐는 할머니의 그 말에 짹짹뛰어 현관문앞으로 들어섰다.

《요 잠자리야, 발목을 상할라.》

《잠자리》란 할머니가 지어부른 쏘냐의 어렸을 때 별명인데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말이었다.

방안에 들어온 쏘냐는 코노래를 부르며 옷장앞에서 외투를 벗고있었다.

《참 졸전에 너의 위짜가 왔다갔다.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출장준비를 히고온걸 봐서 어딜 가는것 같더구나.》

《아니, 그제 정말이에요요?》

할머니쪽으로 몸을 비틀며 핵 돌아선 쏘냐의

쌍까풀진 속눈썹이 바르르 켜다.

《몇시차루... 어디로 간다구 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난 또... 어디로 간다는건 물어 안봤지. 아홉시차를 탄다구 하는걸 봐서 모스크바행밖에 더있겠니.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 위짜가 학위논문때문에 끝내 떠나갔단 말인가. 어제저녁에 그만큼 말했는데... 아, 어쩌면...)

쏘냐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8시 30분... 자동차로 가면 15분... 그러니 역전에서 워포트를 만날 시간이 아직 있다. 이렇게 타산한 쏘냐는 총알처럼 방안에서 뛰어나갔다.

《애야...》

《할머니, 역전에 나갈래...》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탕, 타당》 하고 닫기는 현관문소리가 삼켜버리고말았다.

...쏘냐가 홈에 들어섰을 때는 렬차가 서서히 움직이고있었다.

네거리에서 교통안전원에 의해 지체된것이 결국 이렇게 되고말았다.

쏘냐는 렬차를 향해 힘껏 내달리었다.

그러나 워포트를 태운 모스크바행렬차는 쏘냐와 달리기경주라도 하듯이 점점 속도를 높고있었다.

《워-또-르- !》

워포트를 찾는 쏘냐의 애타는 부르짖음이 어둡속으로 사라져가는 렬차의 마지막 꼬리에 부딪쳐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다음 맥빠진 메아리가 되어 아득한 공간에 숨배이고만다.

쏘냐는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고싶었으나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옮겨놓으며 홈에서 나왔다.

《모스크워치》가 서있는곳까지 가까스로 걸어온 쏘냐는 앞 차체에 맥없이 몸을 기댔다.

밤이면 동부싸안쪽에서 불어오는 눈바람이 몹시 불군 하는 예니셰이강의 안개를 몰아와 이 도시의 거리와 골목들에 습기를 머금은 눅눅한 찬날씨를 지긋게 펼쳐놓는다.

기후도를 보아도 이 지대에서 생겨난 찬전선은 서부씨비리저지는 물론 멀리 우랄산맥너머와 조선의 북부지방까지 파급되어 그곳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것이였다.

쏘냐는 목깃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느끼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 그래도 쏘냐는 승용차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차체에 기대어 서있었다.

지금 그에게는 살을 에이는듯한 추위보다 자기와의 약속을 훌쩍 꺾버리고 가버린 워포르의 그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참을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렇게 가버리다니... 사람이 어쩌면 그럴수가 있단말인가. 사랑을 짓밟고 가버린것은 용서할수 있어도 이 일만은... 그렇다, 이 일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테다. 공청원의 이름으로, 아니 그보다 쏘베트공민의 신성한 권리와 자격으로 말이 다!

어제저녁 쏘냐는 퇴근하는 길로 워포르를 만나기 위해 그가 교편을 잡고있는 대학으로 갔다.

그것은 며칠전 특별방송으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인솔하시는 당 및 정부대표단이 곧 쏘련을 공식친선방문한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전해진후 그 귀중한 형제나라 손님들이 모스크바로 가시는 도중 자기들의 도시에 들리게 된다는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쏘냐의 머리속에는 하나의 계획이 무르익어갔으며 그 계획을 워포르와 토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때 워포르는 모스크바에서 온 지급전보를 내놓으며 자기는 학위논문공개심의때문에 곧 떠나야 한다는것이였다.

쏘냐도 워포르가 학위논문준비를 위해 얼마나 애를 써왔는가를 잘 알고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은 일생에 단 한번밖에 없는 기회일지도 모르는만큼 학위논문심의를 뒤로 미루는것이 어떠냐는 쏘냐의 제의에 워포르는 좀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대답해버렸다. 이런 그들이 최종적인 결심을 오늘저녁에 토론해보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던것이다.

그 워포르가 쏘냐를 만나지도 않고 가버린것이 다...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는 손녀가 들어서는것도 모르고 피아노를 치고있었다.

이 몇해동안 고혈압병과 로환으로 바깥출입은 커녕 피아노와는 거의나 마주앉지 않던 그였다.

이런 그가 요새는 드문히 피아노를 치군한다.

병마는 쇠잔한 늙은이의 몸에서 마지막 기력마저 깡그리 뽑아가려고 했지만 사람의 정신적앙양의 분발이란 놀랄만한것이어서 그를 끝내 병석에서 일켜세웠던것이다.

의사인 쏘냐도 환자들에게 정신적인자가 병치료에서 노는 역할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왔지만 요즘의 할머니를 놓고 그것의 비상한 견인력에 대해 탄복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쏘냐는 선물을 들고 할머니가 즐겨부르곤하던 씨비리장미에 대한 노래라는것을 인출 알수가 있었다. 1절밖에 없는 그 노래를 쏘냐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다. 누가 지었는지 알수 없으나 쏘냐

는 조선을 해방하는 전투에서 전사한 할아버지가 매우 사랑하던 노래였으며 할머니도 할아버지한테서 배웠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피아노소리가 점차 가라앉기 시작하자 할머니의 입에서는 노래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오고있었다.

삶은 이미 인생의 황혼길에서 시들어져가고있었으나 노래소리만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 생에 대한 끝없는 지향이 융트림하던 그 도도한 흐름을 그대로 담고있었다.

풍만한 성량, 운활하고 부드러운 음색 그리고 저력있고 진폭이 큰 저음은 쇠잔한 늙은이로 보이게 하던 할머니에게 젊음을 되살려주는듯싶었다.

그것은 정말 신비로운 정경이였다.

젖빛안개 흐르는 예비셰이강반에
소담하게 피였구나 씨비리 붉은 장미
탐스런 꽃송이 귀여운 내 사랑아
네 없이 어이 살랴 그 향기 그리워
아, 봇나무 흰숲에 장미노을 불탈 때
먼곳의 님이여 나를 찾아와주렴
그 소원 안고 핀 내 사랑 장미꽃

노래가 끝나자 피아노건반우로 탄력있게 튀어 오르던 할머니의 손이 맥없이 무릎우에 떨어진다. 《할머니...》

《오- 쏘네치가가 왔다. 어서 이리로 오너라.》

쏘냐는 할머니의 무릎앞에 오금을 꺾으며 앉았다.

《그래 워포르를 만나봤냐. 내 그 사람한테 이야길 다 했다. 너를 도와주라구말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저녁에 너한테서 들었 다면서 지금철에 장미꽃을 피우는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겠니. 내 그래서 위짜한테 너의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서 보여주었다.》

《위짜가 편지를 보구 무슨 말을 하지 않던가요?》

《백조대신에 해오라기라는 말이 있는데 꼭 집에서 키운 장미꽃을 드려야 하겠는가구 하더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촉박한것만큼 식물원에서 피운 장미꽃을 가져다가 우선 그날 행사부터 보장해야 한다구 하지 않겠니. 내 그 말에 말 좀 했다. 그분들은 해방된 조선의 첫장미꽃을 피워 쏘냐의 할아버지한테 보내왔는데 씨비리사람들인 우리도 이고장에서 피운 장미꽃을 그 귀중한분들에게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구말이다. 이젠 쏘냐의 할아버지의 소원이자 우리 씨비리사람들모두의 심정이라는걸 알아야 한다. 명심할것은 씨비리사람들한테는 의리를 위해서 목숨도 서슴없이

내델줄 아는 그런 성품이 있다. 이런 황포한 자연을 길들이는 오랜 세월 대를 두고 물려주고 물려받는 유산이며 생활의 철리인것이다. 의리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것이 우리 씨비리땅이란다. 그랬더니 차시간이 다 됐다면서 훌쩍 가버리구말았다. 내 말에서 무슨 노여움이라도 산건 아닌지 모르겠다.》

(백조대신에 해오라기라구?)

웁포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사랑을 고백하던 날 웁פור는 이렇게 말했다. 쏘냐, 난 쏘냐의 말대로 씨비리를 사랑할테야. 광란하는 눈보라, 태질하는듯한 따이가의 세찬 몸부림소리, 눈석이철이면 통트립하는 예니쎄이의 봄시위... 얼마나 장엄한 씨비리의 풍경이요. 그런가하면 푸른잎 설레는 여름철에도 은보라가 날리는듯한 붓나무숲의 그 정취야말로 레위탄의 그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대자연의 훌륭한 화폭이라고 해야 할것이요. 아 씨비리, 쏘베트강토의 자랑인 내 사랑 씨비리...

그때 쏘냐는 조국의 자연을 연구하기 위한 지리학 탐구의 첫걸음은 씨비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대학졸업후 씨비리로 왔다는 웁포르의 그 높은 정신세계에 매혹되어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것이다.

그 웁포르가 씨비리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

그는 씨비리장미꽃 대신 다른 지방의 장미꽃을 가져다가 우리 씨비리땅에 오시게 될 형제의 나라이며 이웃인 조선인민의 귀중한 사절들에게 드릴것을 권고하였다. 그러고보면 그는 우리 씨비리사람들을 너무도 모르고있는것 같다.

대신... 생활에서 대신은 현실도피다. 사랑에선 기만이며 위선이다. 우리는 누구도 자기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인생관의 철리를 엄혹한 대자연의 광란속에서 체득하며 자란 씨비리사람들이다.

눈사태속에 묻히어 삶과 죽음의 한계점에서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치고있을 때에도 자기의 힘과 의지를 믿는데 습관이 되어있고 사나운 맹수와 맞다들어 생사를 판가리하게 되는 그 아슬아슬한 고비에서도 남의 힘을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 한번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려본적도 없으며 원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웁포르, 쏘냐 당신과 함께 씨비리땅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일생 변치 않을것이라고 하던 그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쏘냐는 피줄들이 나무뿌리처럼 돌아나있는 할머니의 두손을 꼭 감싸진 다음 자기의 가슴에 품었다.

《할머니,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키워오신 저 씨비리의 붉은 장미에서 꽃을 피워온 씨비리사람들이 흠모하는 **김일성** 동지께 드려야 해요.》

《오냐, 우리 씨비리의 자랑인 내 손녀 쏘네치 까야.》

×

여러날이 지니갔다.

그동안 쏘냐는 주와 시내의 이름이 있다는 원예전문가들을 다 찾아보았다.

그랬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지금철에 장미꽃을 피우는것이 전혀 불가능할뿐만아니라 그런력사적인 행사에 쓸 훌륭한 꽃을 이런 계절에 그것도 가정에서 피운다는것은 실제상 힘들다는 결론을 주어 쏘냐를 되돌려보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어느 한 원예사는 쏘냐에게 이런 충고를 주는것이였다.

《법칙은 랭혹합니다. 자연도 그 법칙의 무조건적인 종속물이지요. 거기에 길들여져서인지 자연은 야속하리만큼 인간의 의사를 무시하는 자기의 야생적인 객관성에 언제나 절대적인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그와 헤어진 쏘냐는 더는 결음을 옮겨놓을수가 없어 길옆의 공원에 있는 나무결상에 풀썩 주저앉아버리고말았다. 점심때가 지난지 오래되었으나 배고픈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린 쏘냐였다.

그의 손가방안에는 아침에 할머니가 넣어준 카라멜봉지가 있었으나 쏘냐는 입에 넣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지금 그의 머리속에서는 방금전에 원예사가 말하던 《법칙》이요, 《랭혹》이요 하는 단어들이 뱅글뱅글 돌고있었다.

그가 말한것처럼 내가 전혀 불가능한 일을 들고다니는것이 아닐가.

이러다가 빈손으로 그분들을 만나뵈울수 있다는 생각이 쏘냐의 뇌리를 번개불처럼 스쳐지나갔다.

그렇다면 웁포르의 생각을 따르는것이 좋지 않을가. 빈손보다 그 편이 훨씬 나을것이다. 가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담, 씨비리사람답지 않게...

갓 해방된 그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조선의 벗들은 한 평범한 쏘련병사였던 할아버지의 취미까지 헤아려보고 해방된 조선의 첫 장미꽃을 선물로 보내주었는데 우리라고 왜 그렇게 못한단 말인가. 그렇게 못한다면 씨비리의 마음이, 쏘베트의 량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것이다!

쏘냐는 맥놓고 풀썩 주저앉았던 결상에서 용수철마냥 튕겨났다.

그는 코노래를 부르며 집뜨락에 들어섰다.

《마리야 드미뜨리에브나, 그새 편안하셨습니

까?)

《누신가요?...》

열려진 창문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있던 할머니가 쏘냐를 보더니 얼굴에 반가운 웃음을 함뻍 담은 것이었다.

《어이쿠, 쏘피야 안드레예브나가 아니요. 그 먼 길을 오시느라구...》

《호호호...》

쏘냐의 입에서 터져나온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따스한 봄별이 한껏 무르녹아내리는 저멀리 봇나무숲너머로 노래처럼 메아리쳐가고있었다.

《원 녀석두.》

손녀의 룡담을 곧잘 받아주는 할머니였다.

쏘냐는 어느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잠자리》 처녀처럼 할머니한테로 달려가서는 그를 훌쩍 안는 것이었다.

《애야, 오늘은 무슨 방법을 찾지 못했나?》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벼랑끝에서 두 살구멍이 생긴다구 무슨 방법이 서게 되겠지요. 물초롱을 인주세요.》

쏘냐가 앞으로 수그린 물초롱주둥이에서 구슬을 꿰맨듯한 물줄기들이 쭈루룩 쏟아져나온다.

물먹은 화분들에서 금시라도 아지를 뺄칠것만 같은 푸르싱싱한 기운들이 한껏 부풀고있다.

겨울의 엄혹한 추위는 넘겼다고 하지만 아직도 동부싸얀산줄기들의 평정봉에 흰눈이 그대로 덮여있었고 밤마다 호수가녁에 살얼음이 깔리는 이 고장의 추운 날씨에도 화분에서는 새순들이 움터나고있었다. 삶의 활력이란 줄기찬 것이어서 어떤 아지들에는 팔알만한 꽃망울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쏘냐는 장미꽃화분을 가꾸는 할머니의 일손을 곧잘 도와주곤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화분가꾸는 일이 어린 쏘냐의 생활에서 뿔뿔야 뿔수 없는 일과로 의무로 간주되어버렸다. 해마다 무성해지는 화분과 함께 쏘냐도 성장하였다.

조선에서 회생된 할아버지의 유언이 깃들어있으며 할머니의 이룩할수 없었던 소원이 송이마다 간직되어있는 사연 많은 붉은 장미... 이제 우리들의 지성어린 마음인양 활짝 꽃이 피어 씨비리의 향기를 함뻍 풍겨주게 될 쏘조친선의 붉은 장미... 쏘냐의 눈앞에는 그 력사적인 순간이 금방 보일것처럼 방불히 그려졌다.

《할머니, 래일 부식토를 캐러 싸안으로 가려구 해요.》

《그 먼델 어떻게 혼자서 간다구 그러니. 이련 때...》

쏘냐는 허아래소리로 말꼬리를 외우는 할머니의 뒤말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웁포르... 가버린 사람... 그때문에 할머니의 얼

굴에 시름과 걱정이 짙어가고있는 것이다.

그날저녁 자기가 한 말만 듣고갔다면 그렇게까지 웁포르를 원망하지 않을것이라고 쏘냐는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편지까지 보고도 그냥 가버렸다는 사실이 쏘냐를 고민속에 몰아넣었고 웁포르에 대한 원망을 자아내게 했던 것이다.

쏘냐는 할머니를 무슨 말을 해서라도 위로하고 싶었다.

《할머니, 제가 요즘 할아버지의 붉은 장미의 노래 2절을 생각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할머니.》

아닌게아니라 쏘냐는 요새 잠시간이 있을 때마다 노래의 다음절을 생각하느라고 사색을 거듭하고있었다. 어떤 날 밤은 뜬눈으로 새운 때가 있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고있었다. 특히 노래의 후렴부분에 와서 난관에 봉착하고말았다.

시름 읊듯하는 쏘냐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안에 부드러운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강토엔 눈보라 눈사태 쏟아진다

자연의 법칙을 어길수 없다지만

...

여기까지 읽고난 쏘냐는 잠간 숨을 토했후 불룩한 앞가슴우에 두손을 모으기 시작한다.

...

그 누가 피웠을가 철아닌 계절에

울긋불긋 꽃송이 네가 분명 장미더냐

...

《할머니, 어때요? 마감부분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요.》

시름에 잠겼던 할머니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어리기 시작한다.

《글쎄... 내 생각엔 좋은것 같구나. 그런데 뭔가 빠진것 같은 감이 든다. 알맹이가 말이다. 그렇다구 락심할것 없다. 아직 마감구절이 되지 않아 그러겠지.》

그이튿날 쏘냐는 싸안을 향해 자가용 《모스크 위치》를 몰아갔다. 교외를 벗어나 예니세이강기슭을 한옆에 끼고 달리던 승용차는 봇나무, 전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선 수림속의 넓지 않는 길우에 뽕얀 먼지를 일쿠고있었다.

일요일 휴식의 한때 웁포르와 함께 놀러 오곤 하던 정든 길이었다. 겨울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스키를 타던 잊을수 없는곳이었다.

그 환희롭고 사랑에 겨웁던 나날들을 뒤에 남겨두고 자기만이 혼자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

쏘나의 마음은 피롭고 쓸쓸하였다.

길옆의 수림속에서 자기를 짝잡 놀래우면서 나타나곤하던 워프르의 그 다정한 모습이 불쑥 나 올것만 같아 차창의 좌우를 저도 몰래 살피곤하는 쏘나였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새움처럼 가슴속에서 돌아나는 워프르... 사랑이란 이다지도 모진것인가.

쏘나가 워프르를 처음 알게 된것이 이 길에서였고 그의 사랑의 고백을 고스란히 가슴에 받아들인것도 이 길과 잊닿아있는 스키장이었다.

대학시절에 스키선수였던 쏘나가 시병원스키선수로 처음 나타난것이 4년전 겨울이었다.

그때 쏘나는 주에서 여러해동안 선수권을 보유하고있던 이전의 선수를 압도적인 우세로 보기 좋게 물리치고 단연 금메달시상대에 올랐던것이다.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미모의 처녀선수에게 열광적인 축하를 보내주었다. 선망의 눈길들이 쏘나를 향해 집중되었다. 총각들은 공연히 그의 주위를 오락가락하였다. 처녀의 도고한 아름다움과 깔끔한 눈초리가 그 어떤 총각에게도 말 건넨 틈을 주지 않았다.

《가시처럼 독하군.》

《매력은 거기에 있는거야.》

쏘나는 총각들의 희떠운 소리에 귀도 기울이지 않은채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그가 어느 숲속의 나무그루터기에 걸터 눈무지속에서 허우적거리고있을 때였다. 웬 손이 그를 잡아일으켜세우는것이였다.

쏘나는 그 고마운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고 얼굴을 들었다.

《동무, 축하하오. 스키를 잘 타던데.》

쏘나는 그가 땅크병모자와 같은 스키모를 벗었을때야 자기 또래의 젊은 청년이라는것을 알수가 있었다.

창피하였고 얼굴이 달아올라 그를 다시 바라볼수가 없었다. 쏘나는 고개를 꼭 수그렸다.

《난 워프르라고 하오, 동문 이름이 뭐요.》

쏘나는 옷에 묻은 눈도 채 털지 못한채 청년을 피해 달아났다.

다음해 겨울, 쏘나는 스키장에서 그 청년의 대답한 도약과 미끈한 공중자세, 날렵한 경기숨씨에 홀딱 반해버리고말았다. 청년은 쏘나의 경기출현이 끝나가자 제일 먼저 찾아와 축하해주는것이였다.

그들은 그해 겨울에도 남녀스키선수권보유자로 되였다. 그 다음해에도 물론...

스키장에서 맺어진 그들의 우정은 스키의 속도처럼 사랑의 열매를 무르익혀갔다.

이제 그 열매의 달콤한 맛을 맛보게 될 날이

눈앞에 박두한 그들이였다...

끝없이 밀려들던 희열의 물결은 때아닌곳에서 나타난 승용차의 경적소리에 부딪쳐 산산조각이 되고말았다.

쏘나는 황황히 제동기를 밟았다.

짜르륵!... 다이아가 땅에 할퀴우는 소리가 귀따갑게 들려왔다.

《동무, 정신있소,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 정신을 어데다 동냥보냈는가말이요? 허참, 하마트면 큰 일 날뻔했군.》

아닌게아니라 두 자동차는 이마뺨을 거의나 맞대고있었다. 쏘나는 차창밖에서 소리치는 사나이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어마나!... 《자연》이요, 《법칙》이요 하면서 자기의 유식을 뽐내던 그 원예사가 분명했다.

상대방도 쏘나를 알아봤는지 전보다 껍 부드럽게 말을 한다.

《허허, 난 또 누구라구. 쏘나동무가 아니요. 이렇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쏘나는 대답하기 싫었다. 어서 길을 비켜주으면 하는 생각만이 간절할뿐이였다.

《마침 잘 만났습니다. 내 그렇지 않아도 쏘나동무를 찾아갈려구 하던 참이였습니다. 혹시 부식토를 캐러 가는 길이 아닙니까? 저... 그 길이라면 차를 돌리십시오. 내 자동차에 동무네 집에 가져갈 부식토를 한짐 잘되게 실었으니까요.》

《...?》

쏘나는 그 순간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의 그럴듯한 《리론》으로 유식한 충고를 들이대던 사람이 부식토를 가지고간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기때문이다.

쏘나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많이 욱하였을것입니다. 난 쏘나동무가 간 다음 자신의 행동을 두고 얼마나 피로와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짧았지요.》

그는 열린채로 있는 쏘나의 승용차문을 꼭 닫은 다음 해빛을 받아 쪼프린 두눈을 습벅거리며 길옆으로 물러서는것이였다.

《좀 걸을가요.》 그들은 해묵은 부리얀초들이 길길이 자란 숲속길에 접어들었다.

《동무가 말한것처럼 우리가 씨비리땅에서 장미꽃을 피워 **김일성**동지께 삼가 올리는것이 어떻게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욕망이라고만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씨비리사람들의 모두의 마음이며 진정인것입니다. 난 쏘나동무를 통해 새롭게 발전하는 조조친선의 래일을 보는것이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쏘나동무, 차를 돌리십시오. 난 벌써 과학원 씨비리분원으로 갈 비행기표를 예약해놓았습니다. 그곳에 나의 가까운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원예학분야에서 권위있는 학자들이지요. 쏘냐동무, 그들의 방조를 받으시다. 적극 도와줄것입니다. 래일 저와 함께 떠나지 않겠습니까?》

《동지…》

쏘냐는 다음 말을 잇델수가 없었다. 그의 두볼로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리고있었다.

《허허, 감사하오. 알렉산드르라고 불러주시오.》

《싸샤, 당신은 정말 좋은분이였군요.》

쏘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친숙한 사람들 사이에만 찾게 되는 그의 애칭을 다정히 불러버렸다.

쏘냐는 싸샤의 손목을 덥석 부여잡았다. 그다음엔 목을…

처녀의 열광적인 입맞춤과 뜨거운 눈물을 랑볼로 느끼며 원예사는 몸둘바를 몰라한다. 당황한 표정이 어린 그의 얼굴에 티없이 소탈한 웃음이 어줍게 내뿜고있었다. 손아래 처녀의 칭찬에도 얼굴을 붉히는 사람…

쏘냐는 위선과 거짓의 그늘이라고는 한점도 찾아볼수 없는 그의 푸른 눈동자에 비친 소탈한 웃음에서 쏘베트사람들의 성실한 량심을 읽을수가 있었다. 그에게는 이 금발의 중년사나이가 오랜 지기로 느껴졌고 그의 앞에 속마음까지 털어놓고 싶은 친근감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쏘냐는 그와 함께 오래도록 이 숲속길을 거닐고싶었다.

침침하던 수림속에 갑자기 천만가락의 빛줄기가 비쳐든다. 그러자 이쪽의 천나무숲에서는 싱그러운 송진내가 배인 푸르싱싱한 빛을 내뿜기 시작한다. 그 반대편의 붓나무수림은 뽕안 은빛이 서리어 숲의 정취를 한결 부드럽게 해준다.

《쏘냐, 이제 되돌아갑시다.》

《이 정신바, 오늘은 기쁜김에 마음의 탕개가 다 풀린것 같애요.》

쏘냐의 얼굴에 온갖 시름을 말끔히 털어버린 무렵없는 웃음이 숲의 정서에 실려 고요히 물결쳐가고있었다.

승용차있는데로 되돌아온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동차의 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

쏘냐와 싸샤를 태운 비행기가 리륙의 활주로에 나선것은 다음날 오전이었다.

기수를 높이 쳐든 비행기는 끝간데 없이 넓은 창공을 향해 솟구쳐오르고있었다.

려객실창문으로 구름떼들이 휙휙 날아 지나간다.

쏘냐는 구명환처럼 관 시창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의 눈아래로 광활한 씨비리의 강토가 펼쳐져있었다.

그 끝과 시작이 어텐지 알수 없는 따이가와 신생대제4기의 빙하흔적들인 호수들 그리고 대륙의 한끝에서 한끝으로 흘러 장장 수십만리만에 달하는 강토를 적시며 흘러가는 예니세이, 오비강의 흐름…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쏘베트조국은 산야도 강도 많은 무변광대한 나라라는 생각이 새삼스러워진다.

그럴수록 쏘냐에게는 내 나라, 내 인민의 근면하고 성실한 마음과 용맹한 기상이 줄기찬 이 강토우에 **김일성**동지를 모시게 된다는 남다른 감격이 더더욱 소중해졌다.

쏘냐는 옆에 앉은 원예사쪽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조는듯이 눈을 감고있는 사람, 아직은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은 이 사람한테서 쏘냐가 눈시울을 적시며 그토록 공감하는것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더 잘 모시고싶어하는 쏘베트인민의 꾸밈없는 감정을 뜨겁게 느꼈기때문이었다.

생각에서 깨어난 쏘냐는 등뒤에서 들려오는 웅성웅성하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정말 조선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쪽으로 얼굴을 돌린 쏘냐는 체육선수인듯한 청년의 주위에 사람들이 귀기울고있는것을 볼수가 있었다.

삼시에 온 비행기안의 눈길들이 그들에게로 쏠리였다.

《우리가 친선경기를 하기 위해 조선에 갔을 때 그곳은 봄이였습니다. 살구꽃, 벚꽃이 구름처럼 피여있는 모란봉의 풍치에 심취된채 해방탑을 에돌아 대동강유보도를 거닐고나니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생각도 다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찬탄의 목소리들이 튀겨나온다.

《…외국의 한 자본가는 조선의 금강산을 구경하고나서 이렇게 한탄을 했답니다. <내 이 세상에 태어나 복이란 복은 다 누리며 살아왔지만 조선의 금강산을 보고나니 이 땅에서 나서자라지 못함이 인생에 다시없는 한이 될줄을 미처 몰랐구나.>라고 말입니다.》

《허허… 그 사람이 조선의 금강산을 보고 얼이 빠진 모양이군.》

《얼이 빠진 정도가 아니지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지기 나라 생활을 버리고 조선에 와서 살고싶다구까지 했겠습니까? 한번 품을 놓고 가보십시오. 내 말을 믿으려거든말입니다.》

잠잠하던 비행기안은 조선에 대한 즐거운 담소로 활기를 띠고있었다. 쏘냐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조선영화와 화보책을 통해 익혀두었던

잊을수 없는 모습들을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만경대의 봄이며 여름의 송도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조선의 벚들과 밤을 새며 이야기도 나누고싶었다.

그리운 땅, 형제의 나라 조선이여...
비행기는 점점 고도를 낮추었다.

씨비리본원에 도착한 쏘냐와 원예사가 안내되어 간 곳은 널찍한 사무실이었다.

방의 주인인 대머리학자는 원예사를 보더니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두사람이 회포를 나누는 사이 쏘냐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이윽하여 쏘냐는 원예사의 소개로 대머리학자와 인사를 나누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나, 손님까지 모시구 온걸 보니 구경하러 온 사람같지는 않구만.》

《그야 물론, 스제뻘, 좀 도와주게. 지금 우리한테는 장미꽃을 그것도 빠른 시일안으로 훌륭히 피워야 할 긴절한 사정이 있네. 사실 이걸 력사적인 순간과 관련된 문제일세. 자네도 알다싶이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곧 우리 나라를 방문하시지 않나. 그래서 우린 씨비리땅에서 피운 붉은 장미꽃을 그분께 드리자구 하네. 꼭 방조를 주리라구 믿네. 어서 약속을 해주게.》

쏘냐는 대머리학자가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청을 거절하면 어쩔가 하는 조바심때문에 손바닥에 땀까지 났다.

《말 좀 하게. 그래 우리의 청을 들어주겠나 응?》

대머리학자는 그의 말에는 흥미가 있다는듯이 쏘냐쪽으로 얼굴을 돌린다. 그는 쏘냐의 이름과 주소를 물어보더니 대뜸 손을 내미는것이였다.

《난 자네의 청을 듣는것보다 저 처녀가 분명히 가져왔을 40년전의 편지를 보구싶네. 쏘냐동무, 내 말이 틀리지 않는다면그 글을 나한테 좀 보여줄수 없을가.》

《...? !》

《어-응? !》

스제뻘도 놀랐다.

《그렇게 놀랄건 없습니다. 가져왔습니까? 그럼 좀 보여주시오.》

어떻게 된 영문일가?- 저 대머리학자는 편지가 있다는걸 어디서 알았을가? 아무리 생각해도 리해되지 않았다.

《그러지 말구 차라리 동무가 읽는게 더 좋겠소.》

쏘냐는 그의 거듭되는 독촉을 받고서야 손가방

을 열었다.

편지를 펼쳐든 그의 손에서 종이장 모서리가 파들파들 떨고있었다.

《...사랑하는 마샤, 지금 내 머리말에는 장미꽃이 활짝 피여있소. 타는듯한 붉은 꽃잎, 진한 향기... 당신 생각엔 이 꽃을 누가 가져왔을것 같소. 우리 동무들이... 그들은 나와 함께 상륙작전에도 같이 참가했고 농촌에서 지주와 반동놈들을 짓부시는 투쟁도 함께 해온 조선의 동지들이였소. 그들은 나의 손을 잡으며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소. <...씨비리장미였으면 더 좋았을것인데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없으니 량해하여주게. 그렇지만 해방된 조선의 첫 장미꽃이라는 의미에서 자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리라 믿네. 안드루샤, 정말 안됐네. 우리 일을 도와주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잘 돌봐주지 못해서말이네. 안드루샤, 비록 조선의 장미라 하지만 이 꽃을 보면서 예니셰이강변에서 뛰놀던 어린시절이며 안해와 아이들을 생각해주게. 그러면 상처의 아픔도 잊게 될걸세. 이다음 우리한테 자네가 그토록 사랑해온 씨비리의 붉은 장미꽃을 꼭 보여주게...》

그들은 가면서 뜨거운 키스까지 해주었소. 우리 로씨야식으로말ियो. 정말 의리가 깊고 동지적우애심이 높은분들이였소. 그들은 **김일성** 동지의 품에서 자란 조선의 빨찌산들이였소. 지금 우리 쏘련병사들은 그런 훌륭한 전우들을 키우신 **김일성** 장군님을 여간 존경하지 않소. 한 붉은군대병사는 그분께로 날아드는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막는 희생성을 발휘하였던것ियो. 그 병사의 고향도 씨비리라고 하오.

여보, 나는 지금 조선의 장미꽃향기에서 당신과 고향의 모습을 그리며 행복에 겨운 눈물을 흘리고있소...》

쏘냐는 편지를 다 읽은후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그런듯이 앉아있을뿐이다.

《똑... 똑... 똑...》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는 손기척소리가 문쪽에서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가닿은 그곳에서 문소리를 내며 들어선 사람은 워뜨르였다.

《어마나!》

비명이 터져나오려고 하는 순간 쏘냐는 얼결에 입을 막았다. 다행히도 그 소리는 허밀에 놀리우고말았다.

저건 워뜨르다. 우리를 외면하고 가버린 그 워뜨르... 그가 여기에 어떻게 나타났을가...

쏘냐는 그저 놀랄뿐이였다.

《왜들 이렇게 서구만 있습니까? 서로 인사들은 하지 않구. 사람들앞이라구 너무 점잔을 빼는건

아니요?》

대머리학자는 얼떨떨해서 묻더니 쏘냐를 돌아 보았다.

《쏘냐동무, 저 지리학자선생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생억지를 썼는지 아오. 지금철에 장미꽃을 피우는 방법이 없는가고 묻길래 있다고 대답했더니 다짜고짜로 그 강의를 해달라는게 아니겠소. 쏘냐동무, 난 워프르선생한테서 동무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소. 동문 정말 우리 씨비리의 자랑이요. 고맙소. 그런 훌륭한 생각을 해주어서말이요!》

쏘냐는 눈앞이 뿌옇하게 흐려져왔다. 그러나 그는 푹푹히 불수가 있었다. 젊음의 열정과 사랑에 취해 붉어오른 그 워프르의 모습을!

이 순간 쏘냐에게는 늘 보아오던 워프르의 그 윤나는 검은 머리며 해빛에 그슬린듯한 얼굴의 생김새가 동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느낌은 쏘냐에게 워프르에 대한 애정을 한결 더 승화시켜주었던것이다.

(아, 워프르! 나의 사랑, 나의 행복, 귀중한 사람...)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그동안 워프르선생이 강습을 받았기때문에 결렬것이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구 썬사, 이 책을 가져다 참고하게. 전문가라는게 이제 그만큼 오래 했으면 제발로 걸어갈 생각도 좀 해야지.》

《충고해줘서 고맙네. 이제부터 나도 공부를 할 결심이네.》

《결심했다니 나도 기쁘네. 그리구 한가지 알릴것은 워프르선생의 학위논문심사는 우리 씨비리분원에서 하기로 모스크바와 합의를 보았다는것입니다. 자, 그럼 어서 떠나십시오.》

쏘냐는 걸음걸음 벽차지는 흥분을 애써 누르며 씨비리분원을 나섰다.

몸가까이에서 워프르의 숨결소리가 느껴졌다. 그것은 못견디게 기다려지던 순간이었다.

숨막힐듯한 환희로 부풀어오른 쏘냐의 온몸이 워프르의 역센 포옹속에 들었다.

워프르의 뜨거운 숨결에 익어서인지 아니면 저 멀리 숲속에서 불타는 락조의 후광이 비껴서인지 쏘냐의 얼굴에는 장미빛홍조가 질어가고있었다.

《애들아, 무슨 차비가 그리 오래냐. 시간이 없다. 빨리 서둘러라.》

그들은 할머니의 불같은 독촉을 받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 위짜, 이 넥타이를 매세요.》

오색이 평롱한 넥타이다. 어찌보면 초록색같기도 하고 붉은색같기도 하다.

《쏘냐, 그건 결혼식날에 매기로 되어있지 않

소.》

《우리들의 일생에서 결혼식날보다 오늘이 제일 뜻깊은 날로 될거예요. 난 그렇게 믿고있어요. 워프르...》

쏘냐는 발뒤축을 고이고 워프르의 목에 넥타이를 매어준다. 파아란 눈동자에 검은 눈빛이 살풋이 내려덮이고있다.

...발전소로 가는 환영연도와 역전광장은 사람들의 물결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다. 그속을 누비며 쏘냐일행이 탄 승용차가 달려가고있었다.

역전에 가닿은 그들은 특별렬차가 도착할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귀빈실로 들어갔다.

장미꽃이 들어있는 지함이 할머니의 품에 소중히 안겨있다.

그런 할머니를 보는 쏘냐의 온몸으로는 때없이 느껴지는 짜릿한 흥분의 여파가 전류처럼 퍼져가고있었다.

《이봐요. 위짜.》

쏘냐는 워프르의 손을 자기 가슴우에 얹으며 속삭이듯 말한다.

《...전 사람들로 붐비는 수십리 환영연도를 걸쳐 이 역전광장으로 오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친선의 정과 뉴대가 얼마나 두터운가를 다시한번 느끼게 됐어요. 전 우리의 결혼후 첫 러행의 코스를 조선으로 정했으면 해요. 어때요, 그렇게 하지요.》

워프르는 쏘냐를 향해 머리를 끄덕인다,

특별렬차가 도착하게 될 몇분을 앞두고 쏘냐일행은 역홈으로 나갔다.

쏘냐의 품에는 송이마다 향기를 그윽히 담고된 씨비리의 붉은 장미꽃이 아름이 비글게 안져있었다.

《장미꽃이다!》

누군가 웨치는 소리에 역홈은 슬렁대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와-하고 그들의 주위를 에워싸고있다. 때아닌 철에 장미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의 기쁨은 환영일색으로 단장된 역홈을 끝없는 감격에 잠기게 한다.

《어데서 피웠을가?》

《모스크바가 아니면 레닌그라드식물원에서 가져왔겠지.》

《아니예요. 여러분, 이 꽃은 여기 우리 씨비리 땅에서 피운 장미꽃이에요.》

쏘냐의 쟁쟁한 목소리가 사림들의 머리우에 탁트인 공간으로 퍼져가고있었다.

《아- 씨비리의 붉은 장미다!》

《우리고장의 장미꽃이다!》

환성은 줄줄이 잇닿은 사람들의 물결속으로 메아리치듯이 퍼져갔다.

《정말 놀라운 일이요. 예르마크장군도 씨비리

땅에 오늘과 같은 이런 경사야 가져다주지 못했지요.》

《봉-》

이때 봇나무수림너머 저쪽에서 특별렬차의 기적소리가 기운차게 들려왔다.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한다.

《난 때아닌 철에 핀 저 장미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 씨비리땅에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이 훌륭하게 만발한 쏘조친선의 새 철기를 안고 오신다고말입니다.》

쏘조친선의 새 철기!

쏘나는 옆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을 잡을수가 있었다. 그것은 번개와도 같은 령감이었다.

쏘나의 입에서는 그가 것처럼 고심해오던 노래의 마감구절이 실토리처럼 슬슬 풀려나왔다.

...

아, 맺은 정 영원토록 붉게붉게 피라고
친선의 향기를 가득 담고 피였구나
새 철기의 선구자 씨비리장미꽃

나는 조선사람이다

김경찬

-나는 조선사람이다

때없이 되새기는 이 마음
왜 그리도 공지로 부풀고
심장은 쇠물처럼 끓어오르는가

바라보면

쇠물노을 비낀 저 구내가
그 옛날 야장간의 풀무소리 고달프던 곳
한줄기 시내물도 크나큰 저수지로 흘러들고
산에 들에 오곡백과 주렁진 내 조국

만나는 사람들 정깊이

출장길에 영웅과 통성하고보면
그도 손바닥만한 땅땸기에 목숨 걸었던
배짱뱅이 소작농
예순에 대학졸업증을 받았다는 아바이
그도 제이름 석자 모르던 까막눈
탄부마을의 대의원
그도 버림받던 굴쟁이...

이 땅에선

그것이 너무도 평범한
나의 이야기
나의 가정
나의 마을
나의 공장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머나먼 외국의 벗들이

산원과 지하철도에
값진 보석과 대리석이 깔리고
20리 날바다우에 솟아난 갑문을 두고
경탄과 의문을 금치 못할 때

오, 가슴가득 차오르는
한없는 공지여
사람도 사회도 천지개벽하는 땅
조선사람이 된 민족적자부심이어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조선사람이란 말조차 할수 없던 우리
하늘을 쳐다보며
남을 쳐다보며
머리숙여 구절하던 민족의 운명이어
너 언제부터 그 언제부터
너의 머리에 자주의 창창한 하늘 펼쳐졌거나

아, 겨레의 삶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위해
력사의 기슭에서 주체의 뜻을 올린
우리 수령님
조선의 한별로 솟아오른
그날의 그 아침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위대한 당이 있어
이 땅에 생을 둔
우리모두의 한사람 한사람
존엄과 긍지높이 시대앞에 서있나니

이 세상 한끝에 간대도
나는 뗏뗏이 자부하리
자주의 존엄높은 성세우에
혁명하는 인민으로 긍지높은
나는 조선사람이라고-

시간의 흐름

리 화

아무리 놀라운 기적적인 창조물이라 해도 그것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의 첫 감동은 일생에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것이란말인가.

나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자랑인 지하철도를 리용할 때마다 갓 개통된 지하철도에서 받은 첫 인상들을 감명깊게 돌이켜보곤한다.

잊을수 없는 그날 나는 마치 나도 세계적인 대명화를 감상하기 위하여 지구의 한끝에서 찾아온 사람같이 설레이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며 해방산기슭의 봉화역으로 향했다. 지하철도의 귀중한 모든것을 영원히 기억속에 아로새겨놓으려는듯이 천천히 지상역으로 들어섰다.

출입구에 첫 발을 들여놓자 지하천척의 지심속에서만 호홉할수 있는 돌항기가 쿡 쿡을 찌르고 유순한 굴바람이 전신을 얼싸안았다.

순간 나는 가장 황홀하고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선 사람만이 체험할수 있는 환희에 휩싸여 자기 존재가 한없이 귀중하다는것을 감득하지 않을수 없었다.

발밑에는 유리처럼 연마된 깨돌이 얼근거리고 머리우에는 현란한 장식등이 번쩍이었다. 그것은 얼마나 정성스럽고 고귀한 손길이 여기에 깃들었는가를 가슴 몽클하게 느끼게 했다.

발을 올려놓을 때는 반반한 무쇠관갈더니 스크르 경사지로 미끄러져내려가면서는 계단은 이루며 잠간사이에 수백척 땅속으로 날라다주는 승강기며 넓고 시원한 지하통로 좌우벽에 쌍쌍이 걸린 조명등들은 또 얼마나 정중하고 경건하게 나의 앞길을 비쳐주었던가.

나는 진동차에 몸을 싣고 붉은별역까지 가서 시의 한쪽끝에 사는 군대시절의 옛전우를 만나야 한다는것도 기망게 잊고 지하철역을 돌아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고동소리도 경쾌한 전동차는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게 손님들을 싣고 바삐 떠났지만 나는 고대벽화와는 비할수도 없이 우아한 대리석벽체며 쪽무이그림들에 심취되어 시간가는줄 몰랐다. 지하철역에 내려선 사람들은 모두들 미술박물관의 마당에 들어선듯 경건한 자세로 주위의 모든것을 뜨

거운 눈길로 감상하고있었다.

지하역 높은 천정우에 박힌 창문모양의 넓은 형광등은 별천지를 엿볼수 있는 쪽문이런듯 우리의 마음을 마냥 황홀케 했다. 만약 그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기만 하면 태양이 눈부신 빛을 뿌리는 신비론 푸른 공간이 가없이 펼쳐질것만 같았다.

이런 기적적인 창조물을 억년깊이 잠들었던 땅속에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크나큰 은덕에 목이 메었다.

그때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밑에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현실은 새라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내가 커다란 첫 감동으로 가슴을 울령이며 마주보던 지하철도의 벽체는 10년전이나 다름없이 눈같이 희고 지하역의 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선률은 그전날이나 다름없이 목직하면서도 억제인 벽체에 공명된 우아하고 독특한 음향을 울린다.

나는 여기에게 세계에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명곡들을 감상하며 늘 음악의 세계에 깊이 잠겨 어느결에 전동차를 탔는지 지하통로를 거쳐 계단식승강기에 올랐는지 알지 못했다.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낳는다. 지하철도역을 나설 때는 언제나 고상한 충동으로 가슴이 뛰곤한다.

날과 달이 바뀔수록 지하철도에 정이 들고 애착이 간다. 겨울에는 훈훈하고 여름에는 선선한 더없이 훌륭한 이 창조물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낀다.

눈보라와 비바람, 자연의 희롱을 모르고 도시의 소음과 자동차들의 흐름에 길을 비껴주는 일도 모르는 가장 안전하고도 믿음직하고 리상적인

교통수단을 마련해준 당의 응심깊은 은정을 새록 새록 감득하며 가슴후터워진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귀중한것은 오늘 우리의 지하철도가 수도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리용하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약동하는 수도생활의 소중한 한부분으로 된 점일것이다.

계단식승강기를 타고 뚝뚝 떠내리고 떠오르는 사람들은 이런 분주한 한때조차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는듯 펼쳐든 책장들에 시선을 던지고있는가 하면 쪽무이그림앞에 서있는 기사들인듯한 두 젊은이는 열정적으로 자기들이 새로 만드는 기계를 두고 론쟁을 벌리고있다.

전동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빠르다. 저마다 목적지에 빨리 가닿으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고있는듯싶다.

어떤 사람들은 저아래 지하역으로 들어서는 전동차의 고동소리를 여겨듣고 그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깨돌계단을 달아내리기도 한다.

정녕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졌던것도 망각의 안개속으로 사라지는것은 불가사이한 일이란말인가. 나자신도 이제는 전동차를 기다리는 그 짧은 머무름시간에 조각품들이며 벽화들을 감상하기보다 사람들이 몰려서있는 게시판에 다가서서 방금 내다건 신문을 보다가 전동차가 당도한 다음에야 그자리를 뜨군한다. 물론 모처럼 지방에서 평양에 처음 올라온 사람들이 갈 길을 서두름없이 천천히 지하역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통역원들이 외국손님들을 안내하여 전동차를 타고가며 뜻깊은 이야

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한 대상에서 받아안은 첫인상, 첫 감흥이란 일생에 단 한번밖에 없는것이니 지하철도개통의 첫 나날들에 받은 그런 충격도 다시는 불러낼수 없는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런 현상을 두고 놀랄것도 없으며 실망할것도 없을뿐더러 도리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듯싶다.

우리의 평양은 나날이 새로와지고 아름다워지는 창조의 도시로서 이채롭다. 몇해전에는 정류벽맞은켄 동평양에 탑식주택들이 수풀처럼 일떠선 문수거리가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더니 이제는 모란봉기슭의 북새동에 산악처럼 일어서는 새거리의 위용에 경탄하며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의 미감도 끊임없이 새로와지고 풍부해지며 더 큰 감동에 부닥친다. 다짐길로 활기있게 걸어가는 수도시민들의 당당하고도 자부심이 큰 저 모습을 보라.

저것은 새것우에 새것을, 아름다움우에 아름다움을, 극치우에 극치를 창조하며 부강하고 번영하는 조국의 미래에로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자랑스런 발걸음이다. 세기의 기적을 일상적인 생활로 향유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행진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창조의 흐름을 한순간도 멈춰세울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감동의 파도를 잠재워줄 기슭도 더는 없다.

시간이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창조와 비약의 시간이여! 이 땅우에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념비를 수풀처럼 일떠세우며 끝없이 흐르라!

녀인

(쏘련) 이고리 라뻬

아, 그 녀인은 신비로와라
그 걸음걸이 정말 경쾌하고
그 눈길 정말 가슴 뛰놀게 하거니
정녕 약손이런가, 그 부드러운 손길은

생활은 변화도 많아
그 녀인은 진정 남에 대한 신의가 높고
상심도 많이 안고사는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라

때로는 구슬프게 때로는 방실방실
때로는 엄하게 쳐다보아라
그 미소와 눈물
그 무슨 동정심이 어렸느냐

몸가짐, 목청, 눈매, 숨결-
모두가 살뜰함, 모두가 상냥함
하여 삶은 마치
그 녀인을 만나려는 기다림인듯하여라

(역자 구경서)

영광스러운 대오의 영원한 전사로

한원군

이른아침이다. 8월의 해빛은 부드럽게 대지를 어루만진다. 류달리 상쾌한 기분에 휩싸여 출근길에 오른 나는 정문에 들어섰다. 구내확성기에서 장중한 음악이 흐른다.

백두의 장군별 우리러 따르며
혁명의 먼길을 헤쳐온 우리들
찬란한 향도의 별빛을 안으니
전사는 행복의 눈물로 젖어라

항일의 로혁명투사가 지은 노래였다. 흥안의 그 시절부터 장군님의 전사로 혁명의 한길을 걸어온 항일혁명투사, 감회도 깊고 추억도 많은 항일혁명투사, 그는 감격의 눈물에 젖어 이 노래를 불렀으리라.

구내길을 걸어가노라니 나의 눈앞에는 어느덧 지난해 해불행진때의 일이 떠올랐다.

조국해방 40돐을 맞이하던 지난해 8월 15일, 나는 커다란 감격과 흥분을 안고 해불행진에 참가하였다.

해불대오의 선두에서는 백두의 행군길을 어어온 항일혁명투사들이 나아갔다. 그뒤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들과 위훈세웠던 전사들, 수많은 오늘의 영웅들과 공로자들, 시련을 모르고 자라난 내 동갑 또래의 행복한 새세대들과 붉은넥타이를 날리는 소년단원들, 그야말로 혁명의 세대와 세대가 역세계 이어진 미더운 대오였다.

《유격대행진곡》의 장중한 음악에 맞추어 보무당당히 나아가던 해불의 대하, 불타는 대오가 굽이치며 **김일성**광장에 들어섰을 때다. 대오는 또 다시 일시에 《일심단결》,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글발을 불길로 새겼다.

광장이 떠나갈듯 우렁찬 함성이 우뢰처럼 터져 올랐다. 순간 투사들의 얼굴에도 이슬이 번뜩였다.

백두의 장군별 우리러 《한별 만세!》 소리높이 부르며 혁명의 대오가 결성되던 그때가 추억되어서인가.

감회가 새로와 생각은 깊어진다.

돌이켜보면 조선혁명에서 주체의 시원이 열렸던 《ㄷ.ㄷ》의 해불을 높이 추켜드시여 일체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시고 그 기치아래 혁명전사 한사람한

사람을 손잡아이크시여 혁명대오에 굳게 묶어세워주신 분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며 혁명동지를 위하여 험난한 사선천리도 남먼지 걸으시였고 뚫고나온 적의 소굴로 다시 대오를 되돌려 세워 맞받아나아가신 분도 우리의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품을 떠나서는 조국광복의 래일도, 인간의 참된 가치와 존엄도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심장으로 체득한 항일혁명투사들이기에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나아가지 않았던가. ...

광장엔 격동의 열풍이 휘몰아쳤고 해불은 더 높이 타올랐다. 8월의 밤하늘은 붉은 파도의 선풍으로 휘몰아쳤다.

일제의 100만대군을 마른 쑥대처럼 태워버린 저 불길, 미제침략자들의 《강대성》의 신화도 휴지장처럼 태워버린 불길이지 아니나.

전후에 우리 나라가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을 때 온갖 어중이떠중이 종파나부랭이들의 간계와 음모도 밀뿌리채 태워버린 불길이다. 새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던 미제침략자들도 저 불길로 하여 범접을 못하였다.

혁명의 장장수민리 혈로를 뚫고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 수위에 높이 모시고 굳세게 싸워온 항일혁명투사들,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 투쟁에서 그처럼 견결하고 억척같은 심장들이기에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밝혀주는 향도성 우리러 붉은 해불을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한길을 오늘도 래일도 줄기차게 달려나아가는것이 아닌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는것은 곧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됩니다.》

저 불의 대오속에서는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고 《내 꺼꾸려져 혁명은 더 못하게 된다 한들 한별! 그대의 곁은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리라.》 심장으로 웨치던 김혁동지의 목소리도 울려오는데었다.

생의 마지막순간 《한별 만세!》를 웨치던 차광수동지의 목소리도 쟁쟁히 들려오는데었다.

사령부로 가장하고 련대를 이끌어 천리혈로를 헤쳐가던 잊지 못할 련대장의 모습도 어려왔다.

일제의 교형리들의 교수대에서도 사령부의 안전을 끝까지 교수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정치공작원들의 얼굴도 눈에 삼삼히 밝혀왔다...

해불대오에서 불의 거대한 숲을 바라보는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간고한 시련과 험난한 가시덤불길, 혁명의 불길속을 헤쳐오신 그 장구한 기간에 마련하신 저 해불의 대오, 불의 거대한 대하,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 깨뜨릴수도 변형시킬수도 없는 영원불멸하고 순결무구한 철의 의지와 신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결된 결정체, 위력한 무기이다.

저 불로 하여 우리는 어떤 폭풍우도 뚫고 시련의 언덕을 넘어 오늘에 닿았고 저 불로 하여 주체의 조국 만방에 빛을 뿌리고 저 불로 하여 혁명의 창창한 미래에로 곧바로 줄기차게 달음치고 있지 않는가. 조국은 저 거대한 불의 대하에 떠받들려있는것이리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저 해불의 대오는 오늘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통일단결의 영원한 수호자이시며 계승자이시며 중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목숨바쳐 옹호보위하는것을 자기 삶의 지향으로 최대의 의리로 간직하고있는 80년대의 김혁, 차광수들로 살며 싸우고있는 전사들의 심장에서 타고르고 타고르는 영원불멸할 불길이였다.

아, 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심단결의 대오,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철의 대오에 들어섰는가,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저 대오는 나날이 자라고 자랄것이며 더욱더 거대한 불길로 타번질것이 아닌가!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단결로 시작된 대오, 단결로 전진해온 대오, 단결로 강유력해지는 대오, 불패의 통일단결의 대오는 오늘도 래일도 전진도상에서 그 어떤 원쑤도 불의도 휩쓸어버리며 거대한 흐름으로 영원히 전진할것이다.

그 대오속에서 나는 몇번째 위치에 서있는지는 모른다. 하나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따라가는데 영광이 있고 떨어지면 시대의 락오자로 남는 이 대오에서 내 어찌 한결음인들 헛되이 짊으랴.

출근길의 발걸음도 엄숙해지는 이 아침,

나는 불패의 통일단결의 성스러운 이 대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영원토록 충성다할 불같은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며 항일혁명투사가 지은 노래를 힘차게 따라부른다.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빛나는 향도의 그 별
받드는 마음에 행복이 넘치고
따르는 그 길에 승리가 오리

배 들어올 때는

오재신

배 들어올 때는
정어리잡이배 들어올 때는
집집의 창문이
포구 향해 활짝 열리더라

기다리던 그 순간을 못참아
잔교도 마주 달려나가는듯
부두의 기중기 벨트도 긴팔을 저으며
서둘러 바다가에 나왔더라

일손 바쁜 녀인들의 얼굴은
더 밝아지고
가공반 처녀들의 웃음소리는
더 높아지고

배 들어올 때는
만선타고 들어올 때는
하루밤 헤어졌다 만나도
정은 더 새로와만지는 때

예전에야
물고기 두어두름 싸들고
별방 멀리 친정집을 찾았다던 녀인들이
꼬리 물고 떠나가는 랑동차를 바래우는
그 기쁨이 꽃피는 때

배 들어올 때는
정어리배 들어올 때는
온 나라에 웃음이 더욱 활짝 꽃피는 때
행복한 조국이 키를 솟구는 때

정녕 배 들어올 때는
바다와 물이
마음과 마음들이
더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때
크나큰 당의 사랑이
가슴마다 안겨지는 순간이더라

청년개척자의 수기

김관일

물로부터 섬으로 그리고 또다시 섬으로부터 바다 한가운데로 아득히 뻗어나간 제방길 우에는 자그마한 집이 있다. 그것은 우리 간석지청년돌격대원들의 휴계실이다.

해별에 번쩍거리는 양철지붕을 꿰뚫고 가장자리가 시꺼멓게 그늘은 연통이 포신처럼 불쑥 솟아있었고 두개의 방으로 나뉜 그 집의 밑으로는 깊숙하고 든든한 기초대신에 로라들이 달려있다. 건축구조나 그 양식에 있어서 어디에서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그 휴계실을 가리켜 우리 돌격대의 랑만가들은 《유목민들의 집》이라고 하였다.

넓으나넓은 하늘아래에 푸른 초원이 있는곳이면 그 어디나 떠돌아다니며 방목하는 유목민들의 천막처럼 우리들의 휴계실도 자주 《이사》를 하곤하였던것이다. 하기는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자체가 《트렁크 사업소》라는 하나의 큰 별명으로 불리우고있음에라.

몇개의 군을 차지하고 작전을 벌리는 종합기업소가 그 어떤 큰 대상의 제방을 둘러막은 다음에는 기업소의 현존위치가 필요없게 된다. 그리하여 10년이나 20년후에는 온 기업소를 떠메고 다른곳으로 위치를 옮기는것이다. 그에 비하면 분건설사업소나 직장은 더 자주 옮겨야 하며 특히 전진하는 제방의 최첨단에 위치한 우리 돌격대원들의 휴계실은 더욱더 부단히 자주 옮겨야 하는것이다.

종합기업소가 천천히 움직이는 큰 시계의 시침이라면 분사업소나 직장은 분침이었고 우리 《유목민들의 집》은 초침과도 같다.

때문에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의 애당초 정착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사하는 날은 우리들모두의 공동경사로 되었다. 우리들의 휴계실이 이사한다는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제방이 전진하며 조국의 대지가 넓어진다는것을 의미하니까...

오늘이 바로 이사하는 날이었다.

《류랑생활》에 편리하게 휴계실의 문턱밑에 삐죽이 나온 겉개에 굵은 로프를 건 불도젤이 기총사격소리와도 같은 귀 따가운 동음을 울리며 전진하였다. 그러면 양철지붕우의 연통이 제멋에 겨워 흔들흔들 춤을 추며 《유목민들의 집》은 제방길을 따라 움쉴움쉴 움직이는것이였다. 돌격대원들이 어린애들처럼 환성을 울리며 그뒤를 쫓았다.

미구하여 《새집들이》를 끝낸 휴계실은 언제나와 같이 분주하였다.

특히 물에 나갔던 《후방참모》인 태순아바이가 들어서자 더욱 그러했다.

《허, 세대주의 승낙도 없이 집을 옮겼군.》

아바이는 배낭을 벗어놓고 두손을 썹썹 비비며 난로가로 다가왔다.

우리 돌격대의 년장자인 태순아바이는 나이가 스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등이 굽지 않았을뿐더러 자못 풍채도 좋았다. 누가 그의 나이에 대해 물을라치면 아바이는 진한 평복도억양으로 이렇게 말하곤했다.

《내래 기업소나리와 동갑이야. 알겠나, 그러니 내 나이로 말한다면 올해 스물여덟인셈이지.》

아마 아바이는 그래서 돌격대원이 됐는지도 모른다.

아바이는 돌격대원들을 가리켜 언제나 입버릇처럼 《우리 아이들》이라고 한다. 종합기업소 창고에서 후방물자를 타올 때에도 《우리 아이들을 먹이자구 그러이!》 하는 아바이의 말투는 똥그라미도장을 서너개씩 박은 출고전표보다도 더 효력이 있었고 또 아바이자신이 이미 그에 여러 번씩이나 재미를 보아온터였다.

그뿐이 아니다. 어찌다가 돌격대원들과 함께 물으로 나갈 때면 아바이는 대렬을 맞춰선 《아이》들의 맨뒤에서 끝이 묘하게 구부러진 생당썩물주리를 입에 물고는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여봐란듯이 위엄있게 걸어가는데것이였다. 그럴 때면 자기휘하의 술한 자식들을 거느린듯한 아바이의 모습은 실로 가관이다.

난로에 장작을 집어넣었다. 후끈한 화기가 방안에 퍼지였다.

아바이는 문득 배낭을 끄당겨 풀기 시작하였다.

《참, 배에서 마침 섬으로 들어오는 통신원을 만났더라니 편지들을 가져왔네. 순영이, 옛네... 임자헌텐 두통씩이나 왔어.》

《어야나!...》

순영이가 탄성을 울리며 편지를 받아들였다.

《임잔 통신원한테 한턱 단단히 내야겠어. 우리 돌격대우편물중에 순영이한테 오는 편지가 제일 많거든, 그건 그렇구... 가만있자, 이젠 내가 뜯어야 할 편지로군, 내가 이 집의 좌상이니까.》

아바이가 다른 한 편지봉투를 뜯자 그안에서 사진 한장이 떨어졌다. 사진을 집어들고 보는 아

바이의 눈이 우습강스레 쪼프러졌다.

《허이, 그자식 거 피짜로군!》

어느새 중대원들이 그 사진을 빙 둘러싸더니 곧 환성이 터졌다. 중대장 아들의 첫돌사진인 것이다.

중대장의 입이 벌글벌글해졌다.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던 사진이 순영의 손에 가닿았다. 자기의 편지를 뒤전에 밀어놓은 그는 사진을 높이 쳐들었다.

《동무들, 이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는게 어때요?》

모두들 찬성하였다.

그것은 홍보이며 팔랭이인 순영이만이 할수 있는 생각이다.

방안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려 아버지는 다시 나머지 편지를 나눠주었다. 나는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의 손에 남은 마지막 편지를 주시하였다. 허나 그것은 나에게 온 편지가 아니었다.

나는 벽에 등을 비스듬히 기대며 눈을 감았다.

기다린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허전했다...

8년전, 여기 간석지에 자원하여 나왔던 초기에 만도 나는 학창의 벗들과 고향의 부모들에게 자주 편지를 했었다.

공지와 자랑에 넘친, 그리고 고무와 격려의 열렬한 편지들이 수시로 오고갔다. 그러던것이 차차 뜸해지다가 지금에는 벌써 몇달째 편지를 쓰지도 않았거니와 또 오는 편지도 없었다.

편지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졌던것이다. 그렇다. 할 말이 없어졌다!...

그것에 무엇때문인지는 나 자신도 모른다. 처음에는 뭔가 거창하고 새롭게 느껴지며 끊임없이 새로운 흥분을 불러일으키던 그것이 차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습관이라는것에 의해 그 모든게 지극히 범상하게 여겨지고 마침내는 그 습관의 한계를 벗어날 때 찾아드는 단조로움- 아마 그때문인지도 모른다.

난로안에서 탁탁 삭정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다만 주위세계의 각이한 소음들이 곁결에서처럼 아련풋이 들려올 뿐이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 삭정이 튀는 소리, 바다가 조용히 설레이는 소리...

그 두서없는 소음들이 나에게 지난날에 대한 그 어떤 막연한 회고를 불러냈다.

...3년전 초겨울.

간석지건설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6기 4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시사로청에서는 청년돌격대를 조직하는 사업이 벌어졌다.

연단에서 간석지건설으로 부르는 청년들의 피끓게 하는 호소와 결의토론들, 성스러운 기치인

양 선두에서 나뭇기는 돌격대기발, 역두에서 벌어지는 감격에 삼키우는 작별과 당부의 웨침들, 장엄한 취주악의 환영곡이 모든 시적인 광경은 열정과 랑만에 찬 나의 젊은 심장을 세차게 불태웠다.

나는 서슴없이 탄원해나섰다. 나뿐만이 아닌 수많은 청년들이 자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한 렬차를 타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중앙방송과 신문으로 매일같이 소개되군하던 여기, 영웅개척자들이 일하는 이곳은 모든것이 다 범상치 않은 의미를 띠고있는듯했다. 우리들이 배치를 받고 바로 이 《유목민들의 집》에 들어섰을때만 해도 그러했다.

난로안에 젖은 나무를 밀어넣어 펴는 내굴이 방안에 가득 들어차서 눈을 뜰수가 없었다. 나의 손은 반사적으로 손수건이 있는 호주머니안으로 들어갔다.

내굴이 뽀얀 방안에는 마치 돌미륵을 련상케 하는 나이든직한 아버지가 틀지게 상좌에 앉아있었고 그 좌우에는 그의 신하들인양 돌격대원들이 앉아 휘휘 손을 내저으며 연기를 내쫓고있었다.

그 태고적 불상을 련상케 하는 태순아버이를 위시로 한 그들이 바로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청년돌격대원들이였고 여기- 이 비범한 영웅개척자들은 지금 매운 연기에 개키여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누구요?》

뽀얀 내굴속에서 누군가의 탁한 목소리가 우리들에게로 날아왔다.

《여기에 배치되어왔습니다.》

《아, 그렇소? 내 여기 중대장이요.》

얼굴이 갱뽀한 한 사나이가 일어서며 난로가너머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구 여기 이 아바인 우리 돌격대의 <후방참모>요. 우리들의 고문이기도 하구...》

반룡담조의 엄숙한 소개가 끝나자 아버지가 뜨직뜨직 입을 열었다.

《그래 여기 인상이 어떤가?》

《중습니다.》

그외의 보충적인 대답으로 나는 뜻하지 않았던 재채기를 련방 하였다.

《좋다? 자넨 어디서 왔나?》

《음... 수도에서 왔군. 간석지가 어떤곳인지 알고왔소?》

나는 슬그머니 화가 동하였다.

《알고있습니다. 날바다를 막아 제방을 쌓는다는것과 그렇게 하여 얻어낸 새땅을 기름진 전답으로 만들며... 그리고 또 거기엔 새로운 문화주택들이 생겨나게 될...》

돌연한 웃음소리로 나의 말은 중단되었다. 중대장이 어깨를 들썩거리며 요란한 웃음을 터뜨린 것이었다.

《그래, 그래, 우리가 얻어낸 새땅에 문화주택들이 생겨난단말이지, 하아- 참, 그 친구 죽여주는 데... 그래 그 문화주택을 쓰고살 공상을 했소?》 중대장은 별안간 웃음을 터뜨릴 때와 마찬가지로 급작스레, 그리고 씻은듯이 웃음을 거두었다.

《이것보오, 친구. 그건 오늘이 아니라 래일에 속하는 문제요. 래일엔 그 모든게 다 있겠지만 지금은 파도, 감탕, 장식... 이런것들뿐이요. 알겠소? 그것마저도 우리가 제방을 다 내막은 다음에는 그걸 농장에 넘겨주고 우린 또다시 새로운 파도, 감탕, 장식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야 하오. 말하자면 우린 그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산단말이요. 사실을 말하면 그렇소.》

《알겠습니다!...》

나는 묵묵히 대답하였다.

그날저녁으로 우리들의 이름이 중대명부에 등록되었고 우리의 돌격대생활이 시작되었다. 제손으로 집을 짓고 일체의 생활을 꾸렸으며 때로는 험포한 파도를 대적하여 악전고투를 벌리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힘겨운줄을 몰랐고 오히려 어처럼 어렵고 고생스러운 개척자의 생활에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보람을 느꼈다.

이러한 생활이 3년동안 계속되었다.

여전히 우리는 아득한 수평선을 향해 제방을 쌓아나갔고 그 쌓아나간 제방의 길이만큼 우리 《유목민들의 집》도 전진하였다. 했으나 그처럼 멀리 뻗어나간 제방의 길이도, 우리 휴계실의 수백번에 걸친 이사도 우리의 생활에는 별로 새로운 의미를 보태주지 못하였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들의 제방기슭에는 파도가 밀려들어 처절씩거렸고 우리는 3년간을 매일같이 장식작업이라는 판에 박은 한가지 일을 반복할뿐이었다. 그리고 휴식참이면 그처럼 뻘뻘한 《유목민들의 집》안에서 이제는 늘쌍 보아 귀뒹등의 기미까지도 눈에 익은 뻘뻘한 사람들과 함께 마주앉아 이미 오래전에 판이 난, 역시 뻘뻘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3년간의 생활이 흐른 오늘에 와서 불현듯 나는 생활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매일의 파분한 반복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비로소 나는 지금껏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교대문제를 생각해보았다. 사실 교대기간은 거의 끝나가고있었다. 그런데 생활의 권태를 느끼기 시작한 이것은 얼마나 공교로운 일인

가. 돌격대생활에 대한 뭔가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간다는것은?...

밤이었다. 밖에서는 진눈까비가 쏟아지고있었다.

여기 바다가지대는 내륙지대보다 바람질이 더 세차며 개인날보다도 찌뿌둥한 날이 더 많다. 지금도 무엇하나 가리울데가 없는 제방우로 감사나운 바다바람이 휘갈겨치며 축축한 눈싸락을 우리의 얼굴과 목덜미에 마구 쥐여뿌리는 것이었다. 휴계실 지붕우에서는 밤하늘에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연기가 연통우에로 동정을 엿보듯 슬금슬금 기여올랐다가는 획 불어치는 바람에 기겁하여 허둥지둥 어디론가 쫓겨가고있었다. 그 연통밑의 난로에서는 아직도 따스한 불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을것이다.

제방에 돌을 쌓고있던 나의 눈은 저도 모르게 휴계실쪽으로 향해졌다. 그러다가 순영의 시선과 마주쳤다. 추위에 불이 빨강계 언 순영의 눈이 질책의 빛을머금고 나를 바라보는것처럼 느껴졌다. 아니,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 하지만 부끄러워졌다. 다른 사람들 역시 힘들고 즐기는 마찬가지로 지일것이다. 그리고 저 순영이보다 나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나는 돌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어 다시 장식을 하였다. 마침내 내앞의 돌이 다 없어졌을 때 나는 저쪽에서 돌을 섬겨주고있던 순영을 찾았다.

《똥보동무.》

본의아니게 그의 별명이 허끝에 묻어나왔다.

《예.》 하고 생각없이 돌아서던 순영이가 황급히 자신을 깨달고는 나의 잔등을 쿡 떠박지르며 눈을 흘겼다.

《어야나! 이 동무가 정말...》

나는 허공에 대고 웃음을 터뜨렸다. 옆에서 일하던 돌격대원들이 영문도 모르면서 같이 따라웃었다.

《하하하...》

《그쪽에서 왜들 그래? 무슨 일들이여?》

제방저쪽에서 일하던 돌격대원들이 목을 기웃이 빼들고 뚜릿뚜릿 살피다가 조금후엔 그들도 역시 덩달아 웃고말았다. 그러나 웃음을 불러 일으킨 당자인 순영은 조금도 타내는 기색이 없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이토록 사나운 날씨와 힘겨운 일에 지쳤어도 자기때문에 웃을수 있다는 것이 더 즐거운 모양이다.

순영은 처녀들쪽을 향하여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듯한 웅글은 목소리로 웨쳤다.

《자, 동무들. 노래를 부르자요. 저 동무들의 실없는 웃음보다 우리의 노래가 열미나 더 즐거운가를 보여주자요.》

순영은 돌격대 녀성들속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지휘자이다. 누구도 그가 처녀들속에서 지니고 있는 통솔력을 허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 남자들속에서만은 그를 아름답게, 또한 녀성답게 보는척들이 드물었던것이다.

곧 처녀들속에서는 서로 노래제목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일제히 간석지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처녀들의 맑고 쟁쟁한 목소리가운데서도 《똥보》의 성량이 풍부하고 은은한 《허명》은 멋진 화음을 이루며 독특한 운치를 돋군다.

달빛도 밝은 간석지 이 밤
백리제방 바라보니

순영의 지휘에 의하여 처녀들이 일시에 일을 다물자 남자들이 이어 불렀다.

구슬땀 흘린 청춘의 보람
가슴에 넘쳐나네

그다음에는 합창이었다. 여기엔 태순아바이의 《독배기》목소리도 한몫 끼운다.

말하라 심장이 청춘의 심장이
그 어떤 영예를 아니면 명예를
바라서 예 왔더냐...

노래를 부르고있는 저 순영은 돌격대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공예기업소에서 수예사로 일했다고 한다. 도대체 거짓말같은 일이었다. 저처럼 속이 탁 트이고 별찬 처녀인 그가 섬세하고 정교한 솜씨를 요하는 수예를 전공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허구많은 피이한 일가운데서도 정말로 피이한 일인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그는 내가 지금껏 보아온 도시의 처녀들 일반과 구별되었다.

...휴일이나 명절날, 흐린 날이면 시내의 젊은이들은 목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우리들이 대동강유보도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왁자지껄 걸을 때면 역시 도고한 한패의 처녀들이 이에 무관심한척 하면서 마주 걸어온다. 비취색 줄무늬샤쯔의 한쪽 어깨에다 기타나 록음기를 걸친 몇몇 멋들어진 친구들은 가만있지 않는다. 그러면 처녀들측에게도 몇몇 처녀들이 새초롬하여 돌아보며 깔끔한 목소리로 면박을 준다. 허나 그것은 결국은 남자들무리의 눈에 들기 위해서이다.

가름하고 예쁘장한 얼굴들, 희디흰 살결, 하나

같이 뒤축높은 비닐구도의 윤기도는 광택, 원피스 허리 꼭 졸라맨 날씬한 몸매들...

이번에는 다른 한 처녀가 눈앞으로 다가온다.

동실한 얼굴에 땀이 젖은 이마, 그 이마의 한켠에 차분히 드리운 돌가루묻은 머리카락, 반쯤 걷어올려 드러나보이는 해풍에 그슬린 억센 팔뚝, 실박한 몸집...

돌을 섬기는 순영의 모습이였다.

미치도 성급한 중학생이 미술시간에 되는데로 스케치하다 집어넣게된듯한 다듬어지지 않은 인물화를 련상케 하는 그의 모습, 역시 그와 같은 우리의 생활...

나의 가슴속에서는 또다시 웃음집이 흔들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어딘가 속이 텅 빈 허구쁜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 웃음뒤끝엔 눈곱의 한쪽에 뿌연것이 핑그르르 도는것이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웃음의 근원을 알수 없는것은 더욱더 허구쁜 일이었다.

혼자생각에만 옴하여 걸음을 옮기던 나는 이마에 무엇인가 부딪치는듯한 선풍한 감촉에 정신을 차렸다. 전주대의 못에 걸려 털모자채양의 실밥이 떨어져 달아났다. 실밥 떨어진 채양이 너덜너덜하여 밑으로 내리드리웠다. 손으로 채양을 올리려던 나는 단념하고 말았다. 아무려나 매한가지인것이다. 그까짓 털모자채양이 눈앞을 가리우건말건 무슨 상관이게, 오히려 나에겐 그것이 더 편한지도 몰랐다.

《여, 저 친구 좀 보게, 어디로 가는가...》

《동서남북을 잊어버렸군, 어이 성철이, 그쪽이 아니라 여기야.》

나의 주위에서 중대원들이 법적 떠들며 놀러왔다. 이것을 본 태순아바이가 버럭 어성을 높였다.

《이런 장난군들같으니라구... 그건 일을 하는건가, 놀음놀이를 하는건가.》

《내버려두시우, 아바이. 젊은이들이란게 장난두 좀 더러 해압지요.》

중대장 박봉익이 능청스레 한눈을 찌긔해보이며 대꾸하자 아바이는 귀에다 손을 오그려붙이고 되물었다.

《뭐라구? 임자 이제 뭐라구 했나?》

《뭐 판게 아니라 아바이말씀이 천만번 지당하다고 했지요.》

《예끼, 이 못된 녀석! 임자 이번엔 아들을 봤다만 다음번엔 어렵두 없어.》

아바이가 위협하듯 한여름 자란 참외만큼 싹한 주먹을 내흔들며 으르자 봉익은 짐짓 걱정스럽게 뒤더수기를 긁적거렸다.

《허, 난 그런줄두 모르구 전번에 집에 갔을 때 처한테 아들을 또하나 주문해놓구 왔는데요. 이

제라도 도로 무를가요?)

웃음소리가 높아졌고 일터가 한층 활기를 띠었다.

우리들의 생활은 이러하였다. 거치른 간석지에서 일하는 돌격대원들은 룡담를 걸쭉하게 하는 법을 배운다.

며칠전에는 박봉익이가 중대원들과 함께 휴게실에 들어서자바람으로 벽에 붙어있는 아들의 돌사진에다 대고 쪽소리나게 입을 맞추며 《오, 아직까지는 유일한 박씨가문의 후손이여, 그대가 보고싶어 내 달려왔노라!》하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어찌도 탐스럽게 입을 맞추었던지 처녀들이 생야단을 한적도 있었다.

어떤 땐 엄격하다가도 한번 룡을 시작하면 무섭게 해대는 봉익은 도대체 그의 존재부터도 룡담인지 진담인지 알수 없었다. 때문에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의 멋없는 룡담에 말려들었다가는 불시에 그것이 진담으로 돌변하는바람에 어리둥절해지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밀물시간과 함께 작업을 필한 우리는 새벽녘에 들어와 눈을 붙였다. 그러나 우리는 잠들지 못했다.

날이 밝아서 작업장을 다 돌아보고 맨나중에야 돌아온 중대장이 잠든 우리들을 깨웠던것이다.

《중대 다 모이시오!》

우리들은 잠기가 채 가지지 않은 눈을 비비며 마당에 정렬하였다. 중대장은 우리들을 이끌고 작업장을 향하였다.

드드여 제방의 끝에 이른 그는 제방안쪽의 장식구간을 가리키며 물었다.

《여기 이 구역의 속채움을 누가 했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듯했다. 그자리는 바로 내가 일한 구역이었다.

나는 흘러내린 모자의 채양을 바로잡고 태연해지려했으나 의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건 제가 했습니다.》

《동무가?!... 동무 이 일을 처음 해보오?》

나는 대답을 못했다. 너무도 뻔한것을 물었기 때문이었다. 그 단순한 일은 벌써 3년동안을 매일처럼 반복해온, 눈감고도 할수 있는 일이었다.

중대장의 한껏 조프려진 날카로운 눈길에 못박히듯 나에게 날아와 박혔다.

이 순간의 그는 룡담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담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듯했고 그전의 자기와는 조금도 인연이 없는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돌변하였다. 이런 때의 그의 앞에서는 그 어떤 타협의 미소도, 변명도 필요없다는것을 나는 알고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않고 내가 쌓은 돌을 와락와락 허물기 시작하였다. 비교적 규모있게 정돈된 장식돌을 들어내자 그안에 영성하게 쌓은 속채움돌이 병자의 해부도처럼 낱알이 드러났다. 돌들이 사정없이 무너져내림과 동시에 나를 지탱하고있던 보이지 않는 지반이 무너져내리는듯한 환각에 나는 몸을 떨었다.

《다시 하시오. 몽땅 다 다시해야겠소!》

《그건 내 혼자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내가 한 일이니깐요.》

나는 고집하였다. 그러나 중대장은 듣지 않았다. 하여 내가 한 일을 모두가 달라붙어 다시 하였다. 그 반복작업은 30분도 채 못걸렸으나 나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가혹한 처벌은 없었다. 중대원들모두의 말없는 비난과 함께 나때문에 고생한 그들에 대하여 랑심상 피로움을 당해야 하는 것이다.

일을 끝내고 들어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들 다소 계면쩍은 얼굴로 서로 마주보기를 피하며 덤덤히 앉아있었다.

한참후에 아버이가 주위를 빙 둘러보며 우리들의 기분을 돌려세웠다.

《왜 그리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청해있나. 초상난 집같이... 내 얘기를 하나 할테니 듣게나.》

아버이는 독한 마라초의 연기를 구수하게 들이키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나에겐 아버이의 이야기가 한번 읽고난 책을 보는것처럼 심드렁하였다.

아버이의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다 섬생활에 관한 일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 뻔드러운 얘기들인것이다. 하긴 물에서보다 섬에서 더 생활의 재미를 본 아버지니까...

《옛날 어느 한 섬에 어리숙한 한 농부 부부가 살고있었네.》

(글쎄 그렇겠지.)

《그 남편이란 사내로 말한다면 좀 어리멍청한 위인이었구 안해 역시 그만 못지않은 못난이였네.

얼굴에는 주근깨가 다닥다닥했구 눈은 마치 무엇에 놀랜듯 쾅한 눈이었지만서두 남편에겐 자기 안해만큼 잘난 녀자가 없어보였네. 그도 그럴것이 얼굴 못난데 비해서는 일솜씨가 퍼그나 알뜰한 축이었구 또 인가가 몇채 안되는 그 자그마한 섬에는 다행히두 자기 안해와 대비해볼 녀자가 별루 없었거든... 천하에 맘씨 무던하구 직녀처럼 부지런한 그의 안해는 긴긴 겨울밤이면 베틀에 마주앉아 무명냥이를 하였구 지금처럼 물이 짭

때면 감탕관에 나가 조개잡이도 하곤하였어. 사내가 조개잡이칼을 새끼줄로 허리에 매서 보습처럼 끌면 치마자락을 허리춤에 질끔 동인 녀인이

뒤따라가며 조개를 다래끼에 주어담군하였지, 그러구 바람 잔잔한 날엔 납편이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그럴 때면 너인은 바위코숭이에 낸내나는 썩불을 피워놓고 그림처럼 앉아서는 랑군을 그리는 애절한 노래를 지어부르면서 점도록 기다리곤했네... 그런데 그때까지 그 너인에겐 가없게두태기가 없었어. 사내는 차츰 시뻘뻘해졌네.

어느날 속이 쿵쿵해진 사내는 안해에게 말했다. 《이봐, 아무래두 물에 나가 망건하구 갓을 사와야겠어.》

《그걸 해선 뭘하나요?》

《물의 사람들은 다 그걸 쓴다더군. 그러니 나두 그걸 써야 사람같이 보일게거든.》

평생 납편의 뜻을 거스를줄 모르는 안해는 전마선에 값나갈만한 물건을 가득 싣고 정성스레 길차비를 하여 랑군을 떠나보냈네. 그런데 아빨사 이 일을 어찌하겠나, 망건 사러 물에 잠깐 나갔던 사람이 아주 영 함홍차사가 되어버릴줄이야 어찌 알았겠나...》

《함홍차사라니요? 그럼 돌아오지 못했던말씀인가요?...》

몇몇 성급한축들이 아비이를 둘러싼 환경을 더욱 좁히며 그다음을 재촉하였다.

《그렇다마다... 미상불 얘기라는건 중도에서 그렇게 가로채는게 아니라네. 얘기인즉은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 사람이 물에 나갔은즉 그제 바루 사달이였거던...》

아바이는 문득 이야기를 끊고 우리들을 둘러보았다. 초롱초롱해진 눈들에 호기심이 잔뜩 촉발된 우리들의 표정을 보자 아바이는 흡족한듯 물러나 앉는것이였다.

《자, 이제 그만하구 잡세, 나두 오후엔 물으루 나가야겠은즉 눈을 좀 붙여야 할게 아닌가. 얘기는 래일부터 정식 시작하기루 하구...》

대개 아바이의 이야기란 언제나 이모양이였다. 좌중이 긴장해지도록 흥미를 잔뜩 돋구어놓고는 모르쇠를 하며 딱 잡아떼는것이였다. 아니, 사실은 얘기를 더이상 계속한다면 자기의 거짓말이 탄로날가봐 그러는것이다.

그리하여 아바이는 다음날이면 후방물자 구입 때문에 물으로 나가면서 실은 물자구입보다 기왕지사 꼭지를 때놓은 그 거짓말의 뒤를 계속 잇기 위하여 《창작》을 하려 돌아다니는것이다. 하기에 아바이가 물으로 나가는 날이면 돌격대원들은 이렇게 말하군한다.

《아바이가 또 창작하러 물으로 떠나시는군.》

《오늘은 아마 그 어리석은 농부가 자기 잘못을 깨닫구 돌아오는 장면을 꾸며댈거네.》

《그래, 안해의 발치에 무릎을 꿇구 용서를 빌

거야.》

《천만에, 우리가 바루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때문에 그와는 정 반대루 될걸, 그 아바인 심술이 고약하거든!》

이렇게 온종일 돌아다니며 《창작》을 하고난 아바이는 그날저녁 자기 이야기의 속편인 《제2부》를 엮는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한달이나 두달, 혹은 삼만이고 계속 이어뉘수 있는것이 다.

나는 자리에 누웠다. 자신이 어리석게 느끼였다. 아바이의 멀쩡한 거짓말에 속아넘어간것이였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것이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였다.

매일매일 판에 박은듯한 단조로운 생활속에서 별로 위안거리가 없는 나에게는 그 거짓말에라도 구원을 바라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하여 그 황당한 거짓말에 매달렸다. 거의 눈물나리만큼, 그리고 필사적으로...

며칠후 《유목민들의 집》을 또다시 이사하였다.

불도젤이 기총사격소리와도 같은 귀따가운 동음을 울리며 전진했고 양철지붕우의 연통이 그에 박자를 맞추어 건뎡거렸다.

그 변동과 함께 벽에 붙어있는 중대장 아들의 둘사진도 흔들거렸고 똥똥보 순영이가 집안치장을 위해 화보에서 내려내어 붙인 화려한 장정의 평양사진들과 어설픈 수예품들도 함께 전진하였다.

모든것이 전번의 이동과 똑같이 진행되였다. 다만 새로운것이 있다면 전번보다 제방이 바다한가운데로 쏙 멀리 뻗어나가 이제는 물이 까마득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였다.

저녁이면 마치 은하수가 땅우에 내려앉기라도 한듯 불빛들이 총총한 로동자구의 문화주택들이 바라보이던 물은 그래도 나에게 있어선 두고온 그 모든 친근함과 정다움을 되살려주는 고향의 상징처럼 되어있었다. 아득한 그리움과 추억의 상징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나는 두려운 눈길로 뒤를 돌아보았다.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중대원들은... 그들은 앞을 바라보고있었다. 수평선끝에서 발열하는 태양의 마지막 잔광으로 붉게 물든 얼굴들에 즐거움을 함뱍 담고 앞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들은 물과의 작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눈앞에 바라보이는 쌍바위섬이 더욱 가까와진것을 기뻐하고있었다.

《이젠 저 쌍바위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저 섬까지 제방을 내막으면 우린 더 멀리 앞으로 나가겠지요. 우리의 마음처럼 끝이 없는 저 바다로!...》

똥똥보 순영이가 실박한 앞가슴에 손을 얹으며 레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듯한 웅글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였다. 마치 이 제방과 영원히 일생을 함께 하기라도 할듯...

불현듯 나에게서는 며칠전 돌격대 대렬참모를 만났을 때의 일이 생각되었다. 그때 나는 그에게 돌격대의 교대기간편제를 상기시켰다. 나의 어조에 그 어떤 각별한 뜻을 부여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저 우연히 지나가는 말처럼 비쳤을뿐이다. 중요한것은 내가 돌격대생활에 싫증이 나서 가려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다만 나의 교대시간이 끝났다는것을 암시하면 그뿐인것이다.

그래, 이건 정당한것이다.

나는 까닭없이 어수선히지는 마음을 스스로 달래며 중대원들의 뒤를 따라 휴계실로 들어갔다.

휴계실안에서는 태순아바이가 여전히 난로를 마주하고앉아 며칠전에 시작하였던 그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였고 우리들은 다시금 그 멀쩡한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제 이야기가 어디서 끊어졌더라?... 꼭마단 구경을 한테까지 얘기했지... 옳거니, 그런즉 오늘은 제6부로 되겠군, 어험...》

아바이는 헛기침을 돋구며 꺼칠한 수염터를 내리썰었고 중대원들은 더 바싹 죄어들었다.

《물로로 해매던 그 열빠진 농부는 차차 물의 생활에 유혹되어버리구말았네, 그래 이번엔 서울이 그토록 좋다는데 거기나 한번 가보자 하구 마음먹었지. 그런데 그놈의 서울엔 시궁창의 싸그쟁이들처럼 씨글씨글하기란 참... 별의별 놈팽이들이 다있었지, 가난한 사람들루 해서 부자놈, 행상인, 거간군, 학생, 중단발을 한 이른바 <신녀성>들... 하여튼 눈이래 다 켜해질 지경이었어. 그런데 하루는 기생년에게... 허 이거 안할 소리를 하는군, 어- 내 딸들아, 너희들은 좀 나갔다 들어오너라...》

그러나 처녀들은 귀를 막고 웃으며 안듣는다고 할뿐 나가려 하지 않았다.

《할수 없군, 딱한대루... 여사모사해서 그 허리가 짧은 계집년한테...》

갑자기 문이 열리는바람에 아바이의 이야기는 중단되었다.

중대장 박봉익이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리로 쏠렸다.

《아바이, 나 좀 봅시다.》

어쩐지 중대장의 얼굴색이 좋지 않아보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아바이가 중대장의 뒤를 따라 밖에 나갔다. 한참후에 그들은 다시 들어왔다. 방안을 둘러보는 그들의 시선이 잠시 나에게 머물렀다. 가슴이 불안스럽게 후두둑 뛰었다.

그들이 밖에 나가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였는가를 나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동무들, 한가지 알려줄 일이 있소.》

침중한 눈길로 우리들을 일별하며 중대장은 입을 열었다.

《오래동안 우리와 한가마밥을 먹으며 고락을 같이 해온 함성철동무가 상급의 지시에 의하여 교대기간을 마치고 떠나게 되었소. 뭐 서운해할 건 없소. 동무에겐 다른 새로운 혁명과업이 기다리고있을테니까, 우린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남긴 동무의 수고와 노력에 대하여 잊지 않을거요.》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에게로 향해진 수백쌍의 각이한 표정의 눈길들을 나는 차마 감당해낼수가 없었다.

《어서 집을 싸오. 다르게 생각할건 없소. 교대기간이 다 되었으니까...》

중대장의 마지막 말마디가 창끝처럼 예리하게 나의 가슴에 미쳐왔다.

나는 집을 꾸리지 못했다. 중대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시선을 받으며 집을 싣다는것이 그 어떤 최악처럼 여겨졌다...

그날지녁 중대원들은 나에게 전에없이 친절한 태도들 보이며 될수록 부드럽고 정다운 말을 고르기에 애썼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지금껏 돌격대에 와서 생활하는 기간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어색하고 가장 서먹서먹한 말마디들이었다!...

그렇다. 그들은 나에 대해 좋게 추억할것이다. 돌격대에 와서 별로 두드러지게 일을 잘한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못한것은 없으며, 또한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자신을 희생한 일은 없지만 결코 남에게 해되는 일을 한적도 없었다는것을 마치 고인에 대하여 생각하듯 되도록 좋은 감정을 가지고 상기할것이고... 그다음에는 가뭇없이 잊어버릴것이다. 봄철의 비물에 해묵은 먼지가 씻겨 내리듯.

그리고 나는 간석지에서의 생활에 권태를 느껴서가 아니라 다만 교대기간이 되었기때문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위선적인 논리를 나자신에게 끊임없이 강요해야 할것이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것은 나자신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는 바로 그것이였다...

날씨는 사나와졌다.

밖에서는 미친듯한 바람이 흡사 야생동물들이 떼를 지어 질주하며 울부짖듯 우-우- 기이한 곡성을 터뜨렸다.

그러나 중대원들이 모두 일터로 나간 여기, 텅 빈 휴게실안은 동굴속처럼 잠잠하였다. 벽시계조차 까딱 움직이지 않고 숨을 죽인듯 공기의 흐름이 정지되어있었고 반대로 저기 밖에서는 무엇인가 줄달음치며 이 적막한 휴게실을 지나 끝없이, 끝없이 어디론가 달리고있었다. 나는 몸에 소름이 돋는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손에 무슨 꾸레미를 든 순영이가 들어섰다. 그의 뜻하지 않은 출현이 눈물나도록 반가웠다.

《아직 안떠났군요, 이걸 넣어요. 중대원들이 꾸러주는거예요.》

그는 나의 트렁크를 열고 꾸레미를 그안에 정히 넣었다. 그리고는 나의 옆에 잠자코 나섰다.

《그 털모자를 인주세요.》

《어째서?》

《채양이 떨어진걸 기워야겠어요.》

《필요없소.》

《어서 줘요!》

뭔가 가슴을 찌르는듯한 위압적인 어조였다.

《흥, 그따위나 깎는다구 달라질게 뭐 있소. 아무려나 마찬가지로...》

나는 털모자를 벗어주었다. 너풀거리는 털모자의 채양을 제자라에 도로 가져다붙인 순영은 그게, 마치 수예나 하듯 오묘하게 바늘을 놀리며 꿰매는 그의 손의 거치른 살결에 부지중 시선이 갔다. 이곳 해풍의 세례인것이다.

한쪽을 다 꿰멘 그는 매듭을 묶아매고는 이제는 아득히 멀어진 고향집의 어머니가 늘 그러했듯이 입을 가져다대고 실을 꿸었다.

제방에서 돌을 드다를 때면 역센 장식공이던 그도 지금은 역시 세심하고 부드러운 한 녀성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여기가 싫어요?...》

유심히 바라보는 그의 깊이를 료량할수 눈길... 나는 그 눈길앞에서 거짓말을 할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렇다구 할순 없지만 어쨌든 뭐... 좋을것두 없소.》

《그렇군요... 헌데 참 이상한데요.》

《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으면서두 지금껏 참구견디었을가요?》

《그전까진 그런걸 못느꼈으니까. 그러구 또 사

람에겐 인내성이란게 있지 않소.》

《참 훌륭한 인내성이군요. 나같은 생활에 권태를 느낀 이상은 단 하루도 참기 어려울거예요.》

그런데 동문 그걸 용케 참아왔을뿐아니라 사람들앞에 내색하지도 않았거든요...》

나는 까닭없이 불쾌해졌다. 그가 나의 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있다는 그것으로 하여 느닷없이 분이 치밀어올랐다.

사실 순영이로 말하면 그 역시 교대기간이 끝난것을 나는 알고있었다.

그렇다. 나는 그것에까지도 죄다 화가 치밀었다.

《동무야 무슨 걱정이 있소, 여기 생활이 그렇게 만족인데... 그저 일하구, 웃구, 떠들구 지내면 그게 다지, 청춘의 리상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있소? 두고온 생활에 대한 그 어떤 애착과 미련이라두 있소? 아무런 새로운것도 없는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그 무슨 고민비슷한거라두 해본적이 있소? 사람이란 그게 있어야 정상이란말이요. 흥, 동문 <똥보>라는 그자체가 벌써 비정상이니까 알게 뭐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화김에 그의 인격모욕까지 할 권리가 어디 있는가. 나는 멋지게 고개를 돌렸다. 이상하게도 그에게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다만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을뿐이다. 사실 다른 처녀같으면 나는 벌써 말한 값을 톡톡히 치렀을것이다.

한참후에 그는 의외로 조용히 말했다.

《어디 다 말해봐요.》

나는 저으기 용기를 회복하였다.

《요전날 반복작업을 한 일도 그렇지. 내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일하다 그렇게 된건 사실이요. 하지만 3년동안을 매일같이 그 한가지 일을 반복하느라면 더러 그럴수도 있는거지, 중대장자신은 뭐 안그런것 같소? 일하면서 장난을 치구 익살을 피우는데야 그를 당할 사람이 누가 있소? 그러다간 갑자기 정색해서 눈을 부릅뜨구... 뭇때문에 내가 중대장의 그런 변덕에 춤을 춰야 하오? 왜? 무엇때문에! 어째서!...》

침묵...

으드득, 으드득... 실밥 뜯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랐다. 순영의 손에는 채양이 떨어져나간 털모자가 들려져있었다.

《자, 이걸 써요! 실컷 쓰고 다니세요! 털모자의 채양뒤에서 사람들을 경멸이나 하구, 비웃구... 그래요. 동무말대로 중대장동문 룡담을 좋아하는 사람이예요. 천성적인 익살꾼이구... 천성적인!... 알겠어요?... 중대장동문 집을 멀리 떠나 객지에

서 생활하는 중대원들이 조금두 외로움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남모르게 애를 쓰고 생활에서는 언제나 중대원들과 자기사이에 간격을 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문 그걸 악용하고 있군요. 뒤에서... 내가 그런대두 모르겠는데 동무야 남자가 아니예요...》

《...》

《동무가 나를 인신모욕한것은... 그건 아무렇게나 말해두 좋아요. 하지만 자기의 단란한 가정을 물에 두고 이곳에 온 중대장동무나 태순아바이를 그리구 중대원들을 욕되게 하는건... 참을수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건 참지 못하겠어요. 동문 그저 고스란히 가세요. 아무 말도 말구... 누구도 동물 여기에 붙들어둘 사람은 없어요.》

《가겠소. 물론!...》

별안간 나는 잠에서 깬 사람처럼 밀도끝도 없이 부르짖었다. 그러나 나의 목소리는 맥빠지고 기진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자신없이 울렸다. 마치 나의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 어떤 메아리처럼 아득한 머리에서 어렴풋이 울려왔다.

순영의 눈에 비웃음이 어렸다.

《하긴 동문 막상 가라고 해도 가진 못할거예요.》

《왜?...》

《필요에 따라 교대를 마치고 돌아가는것과 싫증이 나서 달아나는것은 서로 다르니까요. 그런데 동무야 어디 그걸 모를만치 그렇게 바보인가요?》

《내가?...》

또다시 상대방의 속내를 낱알이 들여다보는듯한 그의 큰 눈이 나를 피로했다.

언제나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나를 충고해주고 옹호해주며 줄곧 뒤받쳐주고있던 건전한 사고력과 판단력, 이성과 논리의 그 모든것이 불시에 나에게서 빠져나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하여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논리란 그저 무턱대고 그의 말을 부정하고 반박하고싶은 절망적인 논리, 맹목적인 열정만이 남았다. 그러한 열정으로 하여 나는 소리쳤다.

《천만에!... 어쨌든 난 갈테요.》

《그럼 어디 한번 가보세요.》

《두말하면 잔말이지, 못갈줄 아오. 잘 있소!》

나는 그에게 고함치다싶이 웨치고는 트렁트를 들고 밖을 나섰다. 세찬 바람이 불어치는통에 숨이 킁 막혔다.

젠장, 바람질두!... 하지만 상관이 없다... 길바닥의 눈가루를 뽀얗게 휘말아올리며 불어대는 맞

바람이 오히려 나에게 그 어떤 광적인 열정을 보내주었다.

나는 물으로 뻘은 제방을 따라 걸었다. 광풍에 도전하듯 몸을 잔뜩 앞으로 숙이고는 정신없이 걸었다.

온몸을 달쿠던 흥분과 발작적인 열의가 사라지자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허둥지둥 걸이가는 나의 거동이 어딘가 도주자의 걸음새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아니 내가 무슨 도망이라도 친단말인가.

나는 주춤거렸다. 누구인가의 귀익은 목소리가 귀전을 쳤다.

《동문 막상 가라고 해도 가지는 못할거예요.》

(왜?...)

화가 동한 나는 또다시 내쳐 걸었다. 뉘없이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더는 발자국을 옮길 기운이 진해버렸다.

머리를 젖히고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컴컴한 구름조각들이 하늘에 온통 음산한 빛을 던지며 저쪽 제방쪽으로 달음박질치고있었다. 참, 여기 바다의 자연은 기괴하기도 하다. 어두운 구름장들이 떼를 지어 제방쪽으로 달리고있다. 말그대로 달리고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하늘땅이 온통 맞붙은듯 뽀얀 눈가루가 이는 그 막막한 공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광풍이 모든것을 삼켜버린듯했다.

우리 제방이, 우리 휴게실이 어떻게 됐을까?...

...세찬 바람과 파도에 삼켜버리거나 않을까? 그런데 우리 제방이라니? 우리란건 누군가?...

나의 머리속은 갈피를 잃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걸잡을수 없게 혼돈되어버린 나의 뉘를 바람이 떠밀어주었다.

나는 바람에 몸을 맡겼다. 주먹을 부르쥐고 달렸다.

다만 늦지만 말았으면, 그저 내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이, 우리 제방이 무너지지만 말았으면...

그 우리의 제방우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있었다.

굵직한 돌을 가득 만재한 《자주호》자동차들이 연해연송 달려와 세찬 파도가 휩쓰는 제방우에다 부리웠고 돌격대원들이 파도에 패워나간 구간에다 그 돌을 덧쌓고있었다. 그리고 또 한패의 사람들은 바다우에서 위태롭게 기우뚱거리는 굴착기(부선에 실려있었다)를 제방의 안쪽 기슭에다 비끄러매고있었다.

제방의 모든 건설자들이 떨쳐나와 지기들이 해야 할바를 찾아 뛰여다녔다.

산악같은 파도가 밀려들어 제방을 두들겨대는 요란한 굉음, 그 소리 사이사이로 간간히 들려오는 확성기의 노래소리, 고함소리, 호각소리, 자동차엔진소리로 제방은 북적거렸다.

제방끝으로 달려가려던 나는 누군가의 다급한 웨침소리에 우뚝 멈춰섰다.

《거기 누가 없어? 여기 와서 이걸 좀 당겨!》

나는 곧 그리로 달려갔다.

굴착기를 바줄로 비끄러매여 잡아당기느라고 한데 엉켜하는 사람들속에 무작정 뛰어들었다. 그들속에 태순아바이와 순영이가 끼여있는것을 나는 얼핏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모두가 무엇에 성난듯했고 서슬이 푸르려서 바다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그 누구에 대해서인지 알수 없는 옥지거리를 퍼부어대고 있었다.

《동문 왜 왔어요? 가지 않구...》

뒤를 돌아본 순영이가 나에게 쏘아붙이는 말이였다.

《알게 뭐오, 왜 왔는지... 아마두 태풍이 나를 이리로 날려보냈겠지.》

《자네들은 뭔가? 언제 말다툼할 겨를이 있어. 바줄이나 단단히... 어푸...》

갑자기 파도가 달려들어 덮치는바람에 아바이의 말은 중단되였다. 파도가 무수한 포말을 일으키며 눈앞에서 부서졌다.

《젠장, 또 놓쳐버렸어. 뭇들 하구있는거야?》

《아바이두, 집채같은 파도가 달려드는데 어찌 할수 있나요.》

《그렇게 터진 팔자루처럼 입을 헤 벌리구 있으니까 그렇지, 파도가 달려드는 순간엔 입을 다불구 숨을 딱 죽여야 하는거야.》

《아바인 그렇게 잘 아시면서두 이제 금방 찼절한 물을 잡숫더군요.》

《예끼 이 고약한놈간으니!...》

《이봐요, 저기 또 굉장한 파도가 쳐들어와요.》

앞을 바라보니 과연 저기 잔파도뒤에서 시퍼런 갈기를 추켜들고 달려드는 엄청나게 큰 파도가 보였다.

무서운 속도로 밀려들던 그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송두리채 집어삼킬듯 덮치는 순간엔 우리는 엉겁결에 서로서로를 막 부둥켜안았다. 숨막힐듯한 물벼락이 채찍처럼 세차게 우리의 머리와 어깨에 들썩워졌다. 한동안 눈앞에 온통 뽕얇게 피여오른 물방울들이 서서히 걷혀버렸을 때 나는 나의 가슴에 불현듯 차거운 바다물에도 식지 않은 그 누구인가의 뜨거운 체온과 숨결을 느꼈다.

《어야나! 이게 누구람, 성철동무로군요. 도주자!...》

《뭐라구!...》

나는 분개하여 순영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마냥 즐거운 웃음을 머금고 나를 흘려보고있는 그에게 화를 낸다는것은 부질없는 일이란것을 이내 깨달았다.

손으로 얼굴의 물방울을 훔치고난 그는 고개를 젓히고는 광란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상기된 그의 얼굴에 그 어떤 야생적인 환희 비슷한 기꺼운 표정이 어렸다. 이렇듯 광대한 자연과 세찬 광풍만이 남을수 있는 것처럼 열정적이며 약동의 미가 어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다.

《저 파도가 계속 우리한테 들썩워줬으면 좋겠네. 아까보다도 더 크고, 더 세찬 파도가!...》

...저녁이 되어 바다는 잠든듯 고요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제방우에다 불을 피웠다. 언제나 서투른 연주솜씨에 대하여 통을 줄라치면 돌을 다루느라고 손이 굳어져서 그런다고 미안쩍게 변명하던 1소대의 《키다리》가 기타를 탔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그의 솜씨를 탓하지 않았고 그 서투른 기타곡조에 맞추어 나직이 따라 불렀다.

달빛도 밝은 간석지 이 밤

백리제방 바라보니...

불무지에 둘러앉은 돌격대원들의 모습들이 타오르는 불길에 붉게 물든다. 불무지 저쪽편에서 태순아바이가 언제나와 같이 석잡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이렇게 돼서 그 빌어먹을년에게 속바지까지 알뜰히 벗기우고난 그 열간이는 집으로 돌아왔네. 자기를 뉘우치구 안해와 함께 예전 그대로의 생활을 시작하였어. 그런데 차츰 살림이 펴이구 얼마간 세월이 흐르자 그 사내는 또다시 속이 쿵쿵해났네. 어느날 곰곰히 생각을 하던 그 멍청이는 안해에게 말했어.

<이봐, 아무래두 또 물에 나가 두루마기를 사입어야겠어.>

<그걸 해선 뭘하나요?>

<요새 사람들은 다 그걸 입구 다닌다더군, 나두 그걸 입어야 사람같이 보일게거든...>

평생 남편의 뜻을 거스를줄 모르는 안해는 이번에도 정성스레 남편의 길차비를 하여주고는 떠나는 남편을 고이 바래주었네. 위낙 인물을 타고 못난 그 녀인은 자기에겐 그 사내를 붙들어둘 힘이 없다는걸 알고있었어...

사내는 노를 저었네. 섬을 등뒤에 남겨놓고 물으루 향했네. 안해는 오래도록 바위코숭이에 서서 멀어져가는 전마선을 바래우고있었네. 눈물

한방울 흘리지 앓구 혼연히 바래왔네. 눈물인즉
은 속에서 흐르고있었어. 소리치며 흐르고있었어.
...

얼빠진 사내는 노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네.
그리고 더는 노를 젓지 못했네. 죽어도 눈물을
아니 흘리려구 입술을 개물고있는 안해를 보았네.
고기잡이 나간 자기를 기다리느라구 그 바위코
숭이에서 기나긴 밤을 새우던 안해의 모습과 예
전의 그 쪽내나는 모닥불이 생각났네. 그 기나긴
겨울밤처럼 기다린 안해의 노래소리가 생각났더
라네.

그 열간이는 배머리를 돌렸어. 냇이 빠진채 허
둥지둥 노를 저어 섬으로 되돌아왔네... 그제 어
느 섬인가 하니 바로 우리 제방이 뻗어나가구있
는 저 쌍바위섬일세... 그래서 옛날부터 이르기를
전색소박은 있어두 박색소박이란 없다는 말이
생겨난거라네...》

우리들보다 30년이상 더 살아온, 전세대에 속
하는 태순아바이의 이야기는 이처럼 고리타분한
옛이야기가 태반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고리타분한》아바이의 이야
기를 묵묵히 들었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는
태순아바이가 무엇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
를 깨달았다. 언제 봐도 젊은이들과 함께 있는것
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들앞에서 멋부리기를 좋아
하는 그 아바이는 보지 않는척하면서도 모든것을
죄다 눈여겨보고있었다! ...

노래소리는 사색에 잠기기라도 한듯 속삭이는
듯 은은히 들렸다.

화려한 길도 정다운 집도
뒤에 두고 우리 왔네
비바람 헤치며 수령님 오신
그 자옥 생각했네
...

나의 옆에 앉은 순영이도 조용히 따라불렀다.
다른 처녀들처럼 맑고 청정한 목소리가 아닌 그
의 은은하고 성량이 풍부한 목소리는 확실히 썩
아름다운 편이 아니며 음감도 정확하지 못하다.

하지만 그는 노래를 사랑한다. 그 어느 노래보
다도 간석지의 노래를 더욱 사랑한다.

누군가 불무지를 헤집어놓았다. 사위가 더욱
맑아졌다.

순영이가 말하였다.

《그 털모자를 인죄요.》

나는 공손히 그의 말을 따랐다. 그러나 곧 점
직해졌다. 무슨 말이란 해야 할것 같았다.

《동문 바보요! ...》

나의 입에서 생각지도 않던 말이 불쑥 튀어나
갔다. 그의 큰 눈이 깜지 않게 나를 쏘아보았다.

《그건 나도 알아요. 나야 뭐 바보구, 팔랭이구
그리구 똥보구... 그거야 제게두 험등한걸요. 하
지만 동문 뉘예요!》

목이 짹 잠겼다. 말이 나가지 않았다.

《나말이요? 나... 나야 뭐...》

여느때처럼 입뻘뻘어진 소리도 나가지 않았다.
난생처음으로 나는 이 단순한 똥보앞에서 가슴
이 떨려 자신을 건잡을수가 없었다.

저 아득한 수평선이 통채로 비껴들만치 시원한
두눈, 또한 이 바다와 말하기 위해 천성적으로
타고난듯 성량이 풍부한 목소리를 지닌 이 활랑
의 처녀인 똥보를 나는 진정 사랑하는지도 모른
다는 얼토당토않은 생각이 때아니게 나를 당황케
했다.

《나... 나두 사람이지 뭐긴 뭐야... 나두 30만정
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자구 달려나온 개척자인줄
여적 몰랐소?...》

부지중 순영의 두눈에 눈물이 어렸다.

그러나 그는 웃고있었다. 다함없이, 행복에 겨
워... 고개를 돌려 노을이 붉게 어린 수평선을 바
라보며 그는 속삭였다.

《어쩔 이렇게두 아름다울가! 우리의 생활이...
이 개척지와 우린 아마도 뻘수 없는 연분을 가졌
는가 봐요...》

그래, 우리는 이 거친 간석지와 뻘수 없는 연
분을 가졌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원도, 불밝은 도시도 없
는 이 감사나운 바다, 우리의 땀과 창조적노력이
스며있고 래일이면 더욱 휘황해질 이 수십리 제
방, 때로는 이 땅과 다투고 헤어졌다가도 그 어
떤 불가사의한 힘에 이끌려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성스러운 개척지...

절색소박은 있어두 박색소박이란 없다는 아바
이의 옛이야기에서처럼 비록 끝나지는 못했어도
우리에게는 그지없이 소중한 이 땅과 이 정든 사
람들과 우리는 필생의 연분을 맺었다.

노래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기타가 변명하듯 미
안쩍게 리듬을 쿵쾅거렸다.

래일엔 여기 청춘의 제방

아득히 뻗어가리

금물결 일고 새거리 솟아

웃음꽃 넘치리라

동무여 그날에 그 무엇 바라랴...

《그래, 그렇구 말구! ... 노래란 참말 좋은거
야...》

아바이가 저쪽편에서 감개에 젖은 석잡한 목소리로 웨쳤다.

《여보게들, 이제 날이 새면 또 <새집들이>를 하자구!》

…우리 《유목민들의 집》은 또다시 래일의 광활한 대지를 향하여 전진하였다.

다시금 불도젤이 귀따가운 동음을 울렸고 양철지붕우의 연통이 제멋에 겨워 흔들흔들 춤을 추었다. 그 연통과 함께 벽에 붙어있는 중대장 아들의 돌사진도 건뎡거리며 호합지게 웃는다.

똥똥보 순영이가 화보에서 오려내여 붙인 화려한 장정의 평양사진들과 수예품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이 제방길을 따라 전진하고있었다.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전진하였고 래일도 그와같이 전진할것이다.

그리고 먼 후날 마음좋은 우리 개척자들은 후대들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 알아주기를 원치 않는다.

다만 래일의 이 풍요한 대지우에서 후대들이 새삶을 누릴 때 그리고 그들 젊은이들이 사랑을 속삭이며 이 길을 걸을 때 풍요한 대지는 우리 대신 그들에게 말해주리라.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부드럽고도 강한 심장들이 창조의 기쁨을 누렸으며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고민도 하였고 또한 그들 못지않게 사랑도 하였다는것을, 그러되 그 사랑이란 우리 청년개척자들만이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는것을…

백양나무

장호건

깊이 뿌리내린것은
수려한 숲도
강기슭도 아닌
철의 기지

푸른 아지 솟구쳐 반기는것은
은은한 달빛도
불꽃향기도 아닌
쇠물의 화광

백양이여
너는 이 아침도
불길 세찬 전기로동음에
기쁨을 실었는가

그때는 너 애어리였지
불탄 폐허우에서
내 목메여 흐느끼며
아버이수령님을 뵈옵던 날엔

아, 감격의 그날에
너와 나
못떨어질 인연 맺었지
쇠돌과 한생을 같이하자고…

술한 해를 넘겼구나
지금은
애어리던 네 키도 자라고
내 심장도 강피처럼 억세져

그날의 수령님 믿음
영원한 신념으로 간직한 여기
그 맹세 꽃피워온 위훈의 날들을
세월의 년륜속에 새겨안은 너이기에

내 때없이 찾아와
그날의 그 믿음
다시금 가슴에 되새겨보는
강선의 백양나무여

너 진정 뿌리내린곳은
고요한 호수가도 산기슭도 아닌
그 믿음을 받들어 쇠물처럼 뜨거운
우리 마음속이여라

너 진정 천만잎새 설레며 반기는것은
새들의 지저귌도 새벽이슬도 아닌
그 맹세를 지켜 철의 산악을 쌓아가는
우리 삶의 기쁨이여라

열두번째

김리돈

1

박은심은 코등에 내뿜은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짖어내며 기술혁신작업장에 들어섰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 송준기보다 일찍 나오려고 새벽부터 서둘렀지만 그는 언제 나왔는지 작업대에 고정시킨 바이스를 마주하고 줄칼질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일찍 나왔군요.》

은심은 미안한 마음으로 작업준비를 서둘렀다. 송준기는 힐끔 돌아보며 눈인사만 건넨뿐 군말이 없다. 입이 무거운 그에게서 무슨 살뜰한 말을 바라랴만 만나서 그렇게도 할 이야기가 없을가싶었다. 은심은 그의 말을 들을 때가 좋았다. 극히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 성미여서 입을 열면 들을만한 이야기를 한다는데도 있겠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데 있었다.

그는 남모르게 송준기를 자랑하고있었다. 보통 키에 늘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다니면서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송준기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었지만 은심의 마음도 사로잡았던것이다. 사귄수록 말할수더구 적고 무슨 일을 하나 꾸준하고 성실한 기술자라는것이 험등하게 알렸다.

은심은 자기의 사랑이 언제 움텄는지는 딱히 모르고있었다. 다만 송준기와 함께 특수인발공구를 창안할 때부터라고 추측하고있을따름이었다.

그들이 특수인발공구창안을 함께 시작한것은 올해초 순천비날론공장건설장에 새 규격의 대형 인발강관을 생산하여 보내야 할 과업이 제기되었을무렵이었다. 직장에서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기술합의서가 붙은 《순천제품》때문에 골치를 앓고있었다. 결핍하면 생산된 제품에 곰보가 생기고 판두께의 편차가 났다. 그보다 더 큰 걱정거리는 공구마모가 심한것이였다. 도무지 인발관을 몇대 인발하지 못하고 공구를 교체하여야 했다.

공구를 바꾸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한교대에서 서너번 바꾸고나면 그날 생산은 영낙없이 기운다. 인발공구가 어방없이 딸렸다. 눈코뜰새없이 인발공들에게서 줄곧 공구단련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인발공구의 수명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순천제품》을 원만하게 보장할수 있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자 송준기가 술선 나섰고 뒤따라 인발강관직장을 담당할 기술과 기사인 은심이 같이 할것을 결심하고 나섰던것이였다.

새 인발강관의 기술적요구에 맞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질을 선택하기란 조련치 않았다.

지금까지 열한번이나 실패한 그들이였다. 깨지는가 하면 금이 가고 어떤것들은 마모가 심해서 인발공들의 약을 올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이제부터 열두번째 준비하고 있는것이였다.

《눈에 피발이 선걸 보니 몹시 피곤한 모양이예요.》

파르스름한 머리수건을 쓴 은심은 자못 걱정스러운 표정이였다.

송준기는 히죽이 미소를 지을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일손을 잡았는지 작업대에는 쓸고닦은 부속들이 주련이 놓여있었다.

《좀 쉬세요.》

은심은 그에게서 줄칼을 받아 제법 능숙하게 쓸어냈다. 한발자국 물러선 송준기가 생각에 잠겨 이제는 밤알만해진 실토리를 만지작거리는것을 본 은심은 불현듯 2년전, 공장에 갓 배치받아왔을 때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은심은 일이 끝난후 여유시간만 있으면 도와줄 일감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여 지금의 이 기술혁신작업장으로 오곤하였다. 그러노라니 자연히 꽃밭이나 익히게 된 송준기가 어느날 자재창고에 가서 실바킹을 타다달라고 부탁하는것이였다. 은근히 부탁을 기대했던 은심은 부랴부랴 창고로 달려갔으나 유감스럽게도 자물쇠가 잠겨있었다. 그는 자기의 뜨개질하던 실토리생각이 들자 돌아와서 그것을 꺼내보았다. 훌륭한 실바킹감이였다. 인차 실토리를 들고 기술혁신작업장에 와서 송준기에게 주었다.

송준기는 자재창고에서 타온것인줄 알고 그 실토리를 풀어쓰다가 거기에 꽃혀있는 코바늘을 보고야 비로소 은심의 뜨개질실이라는것을 알아차렸다.

《아니, 이게...!》

송준기의 감동어린 얼굴을 쳐다보는 은심의 이글이글한 눈에는 그윽한 미소가 감돌고있었다. 무작정 기뻐다. 물론 그때에는 가슴에 야릇한 혼적을 남겼을뿐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실토리가 무슨 인연같이만 생각되는것이였다. 어찌보면 송준기도 그 실토리생각을 하고있는지 몰랐다.

《전 어쩐지 오늘 하게 될 열두번째 생산시험이 성공할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은심은 파묵하고 사색적인 송준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건 어째서...?》

송준기는 은심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태까지 실패한 결함을 모두 퇴치한데다가 생산자들도 이제 숙련이 되지 않았어요.》

은심은 그 역시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고있었지만 송준기는 가타부타 입을 열지 않았다.

《이번에도 또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안심찮은 눈길을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꼭...》

은심의 삼시울 진 눈은 굳은 각오가 번득이고 있었다. 열한번이나 실패하는동안 지원과 고무를 많이 받았지만 한편 일부 사람들에게서 별의별 조소와 비난을 받은적도 있었다.

《은심동무, 아무래두 열두번째 시험을 래달로 넘겨야 할것 같소.》

송준기의 진지한 태도에서 반박할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그가 극히 필요한 말밖에 하지 않는 성미라고 할 때 더욱 그랬다.

《일전에 론의한 인발속도를 높이는것때문에 말이에요?》

은심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때 송준기는 공구의 수명은 속도와 정비레관계에 있기때문에 인발속도까지 높여 공구의 창안을 완성하는것이 기술자의 자세라고 하면서 적극 주장하였던것이다.

물론 그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은심에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은심은 기술자로 앞날이 촉망되는 성실한 송준기가 별로 빛이 나게 해놓은 일이 없다고 말밖에 오를 때마다 여간 언짢지 않았다. 사실 그는 남들이 아름다하거나 되지 않는다고 포기한 기술혁신을 성공하도록 성실하게 도와준 일은 많았지만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렇다 하게 해놓은것이 없었다. 얼마전에는 소재가열로에 열교환기를 설치하기 위해 도면을 그리고 기술준비까지 갖추어놓은것을 헛내기 가열공정기사에게 넘겨주었던것이다. 그런 일은 부지기수였다. 그렇기때문에 은심은 이번 특수인발공구차안만은 꼭 빛을 보이게 하자고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 지금도 그는 여러번의 실패로 생산이 떨어진것은 사실이지만 주저해서는 안되며 계속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만일 오늘 열두번째 시험을 하지 않으면 또 뒤흔음이 구구할것이다. 이번에도 실패할것 같으니까 핑계를 대고 그만두었다느니 기술자들이란 시작만 있고 끝이 없다느니 하면서 수군거릴것이 뻔했다.

《초보적인 타산에 의하더라도 속도를 높이면 공구의 수명두 그만큼 늘일수 있단말이요.》

송준기는 벌써 구체적인 타산까지 해본듯하였다.

《공구수명을 늘이는 문제를 일단락지은 다음에 속도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은심은 소리없이 웃었다. 그 역시 타산해보았

던것이다. 오늘 할 열두번째 시험이 자신만만하게 성공할수 있는데 무엇때문에 속도때문에 뒤걸음질치겠는가. 물론 속도까지 높여 공구를 완성시키면 더없이 좋은것이다. 하지만 공구의 수명을 늘이는 한가지문제를 기지고도 몇달동안 애썼는데 속도문제까지 꺼들었다가 언제 결말을 보겠는지 막연하기만한 은심이었다. 그렇기때문에 완성된 공구는 앞으로의 문제이다. 우선 공구의 수명을 늘이는 문제가 풀릴수 있는 확실성을 가지고있는 이상 그것부터 빨리 성사시키면 시킬수록 생산성측면에서나 송준기가 실력있고 성실한 기술자라는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펍 유리할것이다. 속도에 대해서는 다음단계에 해결을 보아야 한다.

은심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야겠다고 속다짐했다.

송준기는 은심의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묵묵히 작업대앞을 오락가락하기만 하는것이였다.

2

그들이 열두번째로 조립한 공구들을 맞들어 세번째 보관대에 올려놓는데 마침 오후교대 인발반장인 허대춘이 털썩거리며 들어왔다.

《수고들 하누만.》

허대춘은 그들의 일손을 거들었다. 키도 목소리도 크고 힘꼴도 쓰는 익살꾼이였다.

《벌써 나오셨어요.》

은심이 미소를 지어보였다.

《오늘부턴 봉창을 해야 하니까... 어때, 열두번째는 자신있나?》

허대춘은 송준기에게 눈길을 보냈다.

《자신있지 않구요.》

이렇게 송준기의 대답을 앞지른 은심은 얼핏 그의 얼굴을 살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자신있다고 한것두 열한번이구 실패한것두 열한번이니 내가 애초에 물어보길 잘못이지...》

허대춘은 사람좋게 껄껄 웃었다.

《반장동문 열두번째 시험을 래달로 넘기자는 청을 대러 왔군요.》

허대춘의 속마음을 넘져짚은 송준기의 짐작은 틀림없었다.

《임자네들 보기가 딱해서 그러네, 월말대목의 실패는 언제나 비난이 짙은 법이니까...》

《알겠습니 다. 그래서 래달에 하기루 했습니 다.》

은심은 송준기의 이 확답이 불만스러웠으나 참았다. 제대로 되자면 창의고안을 함께 하는 조건에서 자기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것이다.

《날 리해해줘서 고맙네. 잘 준비해놓으라구. 래달엔 꼭 성공시키자구.》

이런 말을 남기고 현장으로 나가던 허대춘은 《이 정신 좀 봤나.》 하고 되돌아와서 송준기에게 전보를 내주고 사라졌다.

《합의 안됨. 통지 있을 때까지 기다릴것. 영애.》

은심은 송준기가 읽고있는 전보문을 어깨너머로 넘겨다보았다. 대안중기계종합공장 공무과에서 보낸 전보였다. 인발속도를 높이려면 라선형 경사치차가 몇개 있어야 되겠다고 하더니 그 가공계획이 된것이였다. 은심은 송준기가 측은해졌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자기가 생각했던 바를 은근히 비쳐보리라 생각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젠 시험을 래달로 미룰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내 공무기사장동무를 만나보겠소.》

송준기는 기름묻은 손을 걸레로 닦더니 총총히 사라졌다.

은심은 그를 고운 눈길로 바라보고나서 열두번째로 조립하여 올려놓은 공구틀에 꽂아놓은 빨간 기발을 바라보았다. 공구틀의 내부만 개조하고 외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때문에 결만 보고는 종전공구틀과 분간할수 없었으므로 빨간 기발을 꽂아놓은것이였다.

은심은 세번째 보관대앞으로 다가가서 그앞에 못박힌듯 선채 움직일줄 몰랐다. 차마 생각대로 할수 없었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전화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깜짝 놀란 은심은 누구한테 덜미라도 잡히는듯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등골로 식은땀이 쭉 흐르는것 같았다.

종소리가 다시 울려서야 은심은 간신히 전화기앞으로 다가가서 송수화기를 들었다. 기술부기사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는 공구소비정형을 알아보고나서 래달부터 전국적인 기술자판정이 시작되기때문에 발명권을 받았거나 기술혁신한것, 기술잡지에 론문을 발표했거나 기술서적을 집필한것이 있으면 죄다 적어서 물려보내라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송준기가 일은 많이 했지만 실지 문건에 등록된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걱정했다.

《부기사장동지, 지금 하고있는 특수공구창안이 있지 않습니까.》

은심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하소연했다.

《그야 아직 결과가 없지 않소.》

기술부기사장은 판정을 잘 받으려고 기술혁신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빨리 성사시키라고 고무했다.

정말 송준기는 등록된것이 없었다. 성실성을 등록한다면 단연 손가락에 꼽힐수 있지만 그거야 계산밖이였다.

(그렇다면 오늘 열두번째 시험을 지체없이 진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은심은 자기만이 그를 도울수 있다고 생각하였

다.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알고있는 자기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공무부기사장을 만나러 간 송준기가 이서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공구출고시간이 가까와왔다. 휴가를 받고 친정집에 다녀간 공구출고원을 대신하여 공구를 내주는 일까지 맡아보고있는 은심은 자리를 뜰수 없어 더 안타까웠다.

순간 그에게는 묘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능히 사태를 역전시킬수 있을것 같았다. 그는 오도카니 서서 자기의 생각이 옳은가 음미해보았다. 드디어 은심은 입술을 감쳐물고 공구틀을 들어보았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송준기가 맞들어 올려놓은것이였지만 부뚜막에서 가마를 옮겨놓을 때처럼 힘든줄 몰랐다. 그는 불안스러운 눈길을 이쪽저쪽으로 보내며 떨리는 손으로 빨간 기발을 옮겨꽂아놓았다. 그리고는 널뛰듯하는 가슴을 불안고 공구틀앞을 황황히 물러났다.

3

방금 현장에서 나온 은심은 기술혁신작업장에서 꾸려놓은 복지에 조용히 앉았다. 바야흐로 신록이 짙어가는 나무숲이 햇빛을 받아안고 씩씩이 설레이고있었다.

이른봄에 송준기와 함께 달미산에 올라가서 떠다옮긴 두봉화가 한껏 자라나고있다. 은심은 송준기의 주장대로 오래되는 두봉화를 떠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가 크고 소담한것은 송준기가 떠온것이고 줄기가 가늘고 가냘픈것은 은심이가 떠온 두봉화였다. 은심은 송준기처럼 산판을 돌아보고 큰것만 골라 쓰지 않고 눈앞에 나타나는것을 쓰다나니 그렇게 된것이였다. 후에 큰것을 발견했으나 이미 뜬 나무들을 버리기 아쉬하여 그냥 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다싶이 볼품이 없었다.

래년봄에 다시 큰것으로 골라 떠다심고싶었다.

문득 그날 마주앉아 싸가지고 간 점심을 먹던 일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음달에는 아직 속이 궁곤 눈무지들이 더미더미 누워있던 때라 은심은 제법 주부답게 양지바른 잔디밭을 골라 점심을 차렸었다. 송준기는 어색하게 와서 마주앉았다. 함숙식당 부식물매대에서 먹음직스러운 찢개들을 사가지고 온 은심은 그것들을 그앞에 벌려놓았다.

고추장, 계란, 명태자반...

점심을 잘 준비해가지고 오지 못한 송준기는 얼굴이 벌개서 극히 소극적으로 음식을 집었다.

자기가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한 은심은 서둘러 밥을 먹고 물뜨러 샘물터에 내려갔다. 거기에서 우정 어물거리다가 올라가니 점심을 적지 않게 축낸 송준기는 저만큼 물러나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릇들을 가지러 다시 샘터에 내려가서 자기의 점심팩투경을 연 은심은 이상하게도 가

숨이 찌르르해지면서 굳어진듯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점심팍안에는 차돌같이 새하얀 메추리알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은심은 인심깊던 이날을 마음속에 소중히 품고있었다. 보라빛꽃을 머리에 인 두봉화가가지가 미풍에 흔들거리며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노란 잔디밭으로 자꾸만 은심은 꼬였다.

《여기에 있었구만.》

허대춘이 벅글거리며 다가오는것이였다.

그제야 은심은 특수인발공구가 떠올랐다.

《어떻게 된거야?》

은실이 곁에 앉기가 바쁘게 물었다. 어제 출고한 인발공구가 어떤것인가 알려는것이였다.

《뭘말이에요요?》

반장의 묻는 의도를 환히 꿰뚫고있는 은심은 짐짓 모르는체 아닌보살했지만 가슴이 활랑거리기 시작했다.

《어제 출고한 공구가 어떤거냐?》

허대춘은 바싹 다가들었다.

《글쎄요.》

리지적인 은심의 눈은 언제나 불이 당긴것 같은 허대춘의 거친 행동을 가라앉히는 힘을 가지고있었다.

허대춘은 숨을 죽이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이상하거든.》

한교대에서 서너번 바꾸던 공구를 한번도 바꾸지 않고 생산은 드립다 내밀어서 최고기록을 낸 그가 이상해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혹시 어제 출고한 공구가 열두번째로 개조한 그 특수인발공구가 아니야?》

허대춘은 허우대 큰 장정같지 않게 속삭였다.

은심은 어린애같은 호기심을 품은 그의 얼굴을 보고는 속을 터놓지 않을수 없는듯 외면한채 입을 열었다.

《거야 래달루 넘기자구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종전공구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않아? 우린 어제 은심동무가 내준 공구를 가지고 한번도 바꾸지 않구 최고기록을 냈단말이야, 최고기록을...》

《저두... 그건...》

적지 않게 긴장해있던 은심은 입술이 떨려 말조차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말할수 없는 기쁨으로 차며 가슴이 뒤설레게 된것은 그다음 순간이였다.

《모든단말이지... 그러니 우리 모르게 공구를 창안하는 사람이 있단말이구먼.》

한번 구슬려보려는 허대춘의 말이다.

《송기사동무가 어디 갔는지 모르세요?》

아침에는 나타날줄 알았던 송준기가 아직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대안에 가더래. 때마침 공무과에서 대안에 가는 자동차가 있어서 그걸 타구 갔다더군. 은심동무에게 알려달라 하면서...》

《대안엔 왜요?》

《무슨 치차소리를 하던것 같던데...?》

《안됐으니 오지 말라구 전보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러면 처녀 선이라도 보러 간 모양이구만. 짬이 있을 때...》

은심은 그가 절대로 선보러 갔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지기가 알고있는 송준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였다.

(무슨 일때문에 갔을가?)

마음은 번거로와졌다. 눈앞에 두봉화꽃가지들이 아물거리는것 같았다.

《공구창고에 들어가서 좀 속지원히 보기라두 해야겠어.》

허대춘은 자물쇠를 눈짓하며 담배를 붙여물었다.

기술혁신작업장과 나란히 잇대여있는 공구창고 문을 연 은심은 허대춘을 앞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허대춘은 빨간 기발이 꽂혀있는 공구들을 유심히 살피는것이였다. 그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이것저것 만져보았다. 한참만에 그는 은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혹시 헛갈리게 아니야, 은심이?...》

이번에도 은심은 외면하고 내꾸하지 않았다. 여전히 출고대장만 정리했다. 장부에는 어제 허대춘반장에게 공구를 내준것으로 되었고 오늘 아침까지는 내어주지 않은것으로 정리되어있었다. 자기가 정리한것이였지만 은심은 믿어지지 않았다. 공구단련을 그만큼 반아온 은심이였던것이다. 허대춘은 은심을 아무리 구슬려봤댔자 소용없다는것을 느꼈는지

《좌우간 어제같은 공구만 출고해달라구.》

하고 웃으며 현장쪽으로 스틱스적 나가버렸다.

그제야 본심은 자기가 지금까지 취한 태도가 옳은가 음미해보았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송동무는 어떻게 생각할가? ... 아니 아니야, 그도 기뻐할게야...)

기쁨의 미소가 어린 과묵하고 진중한 송준기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자 은심은 어쩐지 산란해지던 가슴이 후더움에 포근히 젖어버리는것이였다.

4

기다리는 송준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합의가 되지 않으니 통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전보까지 받아보고 무엇때문에 대안에 갔단말인가. 라선형경사치차가공은 한달전에 맞물려야 한다는데 그렇지 못한 조건에서 도대체 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요새는 계획화사업이 더욱더 째여서 그것을 비집고 들어선다는것은 정보로 행진하는 대렬에 끼이는것만큼이나 어려운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무슨 리유라도 있단말인가.)

은심은 뜨개질실타래를 받아들었을 때의 송준기의 눈빛과 두봉화나무를 뜨러 갔을 때 있었던 일들이 새롭게 안겨왔다.

특수공구의 창안이 실패를 거듭할수록 정이 더욱 두터워지고 그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주저하고 싶지 않은 은심이였다.

은심은 아까부터 기술혁신작업장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두봉화를 바라보고있었다.

양지바른 잔디밭, 샘터, 가물거리는 아지랑이...

그때 전화소리가 자지리지게 울렸다.

은심은 얼른 송수화기를 받쳐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대안중기계공장이라고요? 압니다. 새벽에요? 예, 알겠습니다.》

은심은 수화기를 놓는것을 잊고 가슴에 가져다댄채 어쩔바를 모르고 잠시 멍하니 서있었다. 어딘가 되게 맞기는 했으나 너무도 뜻밖이어서 어디를 맞았는지 모를 때처럼 멍했다. 한잠만에야 송준기가 치차직장 기대앞에서 쓰러졌기때문에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새벽에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 깎아놓은 치차들이 없어진것으로 보아 분명 그것들을 지고 걸어 떠난것 같으니 빨리 자동차를 가지고 마주 나가라는 전화가 왔다는 생각이 났다.

순간이 지나서야 몽롱한 안개속에 들어서서 물체처럼 송준기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마나 애쓰고 돌아갔으면 쓰러지기까지 했을가. 그 몸에 치차를 지고 걸어 떠나다니...)

은심은 직장장에게 알려 빨리 자동차를 보내도록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발딱 일어섰다. 그가 황급히 나들문을 열려고 할 때 송준기가 비틀거리며 들어서서는것이였다.

《어마나.》

은심은 영겁결에 놀람과 반가움에 뒤섞인 비명을 질렀다.

치차가 든 배낭을 내려놓는 송준기의 몸은 미역을 감은듯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 그는 금방 쓰러질것만 같았다.

은심은 재빠르게 목직한 배낭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그제야 송준기는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니, 어찌자구...》

은심은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어깨가 빠근한걸...》

송준기는 자기 어깨를 앞뒤로 비틀어보는것이였다. 어쩔바를 모르고 서있던 은심은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손을 가져갔다가 움츠렸다. 그는 알릴락말락 손가락이 떨리는것을 감촉하였다.

《운전사가 급하게 몰아세우는바람에 간다는 말 두 못했는데 그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소?》

송준기는 모자를 벗어 활활 부채질을 했다.

《저...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창백한 그의 얼굴을 보는 은심의 가슴은 아팠

다.

《난 아무렇지도 않소. 자동차를 타고 갔다가 자동차를 타고왔는데...》

하지만 송준기의 몸은 물먹은 토담처럼 무너져 내린듯 맥이 빠져있었다.

《방금 대안중기계공장에서 전화가 왔드랬어요.》

은심은 눈부리가 뜨금하며 이슬방울이 솟아오르는것을 느꼈다.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한 모양이군요.》

송준기는 창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기다렸다가 기차를 타고...》

측은한 생각을 금할수 없는 은심이였다.

《어쩐지 새벽공기를 마시며 걸어보고싶더라만 말이요.》

미소를 머금은 송준기의 태도는 꾸밈이 없는것 같았다.

《언젠가 나무 뜨러 갔을 때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양지바른 잔디밭에 앉아... 그 생생한 기억을...》

송준기의 몸이 점점 숙어지더니 이윽고 출고장부에 귀를 붙이고말았다. 줄음이 그를 쓰러뜨린 것이였다.

드디어 그는 뚫아떨어졌다.

(아, 얼마나 졸음이 오고 피곤했으면...)

은심은 그 피곤과 졸음을 자기가 다 안고싶었다. 길다란 의자우에라도 그를 눕히고싶었다. 잠시도 그의 잠을 방해할수 없었다.

은심은 오도가도 못하고 한옆에 서서 그를 지켜보다가 창문들과 나들문을 모조리 닫고 현장으로 나갔다.

(한잠 푹 잤으면...)

5

(문을 꼭꼭 닫아서 덤지 않을가...?)

이런 생각이 들자 은심은 나들문을 가만히 열고 기술혁신작업장에 들어섰다.

《아니?》

책상에 엎드려 뚫아떨어졌던 송준기가 보이지 않았다.

은심은 의심쩍은 눈길을 이곳저곳으로 보내며 발뼌발뼌 공구창고로 갔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치차배낭을 옆에 놓고 세번째보관대앞에서 공구들을 해체하고있었다. 깎아가지고온 치차를 맞추려는것이였다. 은심이 인기척을 낼가 어쩔가 하고 망설이는데 공구들덮개를 들어올린 그가 깜짝 놀라는것이였다. 자기가 조절한 열두번째 공구들이 아니니 왜 놀라지 않겠는가.

《아니?》

그때를 농칠세라 은심은 그앞으로 걸어갔다.

송준기는 묻는듯 은심을 쳐다보았다.

《성공했어요.》

《성공?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송준기는 영문을 몰라했다.

은심은 될수록 간명하게 열두번째 시험을 성공시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열두번째로 조립한 공구들을 두번째 보관대에 옮기고 두번째 보관대의 종전공구들을 세번째로 옮긴후 거기에 빨간 기발을 옮겨꽂았던 것이다.

《그럼 열두번째로 조립한 공구들을 우정 종전공구들이라고 하면서 내주었던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는 만족감에 도취되어 대답하는 은심의 얼굴엔 맑은 웃음이 함뿍 담겨있다. 송준기는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는 그를 미심쩍은 눈길로 여겨보던 은심은 웃음을 거두고 그루박아 말하였다.

《만일 실패해두 난 어떤 추궁이건 받을 각오를 하고있었는걸요. 송동무가 욕을 한대두말이에요.》

은심에게는 열두번째 시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자랑이 있었다.

《그렇다...?》

송준기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일어서서 보관대를 몇발자국 거닐었다. 가득이나 무거운 입이 다시는 열릴것 같지 않았다.

(왜 그럴가. 그토록 애쓰던것이 성공했는데...?)

정말이지 그것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른다.

돌이켜보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는 한달 아니 일년을 두고 할 걱정을 하며 초조와 불안의 한 초한조를 겨우겨우 넘겨보냈다. 허대춘에게 공구를 출고해줄 때부터 오금이 저려 공구들을 내가는 허대춘을 도와주지도 못했다. 인발공들이 그것을 조립하고 기계를 돌리는 소리가 들리자 은심은 두손으로 귀를 꼭 막고 눈을 감은채 책상에 엎드리고말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인발기앞에 장승처럼 버티고 서있는 허대춘의 모습이 눈에 밟혔고 인발기의 모든 소음이 또렷또렷하게 들려왔다. 은심은 그 모든 초조와 불안을 마음속의 사람을 위하여 참았고 견디어냈다.

어떻게 될것인가 신심을 가지고있었지만 자꾸 마음이 썩여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당장 허대춘이 사납게 눈을 부라리고 들이닥치는것 같았다.

《아니 어찌자는거야 영? 동문 밥먹고 공구하나 제대루 출고하지 못하구 뭘해 도대체...》

와지끈 벼락이 내리는것 같은 그의 욕사발이 정수리에 떨어지는 느낌이였다. 공구를 출고할 때까지만 하여도 그가 이해할것이라는 믿음이 장마철 여우벌처럼 한가닥 위안이 되었으나 조립되어 생산을 시작하고보니 그것마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조마조마한 순간이 지나갔을 때에야 은심은 발뼘발뼘 현장으로 나가보았다. 인발기는

곰살긋게 돌아갔다.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하였다.

그렇게 다섯시간이 지나자 인발공들이 웅성기렸다. 일곱시간이 지난후에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그뒤의 시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모르게 송준기를 도와주었다는 야릇한 기쁨이 가슴을 포근히 감싸안는 것이였다.

은심은 그가 한참만 했던 자기 마음을 알면 아마 모든것을 이해할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벼락같은 욕사발은 허대춘에게서가 아니라 송준기의 입에서 쏟아질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침통하게 울려나왔다.

《은심동무, 우리가 속도를 높일수 있다는 파악이 선 조건에서 눈앞의 성공만 좇는다면 어떻게 되겠소.》

은심에게도 할 말이 있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준기동문 자기를 위해서도 좀 성실해야 할것 같애요.》

《자기를 위해서요...?》

《국가관정을 앞두고 부기사장동지가 준기동문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군요. 문건에 아무런 기술혁신도 등록된것이 없다구 하면서... 등록되어야 꼭 기술자구실을 한다는 법은 없지만 성실성만 가지고는 기술자를 평가할수 없지 않아요.》

은심은 안타까운듯 절절하게 말했다.

성공이 없으면 무엇으로 성실했다고 평가하겠는가.

《그래서 그 공구를 내주었소?》

《...》

은심은 그 물음에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목이 메이는듯해졌다. 그 공구들을 내주게 된 목적을 말해야 하는것인데 어느것이라 꼭 집어 말할수 없었다. 이 순간을 당하여 아리송하기만했다. 송준기의 성실성을 빨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것인가. 그도 주되는 감정이 아니다. 유리한 순간을 리용하여 자신의 산념은 확고히 하기 위해 칭찬을 받아보려 한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다.

한숨 돌리고 힘을 축적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것이 주되는 감정이였지. 아득한 봉우리를 단숨에 힘겹게 뚫는것보다 이를테면 중간휴식을 하면서 쉬엄쉬엄 오르려고 한것이 주되는 감정이였다.

송준기는 낮색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런 송준기앞에서 은심은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는것 같았다.

가슴이 후두둑거렸다.

《은심동무, 내 생각에는 과학자나 기술자나 자기가 취급한 문제에서 가장 완성된것을 획득하기 전에는 그 어떤 중간휴식이란 있을수 없소. 그것이 창조의 연속으로 사고가 집중되고 침전물이 없는 순수한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제낮이나 내려 한다거나 명예에 맞을

들이면 기술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게요.》

송준기의 거치른 음성이 은심의 귀박을 아프게 쳤다.

《은심동무, 가벼운 짐을 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것이 우리 기술자들의 자세이고 립장이라구 생각하오.》

마디마디 가슴치는 심장의 목소리였다. 쯔채로 속대를 내비칠줄 모르는 저 송준기, 지금 마디마다 무게있게 울리는 그 음성이 무엇을 바람으로 하여 모름지기 자기의 의지를 속박하던 불안스러운 모든것을 일시에 허물어버리는것을 은심은 룽감으로 느꼈다. 제판에는 한 목적을 위해 바쳐지는 기술자의 탐구자세는 그 창조물이 완결된 결정체로 되기까지 가는 로정은 부단히 합목적적인 순간순간을 제때에 포착할줄도 알고 적중히 그리고 윤활하게 리용하는것이 가장 현명할뿐 아니라 기술혁신 의도에 적합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여겨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생활은 중간휴식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집요한 방패로 삼으려던 은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있는것이다.

은심은 헤아릴수 없는 송준기의 그 고상한 리념의 높이에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 펍 먼거리에서만 에돌고있었다는것을 가슴아프게 절감하였다.

자책과 뉘우침에 짓눌려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의 눈엔 눈물이 가랑가랑 매달렸다. 두손에 와락 얼굴을 물어버린 은심은 지기야말로 가벼운

짐을 지고 유리한 출로를 찾아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 웅색한 기술자였다.

가벼운 짐을 지면 명예는 인차 얻을수 있다 하지만 기술자의 짐은 언제나 가늠되는 그 무게가 시대앞에 떳떳한 그런것으로 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송준기 그처럼...

은심은 흐트러졌던 몸가짐을 바로잡더니 옷매무시를 손다듬고 고운 자세로 앉는것이였다. 송준기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다. 그 깨끗하고 고결하고 티없이 맑은 송준기의 생신한 녀을 들여다보고 있는 은심은 자기 피로움도 번거롭게 번지기던 슬픔도 일시에 달아나버리는것 같았다. 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불시에 얼굴을 붉혔다. 다시 또 그리고 어느때까지 송준기와 이처럼

오래도록 함께 있고싶어지는 은심이였다. 이 순간의 체험을 그는 이렇게 입속말로 외워보고있었다. 도달하려는 상상봉에 마침내 올라선 인간의 희열을 느끼게 되는 장엄한 그 무엇을 귀중히 안았다고.

이윽고 송준기는 가슴이 답답한듯 창문들을 활 열어제켰다. 5월의 훈풍이 밀려들었다.

《은심동무, 저기 록지에 나가 좀 앉을가...》

은심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 나갔다.

오늘따라 크고 소담한 두봉화나무결에 가냘프게 서있는 두봉화나무가 초라해보였다.

은심은 작은 나무에 기름을 주어 크게 키워야 되겠다고 속다짐했다. 가는 바람이 두봉화가지들을 흔들며 지나갔다.

대양만리 헤쳐가도

리의석

정깊은 그 뉘의 손길인양
물결은 배전을 쓰다듬고
정다운이 찾는 목소린양
배고동소리느 기슭으로 울려가고

무역선이 떠난다고
배웅나온 환영의 물결속에
꽃을 흔드는 처녀의 맑은 목소리에
손저어주시는 어머니의 웃음에
더더욱 깊어지는 생각

이렇게 닳을 올린 무역의 배길
우리 얼마나 멀리 달려왔던가
물결 사나운 대양을 헤가르며
때로 폭양아래 그 몇달을

우리 헤쳐가는 길

아무리 멀고 험해도
조국의 항구에서 시작된 항로엔
처녀의 저 목소리 정답게 울렸고
어머니의 그 웃음 소중히 울려

우리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이
사랑 넘친 당의 손길이 펼친
그 항로 변함없이 달려왔나니

아, 당의 해빛
등대로 비낀 충성의 항로따라
우리 또다시 떠나는 이 아침
조국에 더해줄 기쁨을 안고
우리 마음의 닳은
별써 조국의 항구에 더 깊이 내리노라

나의 사진

최치영

저 사람들도 또 한해
변치 않은 깨끗한 량심들을
이 언덕에 총화하며
행복에 웃음넘친 얼굴 들고
나처럼 사진을 찍는것이리

앞에는 어머니와 어린것들
뒤에는 안해와 나란히
한떨기의 꽃처럼
아버이수령님 우러러
찍고 또 찍는 사진들...

해마다 꽃피는 봄날
만수대언덕에 오를 때면
한두번만 찍은 사진이 아니건만
해와 해를 넘는 사진들과 함께
나는 왜 사진을 또 찍는것인가

나는 찍었다
열여덟나이 초소로 떠나던 날
수령님의 참된 전사가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그 간절한 부탁을 안고
서해관문도시에 모신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나는 찍었다
두개의 군공메달과 함께
나의 성실한 군사복무를 총화하던 날
분계선기슭 자남산언덕에 높이 모신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배움의 높은 층계를 내려
3대혁명의 전위로 떠나던 날
룡남산언덕우 그이 앞에서
먼 북변 수천척지하막장
내 쇠돌에 바친 삶을 총화하던 날
동해기슭 동흥산언덕우 그이 앞에서...

아, 조국땅 그 어디서나
고향집 프락을 떠난 그날부터

나의 깨끗한 량심들을 총화하며
언제나 수령님의 영상 모시고
찍은 나의 사진들

너는 해와 해를 넘어
수령님 위하여 바쳐진 나의 삶
언제나 비운적 없이 두터워진
내 걸어온 생활의 발자국
내 살아온 한생의 자서전

지금도 때없이
너를 문득 펼쳐볼 때면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있어
행복넘친 나날들과 위훈새긴 세월이
말없이 나를 이끌어주는
너는 내 삶의 거울
너는 내 삶의 신념

아, 나의 사진들이여
내 언제나 오늘처럼
이 언덕에 뗏뗏한 량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
영원히 잃는것
신념없는 삶이란
살아도 죽음보다 못한것이려니

추억의 사진들은 많아도
수령님 모시고 찍은 사진은
사랑과 열정으로 덧쌓인
나의 량심과 신념의 높은 봉우리

아, 나는 가리라
이 사진들 가슴에 품고
오늘도 래일도 먼 미래에도
더럽히지 않을 나의 깨끗한 삶
언제나 이 언덕에 맞대며
우리 당중앙을 따라가리라

동화의 현대성과 동화적인 형상탐구

-중편 동화 《세번째 소원》에 대하여-

리효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동문화일수록 아이들의 세계를 파고드는 더 깊은 탐구가 요구되며 보다 생동하고 효과적인 형상과 표현을 찾아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편동화 《세번째 소원》(김청일작)은 최근에 나온 중편동화들중에서 현대성이 짙고 동화적형상을 탐구하는데서 이채를 띠는 작품이다.

1

작품은 아이들앞에 의의있고 흥미있는 인간학적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사상에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아이들은 학습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작품은 이 간단하면서도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은 남기는 독특한 동화적형상으로 이에 대한 뜻깊은 해답을 주었다.

《그래 너의 세번째 소원이라는데 무엇이나?》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헛되이 흘러보면 나의 어린시절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땡땡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서라, 그 소원만은 내 힘으로 풀이줄수가 없구나. 한번 흘러가버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 법이란단다. 내가 시간할아버지이긴 하지만 그 흘러간 시간이야 어떻게 다시 찾아올수 있겠느냐.》

농달이는 할아버지의 웃자락을 꼭 붙들고 사정하였습니다.

《저의 마지막소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풀어주십시오. 할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이가 되게 하여준다면, 나를 어린시절의 내 책상앞에 다시 앉혀준다면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동화의 마감부분에서 주인공 농달이가 시간할아버지와 주고받는 극적인 대사이다.

어린시절 동무들은 모두가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하는 과학자, 기술자가 되어 더 큰 과학탐구의 나래를 펴고 높은 별나라로 날아올라갔는데 농달이만은 어린시절에 10년세월 놀다보니 몸만

크고 속에는 든것이 없는 무식쟁이락오자가 되어 날개바위에 물러앉아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며 이와 같이 애원한다.

동화는 형상체계를 통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렸을 때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깊은 뜻을 실감있게 심어준다.

중편동화 《세번째 소원》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문제를 기본주제로 한 작품이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 어린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 헛되이 보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은 아껴가며 하루도 중단함이 없이 꾸준히 공부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어린시절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작품은 이렇게 학습문제를 아이들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진실하고 뜻이 깊은 해답을 주고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과학과 기술을 열심히 배워야 하며 그것도 우리 나라에 필요한것을 공부하고 탐구해야 한다는것을 깊이 있게 밝혀주고있다.

동화는 아이들이 학습문제에 대한 옳은 관점은 세우도록 당과 현실이 새세대앞에 절실히 제기하는 요구에 대하여 옳은 해답을 주는 각도에서 문제를 풀고있다.

바로 여기에서 작품의 현대성이 짙게 안겨오며 동화의 주제사상이 가지는 의의가 더욱 커진다.

농달이가 긴긴 일요일세상에서 10년동안 노는 사이에 그의 어릴적동무들인 꽃순이는 식물학박사가 되어 《갈매벌연구소》에서 연구해낸 새 버종자로 간석지벌에 풍년농시를 마련하였고 해남이는 바다밑 종합광산기사장으로서 바다속에서 귀중한 지하자원을 캐내고있으며 천동이는 우주비행선 조종사가 되어 별나라에 날아올라가고있다.

해남이가 농달이에게 《지금은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한것처럼

농달이는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학습해야 전진할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된다.

농달이는 공부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다나니 과학기술에 대한 무식쟁이가 되어 망신을 똑똑히 당한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는 과학기술을 모르다나니 갖은 희비극을 다 겪는다.

농달이는 무인조종자인 승용차 《번개-1호》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단추만 누르면 번개같이 달리는 승용차에 왜 운전수가 없는가고 어린 꽃봉이에게 묻는다. 꽃봉이는 자기와 같은 아이들도 모는 자동차인데 《아저씨는 그것두 모르시나요.》하고 반문한다. 그 정도로 농달이는 무식하다. 그는 아이들보다 아무것도 모르고있는데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다.

《갈매벌연구소》로 간 농달이는 초속 50미터의 비바람이 불어오니 비상대책을 세우라는 기상관측실의 비상경보를 받고 고등중학교 학생들도 쓸 줄 아는 《해빛1호》 포를 쓸 대신에 《구름》 포를 쏘서 소동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농달이는 무식한 희극적인 존재가 되어 망신한다.

농달이는 또한 만능비행기를 타고 바다속 종합광산에 가면서 《깊은 바다밑에 어떻게 광산을 세우는가?》, 로봇들이 일하고있는 바다광산에 《로동자들이 왜 보이지 않는가?》 하고 이미 상식이 현실로 된것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문을 품기도 하고 해남이에게서 《너는 몸만 어른이 되었지 배운건 하나도 없겠구나.》 하는 창피한 동정까지 받는다

농달이는 마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비행선을 타고 과학탐구의 날개를 펴고 별나라로 날아가지 못하고 락오자로서 날개바위에 둘러앉아 쓰러진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비극적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작품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시간을 아껴가며 쓸모있는 과학과 기술을 꾸준히 배워야 한다는 교훈을 직접 체험하게 한다.

동화는 이처럼 주인공 농달이와 그의 동무들의 생활, 사건, 동화의 이야기줄거리 등을 통하여 우리 당과 현실이 제기하고있는 절실한 당정책적 문제를 의의있게 그리고 동심에 맞게 형상하였다.

작품의 현대성은 또한 학습에 대한 새세대들의 관점과 견해를 옳게 세우도록 이끌어간데서도 표현되었다.

《세번째 소원》은 어린아이들에게 학습은 곧 중단이 없는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학습에서도 사소한 안일과 해이, 게으름과 건달풍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깊은 뜻을 동화적형상을 통하여 잘 심어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중편동화에 그려진 날개바위전설과 작품의 절정부분에서 진행되는 날개바위와 농달이와의 대화는 동화적이면서도 교훈적이다.

차돌이와 달미는 꿈속에서 웬 할아버지가 가르쳐준대로 하늘에서 별을 따오기 위하여 뒤산 바

위벼랑에 올라 수정샘물을 마시고 솟아오르는 아침해를 제일먼저 마중한다.

이렇게 10년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하여오던 차돌이는 어느 하루 새벽부터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고 먹장구름이 퍼진다는것을 구실삼아 산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다음날엔 안개가 끼였다는 구실로, 다른 날에는 늦잠을 자다가 그만 뒤산에 오르지 않았다.

10년이 되는 날 아침 등근해가 솟는 순간 꾸준하고 부지런한 달미는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올라가고 차돌이는 겨드랑에 날개까지 돋았으나 발이 땅에 붙는 바람에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

달미는 하늘에서 별을 따가지고 돌아왔으나 차돌이는 단 사흘동안 태공한탕으로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울고 또 울면서 날개를 푸드득거리며 달미를 부르다가 그만 바위돌로 굳어지고만다.

동화의 마지막부분에 가서 보는바와 같이 우주비행선을 타고 더 높은 별세계에 과학탐구에 떠나간 자기의 친한 동무들을 향하여 두팔을 펼치고 안타깝게 부르짖다가 바위잔등에 주저앉아 슬피우는 농달이에게 수천년동안 죽은듯이 누워있던 날개바위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한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쩌면 당신은 나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소. 나는 어렸을 때 사흘을 놀고 이 모양이 되었는데 당신은 10년을 놀고도 모자라서 후닥닥 어른이 되었으니 그럴수밖에 더 있겠소. ... 나와 같이 바위돌로 굳어져 동무삼아서있읍시다. 새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제발 우리들처럼 되지 말라고말입니다.》

이처럼 동화에서 날개바위전설은 하나의 전설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바위와 농달이의 대사를 통하여 오늘의 이야기로, 산 교훈으로 살아움직이면서 학습이란 꾸준하고 하루도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진리를 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중편동화 《세번째 소원》은 새세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되 명확한 목표와 똑똑한 지향은 가지고 해야 한다는것을 동화적인 형상으로 설득력있게 그림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을 더 의의있고 품위가 있는것으로 만들었다.

긴긴 일요일세상에 가서 10년간이나 놀다가 고향마을에 돌아와 모든것이 몰라보게 달라진것을 보고 놀라게 된 농달이는 어릴 때 자기들이 심었던 백양나무를 쳐다보면서 그때에 동무들과 희망을 나누던것을 회상하게 된다.

그때 자기와 친한 꽃순이는 커서 벼알 한알이 주먹만한 새 벼종자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였으며 해남이는 바다속의 지하자원을 몽땅 캐내겠다고 하면서 《바다속의 보물》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

고있었으며 천둥이는 비행사가 되어 머나먼 별나라로 날아가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로켓에 발동기를 달 차비를 하고있었다.

이처럼 뚜렷한 목표와 크나큰 푸른 꿈을 안고 공부에 열중하던 동무들과는 달리 농달이는 똑똑한 희망과 지향도 없이 놀 생각만 하였던것이다.

이 동화는 세세대들은 명확한 목표, 크나큰 포부와 날개돋힌 꿈을 안고 꾸준한 학습과 열정적인 탐구로 그것을 개척해나가야 하며 농달이와 같이 이무 목적도 꿈도 없이 하루하루 건달을 피우고 놀다가는 어떤 후과가 빚어지게 되는가를 동화적형상으로 진실하게 깨우쳐주고있다.

이상과 같이 중편동화 《세번째 소원》은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교육교양된 세세대들의 학습과 생활에서 해답을 기다리는 절실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당정책적인 견지에서 동화적형상으로 이에 해답을 주는데서 좋은 창조적경험을 보여주었다.

2

중편동화 《세번째 소원》은 새롭고도 특색있는 일련의 동화적형상들과 형상수법들을 탐구동원하는데서도 좋은 경험을 보여주었다.

우선 동화는 아이들이 자기 생활로 받아들이고 느낄수 있도록 흥미있는 동화적형상을 창조하였다.

작품은 땡땡할아버지와 같은 흥미있는 형상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작품이 새롭게 창조한 동화적인 형상이다. 할아버지는 시간을 아주 빨리 가게 할수도 있는 인물로 의인화하였다.

동화는 시간과 같이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표상하기 어려워하는 추상적개념을 해와 달과 별들이 곱게 수놓아진 길다란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친근한 할아버지로 인격화함으로써 시간을 제마음대로 연장하기도 하고 단축시키기도 싶어하는 아이들의친친관만한 공상을 예술적인 인물형상으로 전환시켜 등장인물로 생동하게 교감시켰다.

《긴긴 일요일세상은 없을가?》 하는 농달이의 희망과 공상은 시간할아버지에 의하여 현실화되었으며 《후닥닥 어른이 됐으면...》 하는 그의 불가능한 욕망도 시간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현실로 전변되었다.

물론 이것은 예술적환상의 창조물이다.

비록 꿈에서 벌어지는 생활이지만 농달이의 심리를 구체적형상으로 구현한 땡땡할아버지는 생동하고도 구체적인 인물로 등장하여 농달이와 친숙하게 교감함으로써 시간이란 추상적인 개념을 산 현실처럼 체험하게 한다.

작품은 땡땡할아버지가 시간을 느리게 가게도, 빨리 가게도 할수는 있으나 이미 흘러간 세월을 되돌려세울수 없는 인물로 형상함으로써 그가

만능의 힘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으며 어린시절에 하루하루를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한다는 진리와 교훈을 인성깊이 안겨주게 하였다.

동화는 또한 기본사건과 기본이야기가 꿈속에서 벌어지게 함으로써 작품구성에서 완결미를 주는 동시에 동화적이야기를 현실과 환상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며 그들의 사상감정을 자유분방하게 보여주고있다.

온종일 추구와 낚시질로 시간을 보내고 피곤하게 된 농달이에게 졸음이 밀려든다. 졸음이 실린 그의 눈앞에는 벽에 걸린 달력장이 보이고 거기에는 일요일이란 날자가 빨간 글씨로 큼직하게 쓰여져있다. 농달이는 일요일의 하루는 왜 이리도 짧을가 하고 생각한다.

그의 이런 아쉬운 생각은 다른 공상을 불러일으킨다.

일요일의 하루를 길게 할수는 없을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일요일세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그럼 거기에 가서 실컷 놀고와서도 숙제를 할수 있을거야.

참으로 아이다운 공상이며 놀기 좋아하는 농달이다운 갈망이다.

작품에서는 농달이의 이런 공상과 갈망을 푸는 방법을 의인화된 벽시계가 대주며 땡땡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그것이 현실화된다.

작품은 어린 독자들이 농달이와 함께 공상으로부터 끌려들어가게 함으로써 어느것이 현실이며 어느것이 꿈인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심적 사유와 심리를 자연스럽게 환상의 세계로 유도해간다.

작품의 마감에 가서 농달이는 돌개바람에 불리워 날개바위에서 산밑으로 데굴데굴 굴러떨어지다가 나무밑동에 들이박고 《에쿠머니야》 하고 와닥닥 놀라서 눈을 뜬다. 깨여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작품은 이야기를 꿈의 테두리안에서 벌리면서도 꿈의 시작과 마감을 무리없이 그럴듯하게 그림으로써 독자들은 주인공과 함께 유쾌히 지내기도 하고 흥분도 하며 후회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자기가 체험하는것처럼 이야기를 생활로 느낀다.

어린 독자들은 지금까지 겪은 일이 정말이 아니라 꿈이었다는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건과 이야기, 뜻과 교훈을 다시 음미할수 있는 심리적여유와 여운을 준다.

이와 같이 《세번째 소원》에서 꿈형식은 실감과 작품의 완결미를 주고 동화적환상과 사실주의적묘사수법을 잘 결합하고있다.

작품은 이뿐만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연령과 심리에 맞는 동화적환상과 형상수법을 탐구하는데

서도 일련의 좋은 경험을 보이고있다.

작품에서는 동심다운 사유와련상, 상상과 공상을 펼침으로써 아이들을 동화적인 세계로 권인력있게 이끌어가고있다.

일요일 하루를 공차기와 낚시질 등으로 보내고 숙제를 밀리고도 일요일 하루를 길게 할수는 없을가, 시간이 천천히 자는 일요일세상은 없을가 하고 공상하는 농달이의 성격제시는 작품의 주인공이 놀기 좋아하고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라는것을 보여주면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하고 흥미를 갖게 한다.

이것은 농달이다운 사고방식이고 공상이다.

동화에서는 일요일세상도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는 그의 공상대로 펼쳐진다.

농달이가 들어선 뽕마당은 산골짜기 한복판에 동그랗게 닭아논은 마당인데 거기에선 모든것이다 동그랗다. 마당을 둘러싸고있는 산들도 산기슭에 서있는 나무일들도 온통 동글동글하다.

축구를 좋아하여 모든것을 동그랗게 련상하는 농달이다운 동심적심리이다.

농달이는 파란 옷, 노란 옷을 입은 축구선수들을 구경만하는것이 아니라 파란 선수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실컷 공을 찬다. 몇번이나 공을 차넣기는 하나 상대방 문지기가 어떻게 날뻐던지 한알도 넣지 못한다. 농달이는 어찌나 오래 축구를 했는지 맥이 빠져 비틀거리고 쓰러질 지경이 된다.

농달이는 얼마나 축구에 혹한 아이인가.

작품은 농달이로 하여금 피란 옷을 입고 경기에 직접 인입되어 쓰러질 정도로 공을 차게 한다.

작품은 동심에 맞게 직관적이고 생동하고 동적인 세계를 체험시키면서 이야기를 벌려나가고있다.

먹는집에 대한 묘사도 역시 농달이의 심리와 연령에 맞게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고소하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여러가지 음식냄새가 물씬물씬 풍겨오는 먹는집에는 앉아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고추에 담긴것을 마실수 있는 식탁도 있고 엉덩이가 배길 정도로 앉아서 음식을 먹을수 있는 식당도 있고 엎드려서 먹을수 있는 식탁도 있다. 농달이가 엎드린채 머리말에 있는 식탁에 손을 내밀어 집어다 먹은 과일만해도 수만알이나 된다.

농달이는 또한 자는집에 가서 여러가지 잠자리에서 실컷 잔다.

이처럼 놀고먹고 자고도 성차지 않아 농달이는 다시 놀음터에 갈것을 바란다.

농달이가 세월을 보낸 일요일세상에 대한 묘사는 농달이가 얼마나 공부를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게으른 아이이며 그 세상이 농달이의 심리와 공상에 딱 맞는 세상이었는가 하는것을 생동

하고도 구체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이와 같이 작품의 예술적형상을 아이들의 심리와 정서에 맞게 그리며 그들이 재미있게 접수할수 있는 생활로 전환시키는데시 예술적환상이 자기의 몫을 잘 담당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두번째 소원》장에서 그려진 남새밭장면은 놀기 좋아할뿐아니라 장난하기 좋아하고 가만있기 싫어하는 농달이의 성격과 기질에 맞는 생활을 그린 대목이다.

배추와 무우가 한뿌리에서 한꺼번에 자라면서 숲을 이루고있는 남새밭에서 농달이는 팔뚝같이 굵은 넝쿨에 달린 기둥같은 오이를 타고 장난한다. 그는 자기앞에 말고삐처럼 드리운 넝쿨을 쥐고 다른 손으로 오이등을 말잔등처럼 툭툭 치면서 노래까지 부른다.

이 대목은 농달이의 동심적인 생활과 행동은 그의 성격과 기질에 맞게, 사유의 논리에 맞게 그리였다.

레하면 농달이가 몰라보게 달라진 고향마을의 길을 걸으면서 조무래기 넷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자기가 어렸을가 함께 손목잡고 그 노래를 부르곤하던 친한 동무들을 생각하게 되는 장면, 고중에 올라가던 봄날에 그들과 함께 심은 백양나무가 올라다볼 정도로 크게 자랐고 그 가지에 자기의 이름도 함께 적혀있는 꽤쪽이 대통령대롱달려있는것을 보면서 헛되이 보낸 10년을 놀라서 돌이켜보는 장면 등은 그런 실례에 속한다.

동심에 맞는 상상의 세계를 흥미있게 그린것도 동화적환상을 펼치는데서 귀중한 열매라고 할수 있다.

농달이가 꽃순이와 함께 타고 바다종합광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물속에서는 잠수정으로 변하고 땅위에서는 자동차로 되는 만능비행기로 보여주는 대목은 아이들의 심리에 알맞는것이며 수백년 묵은 바다거부기의 모양과 그놈을 만능비행기의 비상조종단추를 눌러 꽃순이가 바위돌처럼 굴러떨어지게 하는 장면묘사는 동심적인 과학환상의 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다.

중편동화 《세번째 소원》에서 창조된 의인화된 성격들은 동물의 생태와 사물의 특성에 맞게 생동하고 자연스럽게 형상된것이 적지 않다.

작품에 등장하는 시간할아버지는 물론 비둘기, 시계, 날개바위 등 의인화된 인물들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고 믿음에 가는 성격들로써 자기의 생태적특성과 사물의 성질에 맞게 주인공과 교감하며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동화의 이야기속에서 살아움직이고있다.

동화는 구성이 짜여 이야기줄거리와 사건의 말단과 말전, 결말 등이 형상들의 논리에 맞게, 밀도있게 전개되고있다. 이야기, 시건 등의 계기들과 중요 장면들이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 농달

이의 개성적론리에 어울리게 그려져 작품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중편동화 《세번째 소원》에는 이처럼 좋은 성과와 창작경험이 있는 반면에 일부 부족점들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동화에서 예술적환상이 어떤 대목에서는 다소 과장된 감을 주는것이다.

물론 동화에서 우리 식의 예술적환상은 좋은것이며 또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농달이가 놀면서 보낸 10년사이에 일기도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있도록 《해빛포》, 《구름포》 등을 쏘며 하늘에서는 비행기로, 바다물속에서는 잠수정으로, 땅위에서는 자동차로 되는 만능비행기를 타고다니며 바다속에 발전소도, 종합광산도 세우고 로보트로 일하는 등은 과장된 감을 준다.

작품은 또한 언어구사에서 일부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동화는 아이들의 생활과 심리, 사상감과 구미에 맞는 표현과 어휘들을 골라쓰는데서 좋은 경험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평이하고 생활적인 말들과 표현들을 골라쓰려는 좋은 지향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작품에는 표현과 어휘사용에서 본질적인 결함도 있다.

작품에는 사투리와 문학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어휘들과 표현들이 적지 않으며 같은 말을 반복하여 만든 부사들을 필요이상 람용한것 등 형상창조에 손실을 준 부분들이 있다.

《충충집들이 우뚝우뚝 솟았다》, 《농달이는 그만에야 어리뻑뻑해서》, 《뽕마당》, 《틀림없이 자기네 고향마을이었다》, 《사흘을 기다렸건만》, 《꽃대문이 찌궁 열리더니》, 《에쿠머니야!》, 《살래살래》, 《들썌들썌》, 《쿨쿨》, 《쿵쿵》(심장) 《다롱다롱》, 《물썌물썌》, 《두릿두릿》, 《가고가고 또 가다》 등은 그러한 몇가지 실례들이다.

인민들의 구두어에서 풍부한 어휘와 표현을 찾아내고 평이하고 정화하고 명료하고 생활적인 언어를 만드는것은 옳고 좋은 일이다.

문학작품은 반드시 인민적인 언어와 표현들에서 가장 적중한것을 골라 문화어로 다듬어야 하며 문화적으로 세련시켜야 한다.

중편동화 《세번째 소원》에는 일부 부족점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작품이 거둔 성과와 좋은 점들에 비하면 극히 작은것이다.

《세번째 소원》은 중편동화창작에서 좋은 싹들을 보여주었으며 일련의 알찬 열매를 거두었다.

동화는 무엇보다도 예민한 시대정신과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주체사상으로 교양육성된 새세대들의 생활과 활동에서 제기된 절실한 문제를 발

견하고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해답을 주었다.

우리의 일부 중편동화들은 인간학으로서 새롭고 중요한 문제를 제때에 제기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문제, 상식적인 문제의 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또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도 인상깊은 동화적형상을 통하여 심오한 사상예술적해답을 주지 못하고있다.

《세번째 소원》은 중편동화의 현대성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창작경험을 쌓았다.

동화는 또한 어린 학생들의 연령과 심리적특성에 맞는 동화적형상들을 탐구하였다.

농달이는 긍정적인 아이들속에서 부정으로부터 긍정으로 각성개조되어가는 어린 학생이다.

그의 성격은 개성적이며 농달이답다.

그의 형식은 아이다우며 밍지 않다. 그는 우리나라의 학생아이들처럼 락천적이며 구김살이 없으며 생기발랄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칠줄 알며 지향이 높은 새세대의 주인공이다.

농달이의 성격은 그에게 고유한 생활과 감정정서와 심리를 따라 산 개성으로 전형화되어있으며 그의 성격의 변화발전도 생동하며 진실하다.

또한 작품에 나오는 의인화된 여러 등장인물들과 예술적환상이 아이들의 사고방식과 감정심리에 어울리게 그려져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동화 《세번째 소원》은 성인화되고 동심다는 거리가 있는 형상수법의 틀을 대담하게 벗어나 아이들의 정서적미감에 맞는 사실주의적이며 동화적인 묘사법을 탐구하는데서 새싹을 보여주었다.

동화는 또한 재미있게 씌여졌다. 동화는 아이들이 즐거움을 맞이 있는 작품이다.

그것은 작품의 종자와 주체사상이 참신하고 이야기가 흥미있고 환상이 나래를 펴고 양상이 생기발랄한데서 온다.

아이들은 동화에서 나오는 꽃순이, 해남이, 천동이, 농달이들 속에서 자기자신을 보며 자기의 생활과 지향, 사상관점과 교훈 등을 거울처럼 들여다본다. 아이들은 작품을 보며 등장인물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후회도 하고 울기도 하며 그들처럼 공부도 하고 장난도 하며 공상도 하고 깊은 사색에도 잠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들은 이 동화속에서 자기를 보며 자기 생활을 보기때문에 작품이 재미있고 마음에 드는것이다.

중편동화 《세번째 소원》은 중편동화창작에서 지루하지 않게, 흥미있게 읽히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좋은 경험을 보여주었다.

력사는 전진한다. 자기를 자각한 농달이는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과학기술을 열심히 탐구하여 나라에 쓸모있는 인재가 되려는 절절한 소원을 품게 될것이다.

새들도 노을도 백양나무도

계 훈

불타는 노을
설레이는 백양나무도
귀담아들었네
일새속에 숨어서 새들도 들었네

처녀와 총각이
속삭이는 말
-다음달 초하루날
이맘때 만나자-는...

월계획 끝내고
다시 만나자고
노을피는 저녁에
꼭 만나자고

총각은 용해공
처녀는 운전공
온 공장이 다 아는
만만찮은 두 경쟁자

기다리던 초하루 그날이 왔네
새들은 기쁨의 나래를 쳤네
노을은 하늘을 곱게 물들이고
백양나무도 설레며 그 시각 기다렸네

허나 처녀와 총각은
오지 않았네
밤새도록 그 사연
알길이 없었네

새들은 몰랐네
노을도 몰랐네
설렁이는 백양나무도
정녕 알수 없었네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획을 앞당겼다는것을
사랑이 불타서
세월도 상봉의 약속도 앞당겼다는것을

용해공기사들이 들어선다

김호범

백양나무 천만일새 우릴 반겨 설레는가
전기로 동음소리 어서 오라 우릴 부르는가
아침노을이여 더욱더 불타오르라
한달에 공장대학을 졸업한
용해작업반 우리의 첫 출근길이다

주먹땀을 흘려야 밥맛도 좋다던
그날의 그 사람들이
무쇠팔힘 뽐내며 쇠장대 휘두르던
그날의 그 사람들이
가슴마다 야금기사증을 품었거니

넥타이 살뜰한 옷차림 그대로
쇠물을 뚫이는 자동화된 일터
오랜 세월 바라던 그 소원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로
꽃피운 사람들

가슴뜨거워라
불앞에서 일하는 우리를 걱정하시어
남먼저 텔레비존앞에 앉혀주시더니
오늘은 기술문명의 끝은 길우에

더 높이 내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은정이어

얼마나 휘황할것이나
그 사랑 꽃피여 자동화의 흥겨움속에
마음껏 쇠물을 뚫여가는 용해장과 더불어
달려갈 우리의 앞날은
마중을 조국의 찬란한 미래는

노을도 앞길에 붉은 주단 펼쳤구나
땀으로 쇠물을 뚫이던 어제날은
옛말하며 오늘에 우리 살듯이
기사들이 쇠물을 뚫이는
전설같은 이야기 꽃피는 세월이여
주체화 현대화로 빛나는 시대여

아 공산주의 큰문도 선참 열고 들어서라고
친애하는 그이께서 안겨주신
사랑의 증표- 기사증이 가슴에 빛나는
용해공 우리들이 들어선다
기사들이 들어선다

우리 날마다 끓이는것은

정영호

집집의 창가마다
출강의 종소리도 은은하게
흐뭇한 즐거움으로 흘러드는
저녁의 한때

제대군인 나의 첫 아들을
대견히 추켜올리며
로장아바이 웃음 거둘줄 모르누나
내 끓인 첫 시료를 떠내던 그날처럼

아직은 수집어
다소곳이 서있는 나의 안해에게
산모에겐 더없는 보약이라고
팔뚝같은 잉어를 쥐어주며
저렇듯 기뻐하는 로장아바이
참말로 친아버지만 같구나

내 제대배낭을 풀어놓던 그날
쇠물 끓는 로앞에 세워주며
용해공은 그 언제나
가슴에 쇠물꽃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친근히 어깨를 두드려주던 아바이

출강의 한때
내 잠시 주저하며
쇠물담비 제때에 못놓을 땀
담을 키워야 불을 다룰수 있다고
눈빛도 엄하던 영웅로장

푸짐히 쇠물을 뽑아내고
구내길에 나선 저녁이면
용해공은 걸음새도 달라야 한다고
가슴펴고 활기로이
걸음걸음 앞서 걷던 아바이

웅심깊은 한가슴엔
사랑의 쇠물이 끓고있어
평소엔 말이 적고
때론 엄한 질책을 해도
그 진정이 나는 좋더라
화려한 말보다 그 꾸짖음이 더 좋더라

불을 다루며
불같이 지닌 사랑이어서
때없이 오가는 말속에서도
그 사랑 뜨겁게 어리고

쇠물을 끓이며
쇠물처럼 나누는 정이어서
터놓는 진정은 부어내는 강철처럼
당을 위해 이어지는 한마음이여

아, 우리 날마다 끓이는것은
정녕 쇠물만이었던가
세월과 함께
더더욱 굳세여질
의리의 한마음을 끓여간다

꾸준한 노력과 관련된 속담

· **돌끓는 화살은 없어도 돌파는 락수는 있다.**

무슨 일이나 오래도록 인내성있게 꾸준히
하면 결국 성공할수 있음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나는 새도 깃을 쳐야 날아간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재능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을 이르는 말

· **작은 도끼로 아릅드리나무를 찍어놓힌다.**

보잘것없는 작은 힘이라도 거듭하여 쌓아가면
큰일을 이룰수 있음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열번 갈아서 안드는 도끼가 없다.**

무슨 일이나 꾸준히 공을 들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됨을 이르는 말

세대앞에

박숙희

늦여름의 따뜻한 아침해발이 료양소창문을 비쳐들고있었다.

과학원연구사 오은경은 빨간 금붕이가 꼬리치며 뛰노는 원탁앞에 앉아 뜨개를 뜨다 말고 맞은편에서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채 화학식을 부지런히 풀고있는 방직공장기술지도원 리숙임을 이따금 넘겨다보곤하였다.

(밤새 풀어도 안되던 문제가 갑자기 되거나 할걸 가지고...)

은경은 속으로 푸념처럼 이렇게 외우며 그 여자옆으로 다가갔다.

《어때요, 언니, 될가요?》

은경은 가름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바로 턱 밑에서 올려다보는 그 너자의 그윽한 눈길을 받으며 학습장을 내려다보았다. 깨알같이 박아쓴 화학식들이 거침없이 흘러내려갔다.

《이렇게 이악스럽다구야.》

《언닌...》

그 너자는 은경을 쳐다보며 밝은 웃음을 한껏 짓더니 다시 만년필을 돌려나갔다.

《한텐 다 이려지.》

은경은 혼시인지 푸념인지 딱히 알수 없이 입속으로 나지막이 외우면서 그 너자의 은빛 만년필촉끝에서 씹없이 흘러나오는 화학식을 바라보았다. 이때 《이럴수 있어요.》 하며 조그마한 흰손이 그들의 학습장을 덮어버렸다.

순간 두 너자는 흠칫 놀리며 동시에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아니.》

어느사이에 들어왔는지 단발머리 간호원처녀의 머루알같은 까만 눈이 이슬을 가랑가랑 담은채 봉긋한 가슴을 할짝거리며 내려다보고있었다.

《여기가 무슨 연구소인줄 알아요? 치료규률까지 어기면서...》

간호원처녀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쏟더니 두 너자가 미처 말할 사이도 없이 사물함우의 책들까지 한아름 걸어안고 호실을 나가버렸다.

《아니...》

《간호원동무.》

두 너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구 멍하니 서있었다.

《옥희가 왜 그래?》

은경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너자를 건너다보았다.

《그렇게 됐어요.》

그 너자는 좁고 갱뽕한 어깨를 늘어뜨리며 원

탁앞으로 다가갔다.

나팔꽃마냥 옷목이 활짝 펼쳐진 어항속에서는 금붕어가 지느러미를 잃은듯 까딱하지 않고있었다.

《그럼 또... 전번에두 치료도중에 왔다고 의사 선생이 그렇게 그랬는데...》

그 너자는 아무 말이 없다. 대답대신 깊은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그는 방금전 자외선치료실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간밤새 풀리지 않아 씨름하던 화학식의 실마리가 떠오르자 간호원이 없는 사이에 호실로 《도망》쳐왔던것이다.

《언니, 난 어쩌면 좋아요. 책을 다 가져갔으니...》

숙임은 원탁앞에서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 너자의 근심스럽고도 시름겨운 눈길은 한동안이나 그렇게 창밖을 오래동안 내다보았다.

숙임의 가늘고 호리호리한 뒤통수를 지켜보는 은경의 눈에는 그 너자의 가늘게 떨고있는 다리가 보였으며 좁고 축 처진 어깨가 경련을 일으킨듯 몸부림치고있는것이 룽감으로 느껴왔다.

《차라리 잘 됐지. 정상이 말이 아니야. 그러다 건강이 더 나빠질텐데.》

은경은 푸념처럼 외웠다.

그 너자는 아무말없이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그러더니 불현듯 무슨 생각이 떠오른듯 복도로 뛰쳐나갔다.

(호실을 공연히 옮겨와가지구... 내가 그날밤 나가지 않았어야 하는건데...)

은경은 그 너자를 따라나가려다가 말고 침대머리에 놓여있는 뜨개를 손에 들었다.

(하긴 저 너자의 성화에 모르는척한다는거야 어디...)

은경은 료양소로 온 이 며칠간의 일이 돌이켜졌다.

...입소한 날 밤이었다.

료양소로 오느라고 기차에 시달린 피곤이 온몸을 내리눌러 저녁식사하기 바쁘게 자리에 누웠던 오은경은 한밤중에 깨어나 할 일이 없어 뜨개감을 펼치였다.

첫날밤이여서인지 수도칸 어디선가 물통을 채우는듯한 줄줄거리는 수도물소리뿐 온 료양소가 쥐죽은듯 조용하였다.

아무 생각없이 코바늘을 돌려나가던 은경은 또 다시 물려드는 줄음에 선하품을 하고나서 가누기 어렵게 비대한 몸을 일으켰다.

《한잠자고 났는데 두 왜 이렇게 피곤한가?》

은경은 노곤히 갈마드는 졸음에 또다시 기지개를 한껏 켜고나서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었다.

소나무숲의 향긋한 송진내가 확 풍겨들며 지지 놀린듯 답답하던 가슴을 시원하게 흔들어주었다.

《참, 좋구나.》

은경은 다감한 처녀마냥 머리를 가로흔들며 가슴을 활짝 펼치려다가 자기 눈을 의심하며 한곳을 이윽도록 주시하였다. 마당 건너 식당모퉁이에 걸려있는 외등밑에 한 녀자가 동그란 그림자를 깔고 쪼그린채 앉아있었던 것이다.

《이 밤중에...》

은경은 까만 치마로 감싼 무릎위에 책을 올려놓고 무엇인가 부지런히 쓰기도 하고 생각에도 잠겨있는 그 녀자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웬 녀자일가?)

은경은 의문을 지우지 못하며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보니 료양소로 오는 날 빠서 정류소에서 사귀게 된 녀자였다.

은경은 자리에 누워버리려다가 말고 자신도 알 수 없는 호기심 비슷한것에 끌려 원탁위에 의종은 형제마냥 이마를 맞대고있는 빨간 사과 두알을 손수건에 싸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 녀자는 은경이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채 그대로 앉아있었다.

《편지를 쓰나?...》

은경은 노숙기 어린 목소리에 웃음을 담으며 무접종게 더 바투 다가갔다.

《아니...》

숙임은 그제서야 인기척을 느낀듯 황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해되지 않을가? 남편한테 도착보고하는 모양이지. 편애편지도 아닌데 무슨 비밀이라구... 이밤중에...》

은경은 소리내어 웃었다.

《아니... 저...》

그 녀자는 크고 시원한 외까풀눈에 당황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긴 그럼... 아!》

은정은 그 녀자의 손에 쥐여있는 학습장에 눈길이 닿자 요란한것을 드디어 발견한듯 탄성을 질렀다.

《자식 가진 부모들이래 다 그렇다니까.》

은경은 의미있게 웃었다.

그도 애들의 성장을 두고 자랑이 컸고 애들의 재능을 어떻게 찾아냈는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였었다. 그것이 바로 자식들앞에서의 부모의 성실성과 의무라고 여겼기때문이다.

은경은 그 녀자의 손에 사과를 쥐여주며 웃음을 띠었다.

《그렇게 속을 태우지 않아도 돼. 애들의 재간

이란 부모의 눈에 띄을 때가 있지.》

그 녀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미안해요. 잠깐만...》 하며 자기의 생각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있었다.

《그러지 말고 어디 나 좀 볼가?》

은경은 그 녀자의 가슴에 꼭 껴안겨있는 학습장에 손을 가져갔다.

《저... 그런게 아니예요.》

그 녀자는 얼굴은 붉히며 당황해하였다.

《그래두 제 아이를 키워본 내가 아이들이야 더 잘 알지.》

은경은 그 녀자의 손에서 학습장을 앗아내다싶이 끄당겨 펼쳤다. 깨알같이 박아쓴 화학식들이 학습장 네귀를 짝 채웠다.

《아니, 이진...》

은경은 미간은 조프리며 학습장 첫머리로부터 주르르 훑고나서 학습장 폐지들을 후르르 퍼루었다.

《난 또... 아이게라구...》

은경은 맹랑한듯 허거른 웃음을 지었다.

《통신공부를 하는 모양이지요.》

은경은 학습장에서 눈길을 떼며 나직이 물었다. 그 녀자는 어딘가 시름이 담겨져있는것 같기는 하였으나 외까풀눈을 조용히 내려뜯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

《료양기간에야 시간이 많은데...》

은경은 학습장을 되번지며 화학식을 몇군데 고치어나갔다. 이때 그 녀자의 눈빛이 습관적으로 빛났다.

《아니 언니 화학을 해요?》

그 녀자는 성급하게 다우쳐 물었다.

은정은 미소어린 눈빛으로 응대하였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군요. 난 과학원에 있다니 그저 그런줄 알았지. 료양소에 와서 선생을 만나다니...》

그 녀자는 어린애마냥 은경의 팔에 매달리다싶이 하며 환성을 질렀다.

《난 언니를 순간도 놓지 않겠어요.》

그 녀자는 다음날 터질듯 똥똥한 배낭을 안고 은경이네 호실로 옮겨왔다.

《언니, 내가 이겼어요. 갖은 사정을 다 하였더니 과장아버이가 손을 들더군요.》

그 녀자는 30대를 넘었을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웃고 떠들며 재빠르게 말하였다.

(이렇게 이악스럽다구야.)

은경은 배낭을 받으며 웃기만 하였다.

숙임은 호실을 옮겨온 이 며칠사이에 날염원료에 대한 수많은 문제를 묻고 따지고 논쟁을 걸어왔다.

바로 어제밤도 그 녀자는 은경이로선 좀처럼 풀수 없는 문제를 물어왔으며 은경이 난처해하자 밤새 씨름하다가 끝을 보지 못한채 오늘아침 자

외선치료실로 갔던것이다.

은경은 인기척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 녀자가 쓰러진듯한 지친 걸음으로 방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인채 창문쪽 자기 침대에 가서 잤다듯 주저앉았다.

과장아바이든가 간호장을 찾아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것이 분명했다.

《숙임이, 그러다 정말 병이 도지겠어, 공부를 어떻게 하루 이틀에 다 한다구 그럴가, 자! 마음을 늦추고 진정하라니까. 그렇게 너무 악을 빠빠씨도 일이 잘 안되는 법이야.》

은경은 그 녀자를 위로하였다.

《내 뜨개감을 하나 줄가. 우리 연구소 아주머니들은 점심시간이면 뜨개도 뜨고 남자들도 들으면 아연해할 가정내부문제를 <꼭로>하기도 하고 이게 다 생활이지, 숙임이처럼 그렇게 분과 초를 쪼개가면서 바글바글 끓어서야 어디...》

은정은 웃음지으며 혼시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리고는 사물함에 예비로 가지고 온 뜨개바늘과 흰재동실토리를 꺼내 그녀자의 손에 쥐여주었다.

《나두 한때 숙임이처럼 그랬어, 그런데 생활이란 그렇지 않거든.》

은경은 숙임의 손에서 뜨개바늘을 도로 가져다가 코를 잡고 몇돌기 뜨며 김빠지는 뿔마냥 주저앉는 목소리도 느릿이 말하였다.

《자, 이제 이 부호대로 뜨면 돼. 이다음 집에다가 쳐놓구 보면서 날 생각하라구.》

숙임은 은경이가 쥐여주는 매듭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몇코 뜨기 시작하였다.

바늘이 꼬이고 뜨개코들이 빠져나갔다.

《언니, 난 피곤해요.》

숙임은 뜨개를 한옆으로 훌 밀어놓더니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은경은 그러는 숙임을 보며 싱긋이 웃음지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한다구야. 내가 말을 하지 않아, 생활이란 그렇지 않다구. 오래지 않아 40고개네 뭘 그렇게 아글타글 고생하느라 그럴가, 이제 통신공부를 해서 무슨 박사가 되겠다구, 아! 남편이 없나 아이들이 없나, 남편과 아이들을 사람들앞에 잘해 내세우면 최고지뵈, 난 <생활전선>에 눈을 돌리는것이 현명한 일이라는것을 생활속에서 찾았어. 그래 해마다 료양권을 <사업>하여 료양소도 다니구, 이것이 다 생활이지.》

은경은 한참 떠내려가던 뜨개손을 멈추고 실박한 어깨를 주먹으로 툭툭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왜 이렇게 피곤해할가?》

은경은 두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기지개를 한껏 켜고나서 뜨개감을 등실등실 뭉그려 사물함에

훌 집어던졌다.

《통...》

사물함 나무벽에 동그란 실토리가 면바로 맞았는지 뿔뿔이는듯한 소리와 함께 뜨개통구리에 밀려난 풀빛표지의 두툼한 책이 발등에 툭 떨어졌다.

은경은 허리를 구뭇하며 책을 집어들었다.

료양소로 떠나오던 날 남편이 던져주는것을 어망간 받아 넣어가지고온것이였다.

《어쩔가?》

그는 빨간 유화구로 《보석》이라고 표지에 살아움직이는듯 생신하게 휘갈겨 쓴 자료집을 사물함에 도로 집어넣으려고 망설이다가 책장 몇페지를 후룩후룩 번지였다.

사전과도 같이 두툼한 이 책속에는 은경이가 1년동안 안고 씨름하여온 염료개선문제와 관련한 연구자료들이 있었다.

책장을 얼마간 펼쳐나가던 은경은 도리머리를 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벽에 걸어놓은 자그마한 타원형의 거울속을 들여다보며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가고 대학때만 해도 별빛같았던 눈빛은 흔적도 없었다.

(늦었어. 눈정기가 다 풀리구, 나도 모르겠어, 생활속에 지워지고 퇴색한것이 어디 눈정기뿐이리구. 남편과 애들 시중에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가구, 40고개가 오래지 않은 지금 나한테 남은것이 뭐란말인가? 생의 좁도 향기도 다 메마르고 날아가버리지 않았어... 지금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방향의 실마리를 료양소에 와서까지 뵈...)

은경은 《보석》자료집을 소리나게 탁 덮어서 사물함에 훌 집어던졌다.

은경이가 연구하고있는 중간색을 개선하기 위한 염료첨가제 문제는 그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에서 받은 첫 연구과제였다.

대학 전 기간을 최우등으로 마친 은경은 전도 유망한 녀성과학자로 기대되어 과학원에 배치되자 이 연구과제를 받았었다. 그러나 가정과 남편, 아이가 그를 둘러싸고 채바퀴처럼 돌기 시작하자 《녀자들이란 할수 없다》는 자체의 위안을 하며 5년세월을 《연구합니다》라는 본능적인듯한 대답속에서 그럭저럭 흘러보냈다.

《연구한다니 믿어야지.》

은경이 연구정형에 대한 보고를 할 때마다 백설이 내린듯 눈섭까지 희끗한 실장아바이는 도수 높은 안경너머로 의미있게 내려보았다.

그러던 어느날 지방산업공장인 자그마한 방직 공장 기술준비실에서 우편으로 보낸 아직은 너무도 미숙하나 중간색을 개선하기 위한 염료첨가제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받았었다.

순간 그때까지만 하여도 기초자료조사로 과학

자로서의 직업적의무를 유지해가던 은경은 잠에서 놀라 깨난 사람마냥 정신이 번뜩 들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허거뜰 웃음을 웃고말았다.

내가 연구소에서 수년이나 연구해도 못해낸것을 누가 주체넘게...《이발도 나지 않은게 룡발을 먹으려 한다》고 과학이란 무엇인지도 모르는 꽃내기들이 연구한답시고 덤벼치는것이 가소롭기까지 하였다. 하긴 자기도 한뎀 그랬지만...

은경은 방직공장 기술준비실의 연구자료들을 더 훑어보지도 않고 돌돌 말아 책장속에 홀 집어 던졌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조언을 주는데 무슨 일이든지 물체가 있는것처럼 전문연구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야 되기 힘드니 그만두는것이 좋겠다고 《아량》 있는 편지를 써 보냈다.

해가 바뀌었다.

그곳 준비실에서는 다섯번째의 연구자료들이 또 날아왔다. 은경은 그때마다 자기만이 가져야 할 그 무엇을 내놓으라는 독촉과도 같아 위구심과 불안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것도 몇시간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삭막해지고 형식으로나마 펼쳐져서 하품만 자아내던 《보석》수첩도 며칠 안되어 책장속에 구겨박히고말았다,

그는 점차 본능과도 같은 《자기 식》의 생활에 묻혀 10여년 세월을 흘러보낸 오늘에는 어느덧 그 파제를 끝낼만한 능력도 열정도 지어는 생의 좁도 남아있지 않다는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먹기 싫으면서 남도 주기 싫다》고 그 누구에게도 연구파제를 내주고싶지 않았다.

은경은 또다시 기지개를 한껏 켜며 돌아섰다.

피곤하던 그 녀자는 발간 표지의 손바닥만한 수첩을 줄곧 들여다보고있었다.

《아니 다 가져간줄 알았는데...》

은경은 모로 누워 꼼짝 않고있는 그 녀자에게로 다가갔다.

숙임은 눈을 살쾅이 내려덮으며 눈시울을 바르르 떨었다.

《왜 그래?》

은경은 수첩장에 눈길을 내리웠다.

누런빛 종이장을 배경으로 보라빛 글체가 안겨왔다.

《아버지로부터.》

은경은 수첩장 한가운데 또박이 쓰여져있는 글을 입속으로 읽었다.

《어렸을때거나?》

은경은 허리를 굽혀 다음장을 번지려다가 수첩을 살며시 덮으며 불타는듯 충혈진 눈으로 올려다보는 그 녀자의 시선과 맞부딪치었다.

《언니, 퇴소할수 없을까요?》

《퇴소? 똥판지같은 소리.》

은경은 소리내어 웃으려다가 그 녀자의 눈빛이

너무도 강렬히 불타고있어 자신도 모르게 수첩에 눈길을 다시 내리웠다.

《좀 나갔다 오겠어요.》

그 녀자는 수첩을 덮으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동무해줄가?》

은경은 그러지않아도 별로 배울것도 없는 자기를 찾아 호실을 옮겼다가 당한 그 녀자의 《봉변》이 어쩐지 자기 죄처럼 느껴져 그의 마음을 어떻게 녹랴해줄가싶었었다.

그는 숙임의 손목을 이끌고 룡양소마당의 인공호수에 건너놓은 무지개형의 둥근 다리를 건너 룡양소상점앞을 지나려다가 그 녀자의 손목을 상점안으로 이끌었다.

《어서 오세요.》

복스럽게 생긴 판매원처녀가 흰 덧이를 살짝 내보이며 반겼다.

《종이고장인 우리 군에선 학습장이 제일 기념품일거예요. 애들이 있지요?》

판매원처녀는 《언니들에게만 주어요.》하는듯 애교있는 눈웃음을 살짝 짓더니 대장밑에서 소년단휘장이 한가운데 큼직이 찍혀있는 수첩 몇권을 두 녀자앞에 내놓았다.

《아니...》

은경은 풍만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환성을 지르며 두손을 가슴이 마주쥐었다.

《고마와요.》

은경은 오목한 눈에 연방 웃음을 지으며 수첩한권을 숙임의 가슴에 안겨주었다.

《그렇지않아도 새로 입학한 우리 막내한테 선물할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은경은 주단처럼 부드러운이 펼쳐진 강가의 파란 풀밭을 걸으면서도 수첩을 이리저리 돌리며 수다스러이 말하였다.

두 녀자는 강가의 널찍한 바위돌우에 나란히 앉았다.

은경은 달린옷주머니에서 빨간 원주필을 서둘러 꺼내더니 수첩장의 첫페이지에 《어머니로부터》라고 등글납작한 글씨로 곱게 박아 썼다.

《숙임이도 쓰지.》

은경은 그 녀자앞에 원주필을 내밀었다.

숙임은 원주필을 받았으나 선뜻 쓰지 못하고 머뭇거리었다.

《왜? 숙임이 어렸을 때의 수첩을 보니 얼마나 인상적인지, 우리 집 별찬 사내녀석들이야 이렇게 써준 수첩을 부모의 기념으로 오래동안 견사해둘게 뭐야. 그런데 왜 안써? 아직두 기분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지.》

은경은 의문스러운 눈길로 그 녀자를 건너다보았다.

숙임은 흰 조약돌들이 깔린 시내물을 끝없이 들여다보고있었다.

《수첩이나 선물해서야...》
 그 녀자의 나지막한 입속말이다.
 《그게 어째서, 숙임이가 건사하고있는것도 수첩이면서...》
 《아니 그건 수첩이 아니라 <공장>이에요.》
 숙임이의 목소리는 퍼그나 낮고 진중하였다.
 《뭐라구? <공장>이라니?...》
 은경은 눈이 떠준해졌다.
 숙임은 바람에 흩날린 앞머리를 쓰다듬어 올리고나서 은은한 목소리로 말머리를 뺐다.
 《료양소로 오기 며칠전 인민학교 개학날이었어요. 난 우리 애를 데리고 학교에 갔지요. 애들이 풍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걸 보니 생각이 깊어지더군요. 장난꾸러기인줄로만 안 그 애들이 어른스럽게 노래부르는걸 보니 어머니된 마음이 새삼스럽게 커지면서 부모들 생각이 류벌스레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만 눈앞이 흐려오는것을 어찌지 못했어요.》
 그의 말소리는 진정으로 울렸다.
 《지금 부모들이 어디에 계시기에?》
 《언니 아버지가 공훈탄부라고 했지요? 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내가 일곱살이던 정전된 이듬해에 돌아가셨어요. 전투에서 척추골절로 전신 불구가 되다싶이 한 아버지였어요. 그때 아버지는 고향에서 쉬게 되어있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몸에 붉은 피가 남아있는 한 편히 놀수 없다며 허리에 철피를 두르고 건설장에 나섰어요. 아버지가 전선에 나가시기전에 일하시던 강철공장이었어요. 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나의 손목을 잡고 채더미된 <공장구내>를 돌아보던 아버지의 증오로 불타던 눈빛이말이에요. 아버지는 영예군인들을 모아 공구작업반을 무었어요. 공장을 복구하자면 망치며 삽이 필요했거든요. 그들은 토피로 벽을 쌓고 거기서 공구를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했지만 몸이 성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자동차같은 무슨 운반기재가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 가든 빈터와 맨주먹밖에 없었던 그때 자동차가 다 뭐겠어요. 생각 끝에 그들은 굶으면서도 푼전을 모아 말 한마리를 구했지요. 채빛나는 착한 말이였어요. 그때 난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주는 말이 너무도 고마와 쪽쪽한 두귀에 내 빨간 리본을 풀어서 드리워주었어요. 그러던것이 그 이듬해 겨울 어느날 새벽에 일어나보니 그만 죽었더군요. 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저씨들도 모두 울었어요. 분해서말이에요. 어떤 나쁜놈들이 말에게 못을 먹여 죽였거든요.》
 아버지와 사람들은 또다시 등짐으로 파철이며 자재들을 지어나르기 시작하였어요. 아버지는 의사가 큰변이 났다고 막아나섰지만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곤하였어요. 어느날 아버지는 사람들의 부축임을 받으며 집에 들어오셨더군요. 축 꺼진

불편이며 피로로 충혈진 눈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더는 그 정상을 그대로 볼수 없다며 갖은 사정을 다 하더군요.》
 숙임은 그때의 일이 가슴에 세차게 미쳐오는듯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밤은 류벌스럽게도 문풍지가 울어댔다.
 미적지근한 아래목에 웅송그리고 누워 혼곤히 잠에 젖어들어가던 숙임은 엄마의 울음섞인 목소리에 눈은 번쩍 떴다.
 《우리도 가지요 네? 영예군인들이 모이는곳으로말이에요. 간부들이 그러는데 도에 영예군인공장이 선다더군요. 거기선 영예군인들의 힘에 맞는 적당한 일을 맡겨준다는데 어서 가지자요 예? 전, 전, 더 못보겠어요. 당신이 그 몸에 허리띠까지 조이는걸, 애들도 또...》
 어머니는 얼굴을 싸쥐며 몸부림치듯 마구 느끼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가늘게 타오르는 등잔불을 뚫어지게 바라볼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철없다구 나무람 마세요. 하두...》
 《고맙구려. 여보, 당신두 알지 않소. 전쟁이 승리했지만 우리에게겐 채더미밖에 남지 않았구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지켜낸 땅인가말이요. 그래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싸웠겠소? 그런데 우리 세대가 전쟁에서 이겼다구 만세만 부르며 앉아있으면 누가 이 땅을 건설하겠나말이요. 여보, 우리가 고생스럽지만 허리띠를 조여매고 일해야 우리 아이들 대에 가서는 잘살게 될게 아니요.》
 아버지는 시원히 웃으며 숙임을 넘겨다보았다. 그리고는 한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불안이 깃들었던 숙임의 얼굴에 웃음이 꽃처럼 방긋 피어올랐다.
 《아버진 공장 조업식날 쇠물이 쏟아지는걸 보시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영영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엔 오래도록 미소가 어려있더군요. 몸이 것처럼 불편한것을 참고참아온 아버지였어요.》
 숙임은 고개를 외로 돌리며 어깨를 나지막이 들먹이었다.
 《난 너무 일찍 여윈 부모들이지만 오늘까지 순간도 잊은적이 없어요. 이 수첩은 아버지의 작업복주머니에 하루같이 꽂혀있었것이였어요. 공장 건설일지예요. 아버지가 남긴 귀중한것이예요. 전 늘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고싶어 어디에 가나 어떻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지요. 후대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세대를 위해서 자기의 피와 땀을 바쳤고 행복을 바쳤지요. 그런데 오늘 부모된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뭔가 못다한 책임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되요. 나도 부모들처럼 살고싶어요. 자식들앞에

우리처럼 살라고 뗏목이 말할수 있도록 어머니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싶단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채더미로부터 너무도 많은것을 안겨주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엔 아직 부족하고 모자라는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만 하고 할유할줄만 안다면 우리는 애들에게 무엇을 넘겨줄수 있는가말이에요. ... 무엇을...》

숙임의 눈빛은 불길마냥 타번졌다.

《우리는 부모들에게서 넘겨받은것을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적노력은 바쳐 새로운것으로 더 풍만하게 살을 짜워 넘겨주어야 해요.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 거기에 바쳐지는것이라고 생각하고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잘되지 않아서...》

그 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채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올라갔다.

은경은 움직일줄 모르고 그대로 묵묵히 앉아있었다.

안개같은 장막이 눈앞으로 뽕얇게 서려오르며 뜨거운것이 가슴속으로 흘러내렸다.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료양소에까지 와서 저렇게 안타까와할까?)

은경은 종잡을수없이 어설퍼지고 뒤숭숭해지는 마음을 달래지 못한채 그자리에 오래 서있었다.

그는 호실에 돌아와서도 무너지듯 침대머리에 주저앉아 저녁빛길이 질어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뒤채였다.

무슨 일이든지 손에 잡아야 번거로운 마음을 가라앉힐것 같았다.

은경은 사물함을 드-룩 열고 안쪽구석에서 뜨개감통구리를 끄집어내었다.

《틀-렁》

뜨개감통구리에 가로질러놓은 코바늘에 걸친듯 묵직한것이 발등에 떨어지였다.

플빛표지의 《보석》자료집이였다.

은경은 책을 손에 들며 가늠하는듯 실눈을 짓고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다른 손에 들었던 뜨개감통구리를 사물함 안에 훌 집어넣고는 문을 트룩 닫았다. 그리고는 어항안이 좁다하게 꼬리를 치며 헤엄쳐다니는 빨간 금붕어의 뒤를 기우뚱거리며 놀밋이 쫓아가는 허여스름한 넙적붕어를 들여다보았다. 제몸 하나 가늠 못하는 넙적붕어가 어쩐지 눈길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딱히 알수 없는 뒤숭숭한 기분속에서 헤어나려고 눈귀를 쪼프리며 무릎우에 놓인 책을 천천히 펼치였다.

숙임은 호실 창유리에 부딪쳐 어리광치던 저녁해빛이 방금 사라지게 된 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녀자를 기다려 창밖을 이욕도록 내다보던 은경은 어둠이 깃들기전에 강가에 나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어 부랴부랴 밖으로 뛰어나

갔다.

저녁해의 마지막 빛발이 강가며 소나무숲을 어루만지고있었다.

은경이가 서둘러 강가에 나갔지만 그 녀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숲속 휴식터에...)

은경은 소나무숲속으로 난 오솔길을 따다 허둥지둥 반달음하여 올라갔다.

《숙임이!》

은경은 손나팔을 해가지고 그 녀자를 사방으로 찾았다.

산울림이 은경의 목소리를 되받을뿐 주위는 고요하였다.

《딱 딱 딱》

이따금 어디선가 탐사대원들의 망치질같은 돌쫓는 소리가 엷은 바람에 휘말려 도간도간 들려왔다.

《숙임이!》

은경은 다시한번 목청을 돋구어 불렀다.

풀밭에 내려앉았던 메새 한마리가 부름소리에 놀란듯 포르릉 깃을 치며 날아가자 어디선가 《언니-》 하는 녀자의 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경은 귀를 강구었다.

《은경언-니.》

그 녀자의 은은하고 청맑은 목소리였다.

《아니...》

은경은 부름소리가 들려온 벼랑끝까지 마구 뛰어갔다. 그리고는 조심스러이 발터듬하며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세상에?!》

그 녀자가 벼랑중턱의 평퍼짐한곳에서 이끼건 돌을 조막만한 망치로 제정신없이 까내고있었던 것이다.

《숙임이.》

은경은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그 녀자를 신경질적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발을 굽지않으며 벼랑을 타고 다급히 그 녀자에게로 내려갔다.

《정신있어?》

은경은 망치를 휘두르는 그 녀자의 팔을 껍 나귀쳤다.

《수술한 사람이 이게 뭐야.》

《왔군요.》

그 녀자는 은경의 말엔 아랑곳않고 땀과 먼지로 마구 얼룩진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고마와요. 그러지않아도 와주었으면 했어요. 이것 좀 봐요. 뭐가 좀 있을것 같지 않아요. 전번에 봐두었는데 미처 까낼수 없어서...》

숙임은 이끼건 조막만한 돌조각 하나를 뜯어 은경이앞에 내밀었다.

은경은 그 녀자의 땀과 먼지가 흠뻑 게발린 손바닥우에 동실하게 놓인 이끼 덮인 파란 돌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뭐가 있더구?!)

은경은 그 녀자를 이해할수 없다는듯 훌 쳐다 보았다.

《연두빛 돌색이 어찌지... 중간색을 더 곱게 낼 수 있는 염료재료로 쓸만하지 않을까 해서...》

《중간색을?!》

은경은 그 녀자의 말을 짝막하게 되받아외우며 숙임의 얼굴을 놀라운 시선으로 주시하였다. 이러는 은경이에게는 료양소로 떠나는날 실장아바이의 연밤빛 책상우에 놓인 은회색전화기의 귀청 쨍듯 요란스러이 울리던 종소리가 되살아났다.

(가만, 아바이가 어디서 문의해온 전화였든가, 함흥, 원산, 청진, 분명 누군가 물어왔다고 했는데... 이 녀자가 혹시...)

은경은 순식간에 가빠지는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어디렸든가? 왜 안떠오를까?)

은경은 손바닥우의 조막만한 돌조각을 내려다 보며 생각의 실마리를 잡으려 다급히 서둘렀다.

(그렇지, 맞았어.)

은경은 전화의 임자가 숙임이가 아니라는것을 알아내자 안도의 숨을 후- 내쉬며 후둑후둑 들뛰는 가슴을 손으로 지그시 눌렀다.

(그럼 이 녀자가 말하는 중간색에 대한 말은 무엇일까? 망간토염료? 아니 이 녀자가 그럼?...)

은경은 부정하면서도 어찌지 가슴 한끝이 불안스럽게 하르르 떨림을 느꼈다.

《무슨 염료인지?》

은경은 이 녀자의 반쯤 벌려있는 도도룩한 아래입술을 조심스럽게 주시하며 뜻밖의 대답이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랐다.

《뭐라고 할지, 우린 지금 중간색을 더 곱게 내지 못하여 애를 먹고있어요. 아마 우리 공장뿐만 아니라 염료공장과 날염직장들에선 다 그럴거예요. 염료가 어떻든 우리 날염공들이야 물감만 들이면 되겠지만 나날이 향상되어가는 인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망간토염료를 만들어보자니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군요.》

그 녀자는 조막만한 돌을 손바닥우에 놓고 살그미 굴리며 락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랬겠구나.)

은경은 순식간에 가슴 한복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것을 느꼈다.

중간색을 개선하기 위한 염료연구는 수많은 시간과 정력,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것이니 공연한 수고를 하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날려보낸 편지에 회답을 보내온 방직공장 기술준비실의 선언같은 편지의 글줄이 귀전을 울렸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이 크든작든 그리고 무슨 일이든 모두 우리앞에 맡겨진 임무가 아닌가요, 하기에 그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 오직 해야 한다는것밖에 없습니 다.》

은경은 아픈데를 사정없이 찢리운 사람처럼 얼굴을 피곳 들어 그 녀자를 쳐다보고는 다시 갈팡 거러지는 눈길로 돌쪼각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조막만한 돌이 순식간에 천근무게로 무거워지며 청전벽력과도 같은 우뢰소리가 가슴한복판을 사정없이 들이치는것 같았다.

그의 눈앞에는 터질듯이 뚱뚱한 책배낭을 안고 와 밤새 묻고 따지던 화학식들이 살아올랐다.

(낮익은 화학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이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으랴!)

은경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이 허탈상태에 빠진듯 매시시해지며 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는 돌쪼각 하나를 또다시 내밀며 조금씩 묻는듯한 숙임의 얼굴을 두려움게 쳐다보았다.

은경은 이때 과학자로서의 알수 없는 자책감이 온몸을 휩싸는것을 느꼈다.

이 녀자는 어찌하여 아무런 두려움도 주저도 없이 피타는 노력을 이렇게 바쳐가고있는가?

은경은 피로움으로 뿌영게 흐려지는 눈길을 돌쪼각에 박았다.

염료재료로 쓸만하게 느껴지는것은 별로 없었다.

은경은 조심히 고개를 들었다.

기대와 불안이 마구 뒤섞인 그 녀자의 눈빛이 은경의 얼굴을 감싸며 어서 말해달라고 성급히 조르는것 같았다.

(내가 미처 알수 없는것, 저 녀자의 저 눈으로 쏘란 볼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저기서 빛나고있는것이 아닐까?)

은경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돌쪼각 몇개를 더 골라들었다.

《그 공장엔 세밀한 분석기구들이 없겠지? 료양소에서 돌아가는 날 우리 과학원에 함께 가서...》

은경은 동의를 구하는듯 숙임의 얼굴을 조심스러이 보며 말꼬리를 흐렸다.

긴 살눈썹이 들리면서 그 녀자의 시름겨운 그 육한 눈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거의 한순간에 어리었다.

《그럼 여기에 쓸만한것이 있단말인가요?》

그 녀자는 침착하고 맑은 음성으로 나직이 소리쳤다.

그리고는 더 다른 말을 바라지 않는다는듯 어깨에 걸치었던 꽃수건을 풀어 땅에 활 펼치었다.

《어떻게 이런 돌이 여기에 있었을가요? 우연이랄지, 전번에 진작 언니에게 물어봤을걸. 내가 왜 이리고있었을가요.》

숙임은 아쉬움과 후회가 짙게 어린 목소리로 자기를 가슴아프게 질책하며 꽃수건에 돌쪼각을

마구 걷어쌌다.

《아니 그만둬. 나한테 큰 보자기가 있어.》

은경은 그 녀자가 펼쳐놓은 연미색머리수건을 내려다보며 사정하다싶이 말리었다.

《고마와요. 언니 찢어지면 뭐래요.》

그 녀자는 겨우 찾은 보물이 잃어질까 겁을 내는듯 흰 학이 빨간 꽃송이를 물고 나는 화려한머리수건우에 돌덩이를 하나하나 소중히 싸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돌보파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일어섰다.

《난 과학원에 다섯번이나 연구자료들을 올려보냈지만 모두 부결된것 같아요. 그때마다 지식이 발은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나의 연구자료들이 누구에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망간토염료를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 녀자는 노래라도 부를듯 기쁨과 희열에 넘쳐있었다.

《됐어...》

은경은 더는 자기를 지탱하지 못하고 돌아서버리었다.

그는 발길이 닿는대로 몸을 휘청거리며 앞으로 내걸었다.

세찬 바람을 받은 풀막과도 같이 온 가슴이 진정할수 없이 활랑거리며 위구심과 불안이 마구 너울쳐들어왔다.

(보기에도 연약한 이 녀자가 과연 망간토염료 연구의 험난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겠는가.

이 녀자는 지금 지식이 발은 자기가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겠는지 실패하겠는지 그에 대한 의혹도 의심도 주저도 동요도 없이 가고있다.

이 녀자가 이렇듯 분발하고 자신을 바칠수 있는 정신력은 과연 무엇이란말인가?)

은경은 벌써 이 물음을 자신앞에 몇십번하며 산지사방으로 뿌려쳐 달아나는것만 같은 몸을 가까스로 끌고 호실에 들어서자 사물함을 활짝 열어젖히었다. 옷가지들이며 화장품통밑에 묻혀있는 풀빛 《보석》수첩을 들춰꺼내는데 동그란 뜨개감실토리가 묻어나오며 침대밑으로 굴러들어갔다.

은경은 뜨개감을 건주어볼념도 않고 《보석》수첩을 후르르 피루었다.

(이 수첩의 갈피갈피에 어려있는 내가 걸어온 10년, 이 10년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은경은 《보석》수첩을 피로움이 불비마냥 쏟아져내리는 눈으로 아프게 내려다보며 그 녀자의 침대로 천천히 다가가 그것을 빨간 수첩과 나란히 놓았다.

순간 그는 전류에 감전된듯 몸을 떨었다.

은경은 나란히 놓인 두 책사이의 아득한 차이를 더 보지 않으려는듯 신음소리를 내며 두손으로 얼굴을 아프게 싸쥐었다.

그 녀자는 밤이 깊도록 들어오지 않았다.

(어디 갔을가?)

은경은 창가로 다가가 식당모퉁이의 외등밑을 지켜보았으나 그 녀자는 보이지 않았다.

언제가 산책을 하고 오며 군감시대분석실에 대하여 물었던 그 녀자의 말이 떠올랐다.

(거기가 어디라구 아! 그의 그 다섯통의 분석자료들이 오늘과 같은 피타는 탐구를 거쳐 써보낸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여지없이 짓밟아버렸었으니...)

헤아릴수 없는 자책감과 함께 모멸감이 가슴을 짓누른다. 그는 자신이 이 밤길을 걷게 한 장본인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은경은 료양소를 병풍처럼 둘러싼 우중충한 산발을 휘돌러보고나서 정문앞길을 급히 내걸었다.

그는 걸음을 다그치려 애썼건만 꿈속에서처럼 다리가 빨리 놀려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는것만 같아 안타까와났다.

그의 눈앞에는 자기의 몸에 붉은 피가 남아있는 한 아이들에게 재더미를 그대로 넘겨줄수 없다며 골절된 허리에 철피를 두르고 일터에 나섰다는 그 녀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우렷이 살아올랐다.

강가에서 한 그 녀자의 부드럽고 뜨거운 목소리가 귀전으로 또다시 날아든다.

《나도 부모들처럼 살고싶어요. 자식들앞에 우리처럼 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도록 어머니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싶어요... 우리는 부모들에게서 물려받은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적노력을 바쳐 새로운것으로 더 풍만하게 살을 짜워 넘겨주어야 해요.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 거기에 바쳐지는것이라고 생각하고있어요》

은경은 걸음을 더욱 다그쳤다.

(이것이였구나. 그 녀자와 나사이의 아득한 차이가... 나는 생활에 만취되어 자기앞에 맡겨진 일을 한갓 직업적의무로 여기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 녀자는 자기앞에 맡겨진 일, 아니 그것이 누가 해야 할 일이건말건, 그것이 크든작든 모두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임무로 여기고있으며 자식들앞에 지닌 부모들의 의무로 여기고있지 않는가. 내가 한생애 놓친것이 수없이 많지만 기어이 찾아야 할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

은경은 그 녀자와 자기사이의 아득한 사이를 줄이려는듯 피로움으로 차오르는 가슴을 누르며 허겁지겁 내뒹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한껏 웨쳤다.

(그렇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자기 자식앞에서만 아니라 조국의 미래앞에 지닌 이 땅의 공민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은경의 걸음은 더 세차게 빨라지였다.

시의 서정구조에 대한 문제

원석파

최근 우리 시문학은 내용의 다양성에 있어서나 형식의 새로운 탐구에서 급속한 전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미학적요구에 비추어볼 때 아직 응당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들에서는 서정구조를 잘 짜기 위한 탐구적노력이 적게 돌려짐으로써 시 형상의 저조성을 발로시키는 현상이 지속되고있다.

시의 서정구조를 잘 짜는 문제는 시의 형상성을 높이는 기본고리의 하나이다.

시인이 생활속에서 아무리 좋은 종자를 골라잡았다 해도 그것을 짜인 서정구조에 담지 못하면 그 착상은 아무런 결실도 맺을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가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았다고 하여도 그에 알맞는 구성을 세우지 못하면 작품의 사상을 명백하게 드러낼수 없다.》

서정구조를 잘 짜기 위하여서는 서정구조의 생리와 그 형상적기능을 잘 알아야 한다.

1

서정구조란 시인이 생활속에서 받아안은 착상을 주정으로 형태화하는 체계이다.

시인은 한편의 시를 통하여 새로운 시세계를 창조한다. 시세계는 단순한 생활세계의 재현이 아니라 시인이 지니고있는 미학적리상의 조명에 의하여 재창조된 비판복적인 서정세계이다.

이 서정세계는 어디까지나 시인의 체험에 기초하고있으며 여기에는 시인의 사색과 열정, 랑만과 환상, 의지의 신념 나아가서는 그 정신적인 모든것이 깃든다.

시인은 이 서정세계를 통하여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인간정신의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에로 이끌어올린다.

그러니 이 서정세계는 시인의 머리속에 상념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상의 그릇에 담겨어 형태화되여야 한다. 서정세계를 형태화하는 형상의 그릇이 바로 서정구조인것이다. 때문에 시에서 서정구조문제는 시가 자기의 체모를 갖추는가 못갖추는가 하는 시형상의 기본문제로 제기된다.

시의 서정구조는 다른 산문문학의 구성과는 달

리 자기의 상대적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주정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이다.

서정시는 시인의 주정토로를 기본형상방식으로 삼으므로 소설이나 극과 같이 인간관계나 사건, 갈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주정의 흐름이 그 구성의 유일한 핵으로 되기때문이다.

시에 이야기나 사건이 도입된다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정의 흐름에 종속되는것이다.

둘째로, 고도의 함축을 요구하는 구조이다.

시는 작은 형상규모속에 큰 세계를 담는 문학이다. 작은 형상규모속에 큰 서정세계를 담아야 하기때문에 함축문제는 표현상요구에 앞서 구성상요구로 제기된다.

서정구조는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정조직과 함축조직을 기본으로 한다.

주정조직은 시간적종적성격을 가지며 함축조직은 공간적횡적성격을 가진다. 주정조직은 정서를 시간적종적흐름속에서 조직하며 함축조직은 서정세계의 형태적압축을 시행 시련의 공간적횡적련관속에서 조직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창작실천에서는 이 형성과정들이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는것이 아니며 또 이 구성요소들이 서로 독자적가치를 가지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호상 침투하여 통일된 유기적련관과조화로써 시라는 산 유기체를 형성하는데서만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서정구조는 그 어느 문학의 구성보다도 더 진지한 형상적탐구와 기교를 요구한다. 그것은 형상규모가 극히 작으면서도 치밀한 유기적생리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우선 인간정서를 주로 다루므로 정서에 대한 각별한 예민성을 가져야 한다.

정서는 인간심리속에서도 가장 복잡한 속성을 가진 심리이다. 그 질이 섬세하고 색깔이 다양하며 흐름새에서 독특한 운동성을 가지고있다. 이것을 다룬다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함축조직이란 작은 세계를 크게 확대하기도 하고 큰 세계를 작게 축조하기도 하는 고급한 형상과정이므로 부단히 새로운 탐구를 요하는것이다. 때문에 시인은 정서조직의 명수, 함축조직의 명수로 되여야 하는것이다.

2

구조학상으로 볼 때 정서는 서정구조의 기본자

료로 된다. 그러므로 정서가 없으면 서정구조란 불가능한 것이다.

정서적체험과 정서적느낌, 정서적착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문장을 토막쳐서 시행, 시련을 만들어도 그것은 시로 될 수 없으며 설사 형태상 시처럼 되었다 하더라도 산문화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참다운 서정구조를 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인이 정서적느낌을 안고있어야 하며 이 정서적느낌을 잘 조직하며 주제적과제 실현으로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다.

주정조직에서 주되는 것은 운물을 잘 조성하는 문제이다.

정서의 흐름형식은 파동적이며 그 흐름새의 미학적가치는 파동의 음악성에 있다.

운물조직은 정서의 흐름길을 놓아주는 작업이다. 즉 운물은 정서의 파동적인 흐름을 성음으로 담보하여준다. 때문에 시에서 주정조직이란 실천적으로는 운물조직에 귀결된다.

서정구조가 운물구조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런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서정구조에서는 매 시에 시구들은 다 자기의 음가를 가지고있어야 하며 시행 시련들은 음조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우리는 일부 의미적내용을 파다하게 라렬한 시들에서 자기의 음가를 가지지 못한 시어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것은 시의 운물조직이 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류의하여야 할 점은 운물이 정서의 표현형식이기는 하지만 정서적내용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운물형식은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미학적가치를 가질 수 없지만 그 어느 문학형식보다도 독립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특성으로 하여 시정시는 그 역사적발전과정에서 정형시라는 격식화된 운물형태를 가지게 되었거나 정형물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특성은 현대자유시의 새로운 운물창조에 두 가지 상반되는 작용을 한다. 즉 새로운 운물의 창조를 돕기도 하고 운물창조에서 형식주의를 범하게도 한다.

새로운 운물창조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 인민들의 운물적관습에 맞게 역사적으로 형성공고화된 정형물들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리용하는 측면이며 형식주의를 범하게 한다는 것은 정서적내용을 떠난 형식물로 시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일부 시들은 성음상으로 볼 때 번지르르하고 류창한 음조를 조성하고있기는 하나 실제 아무런 정서도 환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가.

이것을 참다운 운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서와 운물은 언제나 내용과 형식의 관계로 밀착상태에 있어야 하며 시의 음미과정에 그것이 단순한 성음의 물조 즉 음조로가 아니라 정서의 음악적인 흐름 즉 정조로 느껴져야 하는 것이다.

정서를 직접 안은 유조만이 시의 참다운 운물 즉 정조로 되는 것이다.

불빛이 아늑한 마을을 뒤에 두시고

웃으시며 떠나시던 수령님 모습

어제도 오늘도 못잊고

낮에도 밤에도 못잊어

창밖에 비가 내려도

문득 이런날 걸으실 수령님 생각

창밖에 눈이 내려도 바람이 스쳐도

가슴 뭉클 젖어오는 수령님 생각

(시 《창밖에 바가 와도 눈이 내려도》 김석주)

이 시에서는 운물이 완전히 정서와 밀착하여 정서의 생동한 흐름을 음악적으로 느끼게 된다. 정서이자 음조이고 음조이자 정서로 되어있다.

운물조성은 이렇게 정조로 음미하게 되어야 사람들의 입에 오를 수 있으며 애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인들은 창작실천에서 산문화의 경향을 반대하는 동시에 운물이 그 어느 문학형식보다도 독립성이 강하다는 특성에 주의를 돌리면서 운물조직에서 형식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주정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서정구조의 내부흐름에 주도적으로 작용하고있는 기승전결의 형상론리를 철저히 살리는 문제이다.

주정조직에서 기승전결의 련관을 무시하면 서정구조의 내부생리가 파괴되거나 불균형이 조성되어 주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저해한다.

기승전결의 형상론리는 형식이 몹시 짧은 시라 하여도 그것이 하나의 서정구조를 이루는 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시가사를 보면 많은 시형태들의 교체가 있었다. 그러나 그 형태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적구조에서는 기승전결의 평상론리가 엄격히 보존되어왔다. 시조는 3장(3행)으로 구성된 극히 짧은 형식의 정형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기승전결은 엄격히 준수되었다.

이 형상론리는 정서의 운동형태에 기초하여 작용하는 서정구조의 내부련관이다. 서정구조에서 사상적지향성을 가진 정서는 상승운동을 한다. 정서의 상승운동은 직선적흐름형태를 취하지 않고 발단, 진행, 절정, 종결이라는 단계적흐름형태

를 취한다. 이것이 기승전결의 평상론리를 이루는 것이다.

서정구조내에 기승전결이 있어야 주정의 상수 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주제가 자연스럽게 무르익는다.

주제가 자연스럽게 무르익은 서정만이 정서적 감화기능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형상론리의 작용은 모든 서정구조를 한가지 틀로 격식화하는것은 아니다. 그 발현형태는 다양하여야 하며 매 시련에 비반복적이어야 한다. 여기에 시인의 탐구의 몫이 있는것이다.

이상에서 말한바와 같이 주정조직에서 주되는 것은 운물조직과 기승전결의 형상론리조직이다.

시인들은 다양한 운물수단을 동원하여 정서와 음조가 밀착된 음악성이 풍부한 정조를 조성하며 기승전결의 형상론리를 잘 살려 주제를 자연스럽게 결실되게 하여야 한다.

3

함축조직은 서정구조의 구성상 요구이다. 그것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서정구조의 특성과 관련된다.

원래 함축이란 표현을 간결하게 하면서 뜻을 깊게 하는 문장조직의 한 수법이다. 그러나 서정구조에서 함축이라는 개념은 문장을 함축하는 문장조직상 함축이 아니라 시의 형태상 규모를 압축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함축을 말한다.

물론 시의 형태상함축은 실천적으로는 시문장의 함축의 통일적총체로 이루어진다.

또한 시적함축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일반문장에서의 논리적간결성으로 이루어지는 함축이 아니라 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함축 즉 형상적함축을 말한다.

서정시는 시공간을 가진 옹근 하나의 새로운 서정세계를 얼마 안되는 작은 형태속에 담아야 하기때문에 필연적으로 형상적함축에 의거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시를 하나의 물방울에 우주를 담는다고 하는것은 서정구조의 함축성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시는 그 어느 문장에서보다도 함축 수단과 수법들을 많이 가지고있으며 그것이 매우 발전하고 있다.

언어의 절제, 비유, 상징, 생략, 억류, 감탄, 의인화 등 일반문장에서의 표현수법들이 시에서는 표현수법으로 될뿐아니라 함축수법으로 된다.

서정구조가 함축조직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를 통하여 백을 보여주고 작은것을 통하여 큰것을 보여주는 일반화의 원칙을 실현할수 없으며 따라

서 시에 깊은 사상정서를 담을수 없는것이다.

함축의 준비조건은 시인의 깊은 사색과 풍부한 환상에 있으며 그 실현조건은 시인의 일반화능력과 각종 함축수단을 잘 구사하는 함축기교에 있다. 함축의 구심초점은 시의 주제에 있으며 그 결실은 련상적내용의 풍부성과 특이한 여운에 있다.

함축조직이 잘된 한편의 시를 실례로 들어보자.

만민의 뜨거운 마음 충충 피여
이 땅에 솟아난 만수대 푸른언덕
태양을 모신 영광의 언덕이여!

송엄히 옷깃 여미고 걸음 옮기니
인류의 심장의 고동소리 들려오는듯
여기서는 온 세계가 나에게 가장 가까웁네

우주를 향해 활짝 열려진
지구우의 가장 빛나는 창문이 이 언덕에 있어
어둠이 가서진 세계의 새벽도
여기서는 가장 밝게 내다보이네

인류의 봄 꽃피워주시는 주체의 해발이
우주에 비쳐가는
오, 만수대
이 시각 나는 지구의 중심에 서있네
(시 《만수대언덕》 방금숙)

이 시는 분량으로 보아 불과 4련 12행밖에 안되는 짧은 시이지만 이 서정구조속에는 만수대언덕을 지구익 중심으로 하여 우주적규모에서 펼쳐진 광대하고 심오한 서정세계가 압축되어있으며 이 서정세계를 통하여 시인은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이 시에는 시인의 깊은 사색과 풍부한 환상이 나래치고있으며 사상감정의 정수적특성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도의 언어절제, 비유, 상징, 비약, 생략, 감탄 등 함축의 각종 수단과 수법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하나의 투명한 구슬과 같은 함축의 결정체를 이루고있다.

이 시는 형상적함축의 위력이 인마나 큰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일부 시들은 함축조직을 무시함으로써 령체적인 깊은 서정세계를 펼치지 못하고 생활사실을 있는 그대로 평면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시 《대학이 오네》(차명문, 《조선문학》 11호)를 하나의 실례로 들수 있다.

이 시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의 청년분조원들이 공부하러 대학으로 찾아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이 청년분조원들을 찾아 농장으로

온다는 시상을 통하여 우리 나라 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덕성을 노래하려고 하였다.

그 착상은 좋으나 함축의 견지에서 볼 때 함축조직이 되어있지 않으며 사실을 기록하는데 그치고있다.

청년분조원들의 마음씨
하도 기특하여
지원하여 온다는 저 선생들은
학계에서 이름있는 교수 박사들
보기만 해도 미덥구나
산촌에 찾아오는 대학이여

사람들이 달려가 반겨맞으며
얼싸안은 청년분조원들은
어제 앓은 자리에서
겨우내 공부하는 대학생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가

이 시련들의 조직과 표현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기에 표현된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하나를 통하여 하나를 보여주고있다.

시행 시련들은 함축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나아가서는 서정구조자체가 함축형태를 이루지 못하고있다. 이런 시들에서는 깊은 사색과 풍부한 서정, 인상적인 여운을 감득할수 없으며 얕은 대야에 담겨진 물과 같이 밑바닥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천박감을 느끼게 된다.

시인들은 시형상에서 함축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체득하고 함축의 높은 기교를 소유하여야 철학적사색이 깊고 생활의 본질을 보여주는 좋은 시를 형상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4

서정구조는 독창적이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서정구조에 특색이 없으면 시상의 독창성이 살아나지 못한다.

서정구조의 독창성과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들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첫째로, 서정구조를 논리구조로 대신하는 현상이다.

최근 우리의 일부 시들은 《제강식구조》의 틀에서 의연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제강식구조》란 논리구조를 의미한다.

이것은 사상을 직선적으로 강조하는데서 초래

되는 형상상 오류이다.

필요성, 생활력, 의의, 과업, 결의 등 이런 식으로 형상체계를 까면 모든 시행, 시련들이 론증자료로 되며 이런 구조에는 서정이 깃들 자리가 없다.

서정구조가 이렇게 되면 서술성을 면할수 없으며 산문화의 길로 떨어지지 않을수 없다.

둘째로, 서정구조의 류사성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시인들은 서정구조를 몇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것이 아무리 특색을 가진다하여도 그 몇개의 유형에서 벗어날수 없는듯이 말하고있으나 이 주장은 오히려 시에 틀을 만드는것이며 형식에 대한 시인의 새로운 탐구를 저해한다.

각이한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때 시편의 건당 서정구조는 절대로 어떤 유형에 사로잡힐수 없으며 비반복적인것이다.

류사성의 원인을 시적대상의 류사성, 사고방식의 류사성에서 찾는것은 심히 옳지 않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험과 사색, 탐구의 부족해서 오는것이며 시인의 창조적시정신의 결여에서 오는것이다.

셋째로, 단순히 문장을 토막쳐서 시행, 시련을 만들고 이것을 서정구조로 간주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들이 쓴 시들은 문장을 끊어서 절로 나누었으니 시처럼 되었지 다 쪽 련결해놓으면 하나의 산문으로 된다고 엄격하게 교시하시였다.

시형상의 기본틀거리를 아무런 형상적설계도 없이 단순히 문장을 토막쳐서 분행, 분련하는것으로 대신한다면 이것은 시형상의 가장 유치한 단계를 면치 못할것이다. 이런 시들은 형식상으로는 시처럼 보이나 시이전인것이다.

균제성, 조화성도 서정구조의 형상적가치를 높이는 중요조건이다. 때문에 서정구조는 모든것이 치수에 맞고 제자리에 놓이고 앞뒤가 잘 어울려야 한다.

그러나 서정구조는 시의 구성형식으로서 시형식의 전부를 대표하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표현형식과 결합될 때에만 완전한 시형식으로 되며 시형식은 또한 사상징서적내용과 밀착될 때에만 훌륭한 시로 되는것이다.

시인들은 시상의 새로운 탐구의 함께 형식탐구에 있어서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주체적시가는 고상한 사상징서적내용에 아름답고 세련된 형상의 옷을 입어야 한다.

밀거름

송병준

우리는 향기 그윽한 꽃을 볼 때나 호합지게 주렁진 열매를 볼 때 그 꽃의 아름다움과 열매의 가치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꽃의 향기도 잘 익은 열매도 좋은 밀거름이 없이는 바라지 못하는것이다. 튼튼한 기초가 없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도 만년대계의 기념비도 일어서지 못하는것처럼, 단순하다고 생각되는 이 리치를 나는 참대숲 설레이는 서해기슭의 한 협동농장에서 작업반장을 통하여 취재하는 과정에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작업반장은 10년동안 국가일과제를 넘쳐 수행하여 공훈을 세운 로력영웅이었다.

그는 작업반의 규격포전이며 과수원이며 문화주택이며... 기름진 논밭과 유족한 마을의 살림살이를 마련하는데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작업반은 물론 온 농장적으로 소문났던것이다.

내가 그를 취재하러 왔다는것을 알자 그는 나에게 말했다.

《제가 이런 영광을 받아안게 된것은 우리 작업반 당세포비서아바이의 숨은 뒤받침때문이지요. 농민식으로 말하면 밀거름이라고 할가요.》

그리하여 나는 한생을 농사를 지으며 우리 당을 받들고 살아온 한 당세포비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우리 당과 함께 세포비서로 40년!

해방후 토지개혁때로부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농업협동화와 천리마운동 그리고 오늘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이 보람찬 투쟁과정에서 그가 무슨 일인들 해보지 않았으랴.

정녕 그의 한생은 영예롭고 보람찬 나날로 이어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일생을 혁명을 위하여, 자기 조국과 인민과 로동계급을 위하여 바치는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는 토지개혁때부터 농촌에서 착실한 실농군으로 발고랑을 타고앉아 오늘까지 대중의 앞장에서서 당정책을 관철해왔고 풍년날알을 거두도록 농장원들을 이끌어나갔다.

그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

앙에 충성하도록 농장원들과 마을사람들을 이끌 어주었다. 그는 특히 작업반장의 사업 방법과 작품을 놓고 깊은 밤에 그를 찾아가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잘 지어 만풍년을 마련하겠는가 하는것은 본조장과 논둑길을 함께 걸으며 일깨워주기도 했다. 모내기철에는 그 늙은 몸에 알심있게 씨레질을 하는 젊은 운전수를 도와 트랙터운전대를 잡기도 했다.

어떤 때는 농사일을 험하게 하느라고 창의고안에 모대기는 작업반기술지도원과 함께 토론하고 모색하느라 시간가는줄도 몰랐다.

그는 작업반장이 없을 때엔 후방가족의 집들을 방문하고 불편한 점이 없는가, 지어 땀나무에까지 관심하고 보살피주었다. 명절날에도 새벽이슬에 바지가랭이를 적시며 땀산모관을 돌아보곤 했다.

그는 이렇게 한생을 굶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묵묵히 일했고 말없이 작업반장을 뒤받침해주었다.

비록 그의 수고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아도 그의 숨은 노력이 축하의 꽃다발속에 평가되지 않아도 그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오직 그가 바라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위해 한생을 고스란히 바치도록 하는것이며 그의 기쁨은 그들이 새로운 위훈을 쌓아가도록 잘 이끌어주는것이였다.

작업반장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세포비서아바이는 진국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당정책을 잘 관철하게 이끌어주고 보살피주는 세포비서랍니다. 그는 이제 우리 늙은이들이 무슨 큰일을 하겠는가 하고 하면서 남은 여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젊은 사람들의 뒤받침을 잘해주는데서 보람을 찾는다고 소박하게 말하군 한답니다.》

그렇다. 바로 이런 소박하고 수수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크나큰 뜻과 고귀한 신념을 안고 우리 당을 받들어나가는 한길에서 언제나 주춧돌이 되고 밀거름으로 되고있기에 우리 조국은 한없이 강하며 융성번영해지는것이다.

나는 작업반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된 삶을 위하여 남모르게 뒤받침해주는 그 고귀함의 참뜻을 새롭게 깨달았다.

새날의 첫 기슭에서

리종섭

출근길

누구 하나 늘늘이 걷는이 없고
한가로이 여담하며 가는이 없다
어디선가 집합나팔소리 들려오는듯
드바빠 달리는 출근길

나이와 일터는 제가꿈이지만
조국의 부름에 발을 맞춘다
한초를 드리면 하루가 흐려지는듯
자욱마다 티없는 랑심을 고이며 간다

누리는 행복이 너무 커서
그 값을 성의껏 치르며 살고파
날마다 그 한생각속에
집집마다에서 서둘러 나서거니

로타리 단물집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마주오는 처녀야
몇삼년을 이렇게 아침마다 만나니
인제는 웃으며 인사까지 하는구나

분침을 지나는 초침처럼
잠시 잠깐 만나자 어기군해도
너를 믿어 의심치 않노라
일 잘하고 착실한 처녀임을

곳은 날 마른 날
하두도 번지는 날이 없이

위훈만을 안고
앞당기는 시간 시간속에
성실한 우리 인민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파도쳐 가는 길

이 길에 나서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처마밑에 들어가 그어가는이 없고
손목시계를 자주 보며
조국에 시간을 맞추며 가는 길

우리 당이 부르는 총진군의 대오속에
자기 위치를 제시간에 차지하러
온 나라 인민들이 바빠 가는 출근길
새날의 전투에 진입하는 출진의 길이어!

한 처녀에게

조국의 하루 첫 일과를
시계바늘처럼 지켜가는 처녀

일을 해도 빈틈이 없고
조국을 받들어 드림없을 그 마음
사랑인들 치차처럼 맞물리지 못하고
생활인들 편차없이 꾸리지 못하랴

아 내 만약 총각이라면
류다른 생각을 가졌으련만
나는 이미 쌍둥이아버지
내 대신 어느 한 총각을 세울순 없을가

알고보니...

별로 자랑할 일도 아닌걸
기껏해야 투정많은 손자에게
승어국이나 먹이려는 낚시질인걸
하필 드바쁜 출근길에 나서군할가

아침마다 만나는 한 로인을 두고
탐탁히 여기잖던 나의 생각
그 어느 일요일날 깨지고말았네
펄펄 뛰는 고기를 연방 낚아내네

그 로인과 담배를 나눠붙이며...

아뿔사 이런 실수람
소일거리하는 늙은인줄 알았더니
가내부업반 부반장
대동강 승어국집 관록있는 《공급원》

오해가 없었던들
이처럼야 기쁘랴

먹은 나이로 나라에 부담을 끼치기전
이제 먹은 나이를 다해
나라살림에 보탬을 주니

두어라

가자고 가는 길은
진펄도 나물지 않고
가기 싫어 가는 길은
큰길도 타발하더라

마음 먹고 가는 길은
힘한 령도 단숨이지만
미타해서 가는 길은
신 끈부터 풀리더라

아침마다 봄비는 출근길에
낙시대를 장충처럼 돌려메고
맨 앞장에 나선들 누가 탓하랴
백발에도 근로하는 공민이거니...

가는길

험하게 걷고 보면
쑥대밭만 남아있고
힘겨워도 헤친 길은
자욱마다 꽃이더라

당을 따라 가고가면
행복이 마중오건만
중도에서 돌아서면
인생도 막바지더라